

# 濟州錦城里遺蹟

2001

濟州史定立事業推進協議會  
濟州大學校博物館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제주 금성리유적 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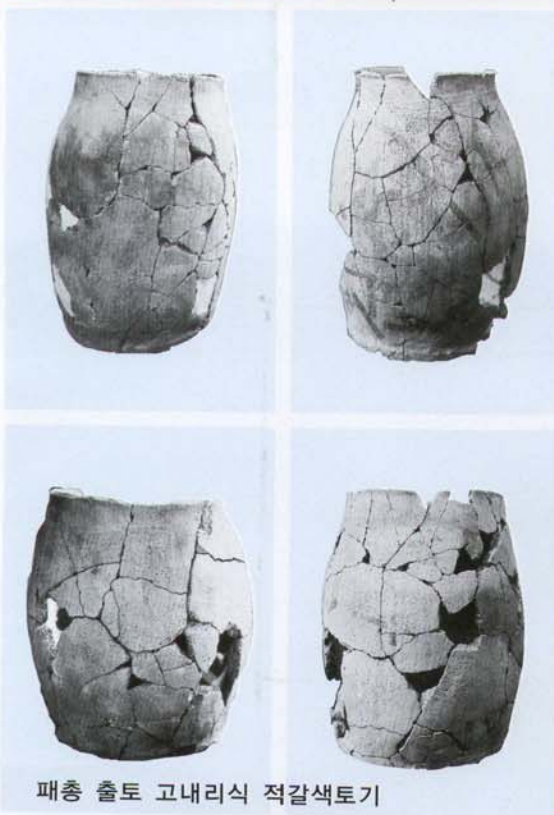


석축 유구 세부 근경[○ : 화천(貨泉) 출토상태]





패총 층위 상태



패총 출토 고내리식 적갈색토기



석축유구의 패총















## 目 次

머리말 / 17

### I. 調查地域 環境과 關聯遺蹟 / 20

1. 調查地域 位置 및 環境 / 20

2. 關聯遺蹟 / 21

### II. 地表調查 / 43

1. 概要 / 43

2. 調查方法과 經過 / 44

3. 調查內容 / 46

4. 收拾遺物 / 53

5. 考察 / 65

### III. 調查經過 / 66

1. 調查經過 / 66

2. 調查方法 / 67

### IV. 調查內容 / 69

1. 層位 / 69

2. 遺構와 遺物 / 72

### V. 考 察 / 156

1. 遺蹟의 形成課程 / 156

2. 遺構와 出土遺物 / 156

3. 遺蹟의 性格 / 159

맺음말 / 160

초 록 / 161



## ● 삼도목차

- 삼도 1. 금성리유적과 한반도 남해안과의 시인 거리와 각도 / 17
- 삼도 2. 금성리주변 유적 분포도 / 18
- 삼도 3. 금성리유적 주변의 토양과 하천 / 18
- 삼도 4. 금성리유적 발굴지점 위치도 / 19
- 삼도 5. 광지리유적 지형과 유물산포지의 범위 / 24
- 삼도 6. 광지리유적 발굴지점 위치도 / 24
- 삼도 7. 5지구 층위 단면도 / 25
- 삼도 8. 5지구 유물층 실측도 / 25
- 삼도 9. 광지패총 5지구 유물 출토상태(전체) / 25
- 삼도 10. 광지패총 5지구 유물 출토상태(세부) / 26
- 삼도 11. 광지패총 7지구 전경 / 27
- 삼도 12. 광지패총 4지구 전경 / 27
- 삼도 13. 광지패총 5지구 출토 광지리식 토기 일괄 / 28
- 삼도 14. 광지패총 5지구 출토 광지리식 토기 일괄 / 29
- 삼도 15. 고내리 유물산포지 1지구 발굴지 전경 / 30
- 삼도 16. 고내리 구덩이 실측도 / 31
- 삼도 17. 구덩이와 유물 출토 상태 / 31
- 삼도 18. 고내리 1지구 전체유구 평면도 / 32
- 삼도 19. 유물 출토 상태(세부) / 33
- 삼도 20. 고내리유적 출토 고내리식 토기 일괄 / 34
- 삼도 21. 고내리 1지구 출토유물 실측도 / 36
- 삼도 22. 고내리식토기 일괄 / 37
- 삼도 23. 사각편병 · 원통형병 · 일면편병 / 38
- 삼도 24. 금성리유적 발굴지 전경 / 39
- 삼도 25. 금성리유적 발굴지 전경 / 39
- 삼도 26. 금성리유적 석축 축조상태 / 39
- 삼도 27. 금성리 석축유적 발굴 구획도 / 40
- 삼도 28. 금성리 석축유구 단면도 / 40
- 삼도 29. 금성리 석축유구 평면도 / 40
- 삼도 30. 금성리유적 석축 윗면 축조상태 / 42
- 삼도 31. 금성리유적 패총 층위상태 / 42
- 삼도 32. 금성리유적 석축유구 / 42

## ● 지표조사 목차

### 그림목차

- 그림 1. 광지 · 금성패총 유물 분포도 / 47
- 그림 2. 광지리식 토기 구연부 / 53
- 그림 3. 광지리식 토기 구연부 / 54
- 그림 4. 고내리식 토기 구연부 / 54
- 그림 5. 광지리식 토기 저부 / 55
- 그림 6. 광지리식 토기 저부 / 55
- 그림 7. 광지리식 토기 저부 / 56
- 그림 8. 광지리식 토기 저부 / 56
- 그림 9. 광지리식 토기 저부 / 57

- 그림 10. 광지리식 토기 저부 / 57
- 그림 11. 광지리식 토기 저부 / 58
- 그림 12. 광지리식 토기 저부 / 58
- 그림 13. 광지리식 토기 저부 / 59
- 그림 14. 광지리식 토기 저부 / 59
- 그림 15. 원뿔형 토기 / 60
- 그림 16. 홈돌 / 60
- 그림 17. 공이석기 / 61
- 그림 18. 공이석기 / 61
- 그림 19. 부석 / 62
- 그림 20. 원판형 석제품 / 62
- 그림 21. 공이석기 / 63
- 그림 22. 숫돌 / 63
- 그림 23. 숫돌 / 64
- 그림 24. 토제 방추차 / 64
- 그림 25. 토제 방추차 / 64

### 사진목차

- 사진 1. A등급(1943-1번지) / 45
- 사진 2. B등급(1944-1번지) / 45
- 사진 3. C등급(2038-1번지) / 46
- 사진 4. 광지리식 토기 구연부 / 53
- 사진 5. 광지리식 토기 구연부 / 54
- 사진 6. 광지리식 토기 구연부 / 54
- 사진 7. 광지리식 토기 저부 / 55
- 사진 8. 광지리식 토기 저부 / 55
- 사진 9. 광지리식 토기 저부 / 56
- 사진 10. 광지리식 토기 저부 / 56
- 사진 11. 광지리식 토기 저부 / 57
- 사진 12. 광지리식 토기 저부 / 57
- 사진 13. 광지리식 토기 저부 / 58
- 사진 14. 광지리식 토기 저부 / 58
- 사진 15. 광지리식 토기 저부 / 59
- 사진 16. 광지리식 토기 저부 / 59
- 사진 17. 원뿔형 토기 / 60
- 사진 18. 홈돌 / 60
- 사진 19. 공이석기 / 61
- 사진 20. 공이석기 / 61
- 사진 21. 부석 / 62
- 사진 22. 원판형 석제품 / 62
- 사진 23. 공이석기 / 63
- 사진 24. 숫돌 / 63
- 사진 25. 숫돌 / 64
- 사진 26. 토제 방추차 / 64
- 사진 27. 토제 방추차 / 64

## ● 발굴조사 목차

### 도면목차

- 도면 1. 조사지역 북편 층위 / 70



도면 2.	조사지역 층위도 / 71
도면 3.	원형 석렬주거지 유구 / 73
도면 4.	원형 석렬주거지 유구 / 77
도면 5.	적석유구(폐기장) / 82
도면 6.	패총 층위도 / 89
도면 7.	부석유구(도로유구) / 99
도면 8.	적갈색토기구연부 / 125
도면 9.	적갈색토기구연부 / 125
도면 10.	적갈색토기구연부 / 125
도면 11.	적갈색토기구연부 / 125
도면 12.	적갈색토기저부 / 126
도면 13.	적갈색토기저부 / 126
도면 14.	적갈색토기저부 / 126
도면 15.	적갈색토기저부 / 126
도면 16.	적갈색토기저부 / 127
도면 17.	적갈색토기저부 / 127
도면 18.	방추차 / 127
도면 19.	방추차 / 127
도면 20.	이형토기 / 128
도면 21.	갈돌 / 128
도면 22.	적갈색토기구연부 / 128
도면 23.	적갈색토기저부 / 128
도면 24.	적갈색토기저부 / 129
도면 25.	적갈색토기저부 / 129
도면 26.	적갈색토기저부 / 129
도면 27.	적갈색토기저부 / 129
도면 28.	적갈색토기저부 / 130
도면 29.	항아리 구연부 / 130
도면 30.	방추차 / 130
도면 31.	이형토제품 / 130
도면 32.	갈돌 / 131
도면 33.	그물추 / 131
도면 34.	그물추 / 131
도면 35.	화천 / 131
도면 36.	화천 / 132
도면 37.	적갈색토기구연부 / 132
도면 38.	적갈색토기구연부 / 132
도면 39.	적갈색토기구연부 / 132
도면 40.	적갈색토기구연부 / 133
도면 41.	적갈색토기구연부 / 133
도면 42.	적갈색토기구연부 / 133
도면 43.	적갈색토기구연부 / 133
도면 44.	적갈색토기구연부 / 134
도면 45.	적갈색토기구연부 / 134
도면 46.	적갈색토기구연부 / 134
도면 47.	적갈색토기구연부 / 134
도면 48.	적갈색토기저부 / 135
도면 49.	적갈색토기저부 / 135
도면 50.	적갈색토기저부 / 135
도면 51.	적갈색토기저부 / 135

도면 52.	적갈색토기저부 / 136
도면 53.	적갈색토기저부 / 136
도면 54.	적갈색토기저부 / 136
도면 55.	적갈색토기저부 / 136
도면 56.	적갈색토기저부 / 137
도면 57.	회색도기 완 / 137
도면 58.	회색도기구연부 / 137
도면 59.	회색도기구연부 / 137
도면 60.	회색도기저부 / 138
도면 61.	회색도기저부 / 138
도면 62.	회색도기동체부 / 138
도면 63.	회색도기 완 / 138
도면 64.	회색도기동체부 / 139
도면 65.	회색도기저부 / 139
도면 66.	회색도기저부 / 139
도면 67.	회색도기저부 / 139
도면 68.	철제도자 / 140
도면 69.	철제편 / 140
도면 70.	철부 / 140
도면 71.	갈돌 / 140
도면 72.	갈돌 / 141
도면 73.	갈돌 / 141
도면 74.	흙돌 / 141
도면 75.	적갈색토기 / 142
도면 76.	적갈색토기 / 142
도면 77.	적갈색토기 / 142
도면 78.	적갈색토기 / 142
도면 79.	적갈색토기 / 143
도면 80.	적갈색토기 / 143
도면 81.	적갈색토기 / 143
도면 82.	적갈색토기 / 143
도면 83.	적갈색토기 / 144
도면 84.	적갈색토기 / 144
도면 85.	적갈색토기 / 144
도면 86.	적갈색토기 / 144
도면 87.	적갈색토기 / 145
도면 88.	적갈색토기 / 145
도면 89.	적갈색토기 / 145
도면 90.	적갈색토기 / 145
도면 91.	적갈색토기 / 146
도면 92.	적갈색토기 / 146
도면 93.	적갈색토기 / 146
도면 94.	적갈색토기 / 146
도면 95.	적갈색토기 / 147
도면 96.	적갈색토기 / 147
도면 97.	적갈색토기 / 147
도면 98.	적갈색토기 / 147
도면 99.	적갈색토기저부 / 148
도면 100.	적갈색토기저부 / 148
도면 101.	회색도기구연부 / 148



도면 102.	회색도기저부 / 148
도면 103.	토기뚜껑 / 149
도면 104.	손잡이토기 / 149
도면 105.	손잡이토기 / 149
도면 106.	이형토기 / 150
도면 107.	도자기저부 / 150
도면 108.	도자기저부 / 150
도면 109.	흙돌 / 150
도면 110.	이형석기 / 151
도면 111.	갈돌 / 151
도면 112.	갈돌 / 151
도면 113.	갈돌 / 151
도면 114.	철도자편 / 151
도면 115.	청동발 / 152
도면 116.	청동발 / 152
도면 117.	점토대토기구연부 / 152
도면 118.	파수부토기구연부 / 152
도면 119.	적갈색토기구연부 / 153
도면 120.	적갈색토기구연부 / 153
도면 121.	적갈색토기저부 / 153
도면 122.	숯 / 153
도면 123.	적갈색토기저부 / 154
도면 124.	적갈색토기저부 / 154
도면 125.	갈돌 / 154
도면 126.	갈돌 / 154
도면 127.	갈돌 / 155
도면 128.	적갈색토기저부 / 155
도면 129.	유구석구 / 155

## 사진목차

사진 1.	조사지역 전경 / 101
사진 2.	조사지역 근경 / 101
사진 3.	개토제 / 102
사진 4.	피트발굴 전경 / 102
사진 5.	피트제거 후 전경 / 103
사진 6.	발굴완료 후 전경(북쪽) / 103
사진 7.	발굴완료 후 전경(남쪽) / 104
사진 8.	조사지역 현장설명회 / 104
사진 9.	조사지역 복개 작업 모습 / 105
사진 10.	층위 상태(남쪽) / 105
사진 11.	층위 상태(서쪽) / 106
사진 12.	층위 상태(서쪽 서벽) / 106
사진 13.	층위 상태(북쪽) / 107
사진 14.	원형석렬주거지 노출 전 상태(북쪽) / 107
사진 15.	원형석렬주거지와 야외노지(동쪽) / 108
사진 16.	원형석렬주거지 노출 후 전경 / 108
사진 17.	야외노지 / 109
사진 18.	주거지 내 유물출토 상태(근경) / 109
사진 19.	석축유구 조사 전경 / 110
사진 20.	석축유구 · 적석유구 / 110
사진 21.	석축유구 · 패총 / 111
사진 22.	석축유구 노출 상태 / 111
사진 23.	석축유구 북쪽(근경) / 112
사진 24.	석축유구 북쪽 계단시설 / 112
사진 25.	석축유구 · 도로유구 / 113
사진 26.	석축유구 조사완료 후 상태(근경) / 113
사진 27.	석축유구 내 화전 출토 상태(세부, 북쪽) / 114
사진 28.	석축유구 내 화전 출토 상태(세부, 남쪽) / 114
사진 29.	적석유구 / 115
사진 30.	적석유구 내 유물 출토 상태(세부) / 115
사진 31.	적석유구 내 유물 출토 상태(세부) / 116
사진 32.	적석유구 내 유물 출토 상태(세부) / 116
사진 33.	적석유구 · 석축유구(하부) / 117
사진 34.	패총 상부 전경 / 117
사진 35.	패총 전경 / 118
사진 36.	패총 북편 피트 전경 / 118
사진 37.	패총 · 석축유구(전면) / 119
사진 38.	패총 단면 층위 상태 / 119
사진 39.	패총 하부 청동유물 출토 상태(세부, 남쪽벽) / 120
사진 40.	패총 하부 적갈색토기 출토 상태(북쪽벽) / 120
사진 41.	패총 하부 적갈색토기 출토 상태(세부, 북쪽벽) / 121
사진 42.	도로유구 / 121
사진 43.	도로유구(상부) · 석축유구(하부) / 122
사진 44.	도로유구 전경(동쪽) / 122
사진 45.	도로유구(상부) · 원형석렬주거지(하부) / 123
사진 46.	유구 내부 피트조사 / 123
사진 47.	유구 내부 피트조사 / 124
사진 48.	「자」피트 근경 / 124
사진 49.	적갈색토기구연부 / 125
사진 50.	적갈색토기구연부 / 125
사진 51.	적갈색토기구연부 / 125
사진 52.	적갈색토기구연부 / 125
사진 53.	적갈색토기저부 / 126
사진 54.	적갈색토기저부 / 126
사진 55.	적갈색토기저부 / 126
사진 56.	적갈색토기저부 / 126
사진 57.	적갈색토기저부 / 127
사진 58.	적갈색토기저부 / 127
사진 59.	방추차 / 127
사진 60.	방추차 / 127
사진 61.	이형토기 / 128
사진 62.	갈돌 / 128
사진 63.	적갈색토기구연부 / 128
사진 64.	적갈색토기저부 / 128
사진 65.	적갈색토기저부 / 129
사진 66.	적갈색토기저부 / 129
사진 67.	적갈색토기저부 / 129
사진 68.	적갈색토기저부 / 129



사진 69. 적갈색토기저부 / 130  
 사진 70. 항아리 구연부 / 130  
 사진 71. 방추차 / 130  
 사진 72. 이형토제품 / 130  
 사진 73. 갈돌 / 131  
 사진 74. 그물추 / 131  
 사진 75. 그물추 / 131  
 사진 76. 화천 / 131  
 사진 77. 화천 / 132  
 사진 78. 적갈색토기구연부 / 132  
 사진 79. 적갈색토기구연부 / 132  
 사진 80. 적갈색토기구연부 / 132  
 사진 81. 적갈색토기구연부 / 133  
 사진 82. 적갈색토기구연부 / 133  
 사진 83. 적갈색토기구연부 / 133  
 사진 84. 적갈색토기구연부 / 133  
 사진 85. 적갈색토기구연부 / 134  
 사진 86. 적갈색토기구연부 / 134  
 사진 87. 적갈색토기구연부 / 134  
 사진 88. 적갈색토기구연부 / 134  
 사진 89. 적갈색토기저부 / 135  
 사진 90. 적갈색토기저부 / 135  
 사진 91. 적갈색토기저부 / 135  
 사진 92. 적갈색토기저부 / 135  
 사진 93. 적갈색토기저부 / 136  
 사진 94. 적갈색토기저부 / 136  
 사진 95. 적갈색토기저부 / 136  
 사진 96. 적갈색토기저부 / 136  
 사진 97. 적갈색토기저부 / 137  
 사진 98. 회색도기 완 / 137  
 사진 99. 회색도기구연부 / 137  
 사진 100. 회색도기구연부 / 137  
 사진 101. 회색도기저부 / 138  
 사진 102. 회색도기저부 / 138  
 사진 103. 회색도기동체부 / 138  
 사진 104. 회색도기 완 / 138  
 사진 105. 회색도기동체부 / 139  
 사진 106. 회색도기저부 / 139  
 사진 107. 회색도기저부 / 139  
 사진 108. 회색도기저부 / 139  
 사진 109. 철제도자 / 140  
 사진 110. 철제편 / 140  
 사진 111. 철부 / 140  
 사진 112. 갈돌 / 140  
 사진 113. 갈돌 / 141  
 사진 114. 갈돌 / 141  
 사진 115. 흙돌 / 141  
 사진 116. 적갈색토기 / 142  
 사진 117. 적갈색토기 / 142  
 사진 118. 적갈색토기 / 142

사진 119. 적갈색토기 / 142  
 사진 120. 적갈색토기 / 143  
 사진 121. 적갈색토기 / 143  
 사진 122. 적갈색토기 / 143  
 사진 123. 적갈색토기 / 143  
 사진 124. 적갈색토기 / 144  
 사진 125. 적갈색토기 / 144  
 사진 126. 적갈색토기 / 144  
 사진 127. 적갈색토기 / 144  
 사진 128. 적갈색토기 / 145  
 사진 129. 적갈색토기 / 145  
 사진 130. 적갈색토기 / 145  
 사진 131. 적갈색토기 / 145  
 사진 132. 적갈색토기 / 146  
 사진 133. 적갈색토기 / 146  
 사진 134. 적갈색토기 / 146  
 사진 135. 적갈색토기 / 146  
 사진 136. 적갈색토기 / 147  
 사진 137. 적갈색토기 / 147  
 사진 138. 적갈색토기 / 147  
 사진 139. 적갈색토기 / 147  
 사진 140. 적갈색토기저부 / 148  
 사진 141. 적갈색토기저부 / 148  
 사진 142. 회색도기구연부 / 148  
 사진 143. 회색도기저부 / 148  
 사진 144. 토기뚜껑 / 149  
 사진 145. 손잡이토기 / 149  
 사진 146. 손잡이토기 / 149  
 사진 147. 이형토기 / 150  
 사진 148. 도자기저부 / 150  
 사진 149. 도자기저부 / 150  
 사진 150. 흙돌 / 150  
 사진 151. 이형석기 / 151  
 사진 152. 갈돌 / 151  
 사진 153. 갈돌 / 151  
 사진 154. 철도자편 / 151  
 사진 155. 청동발 / 152  
 사진 156. 점토대토기구연부 / 152  
 사진 157. 파수부토기구연부 / 152  
 사진 158. 적갈색토기구연부 / 153  
 사진 159. 적갈색토기구연부 / 153  
 사진 160. 적갈색토기저부 / 153  
 사진 161. 솥돌 / 153  
 사진 162. 적갈색토기저부 / 154  
 사진 163. 적갈색토기저부 / 154  
 사진 164. 갈돌 / 154  
 사진 165. 갈돌 / 154  
 사진 166. 갈돌 / 155  
 사진 167. 갈돌 / 155  
 사진 168. 유구석부 / 155



## 일 러 두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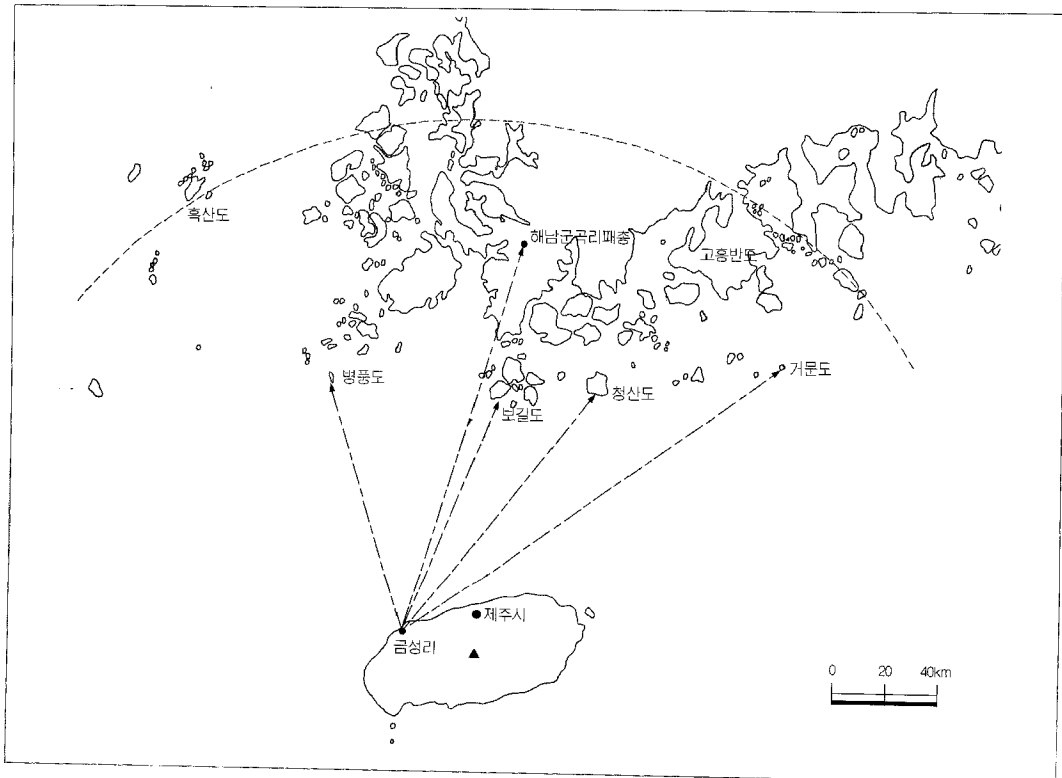
1. 본 보고서는 관련유적, 지표조사, 발굴조사를 나누어 정리하였다.
2. 지표조사는 제주대학박물관과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서 조사한 내용이고 발굴조사는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와 제주도민속자연사 박물관에서 조사한 것이다.
3. 유구 설명중 원형석렬주거지는 원형돌담집자리이며, 석축유구는 1996년 조사된 금성리 석축유구와는 다른 유구이다.
4. 「적갈색항아리형토기」용어는 짙은 적갈색토기 또는 짙은 적갈색토기로 알려진 적갈색토기로 탐라시대전기(A.D 0~500)의 표식적인 유물로 알려져 있다. 「적갈색심발형토기」용어는 짙은 적갈색토기 또는 짙은 적갈색토기로 알려진 적갈색토기로 탐라시대후기(A.D 500~900)의 표식적인 유물로 알려져 있다.

## 머 리 말

조사지역은 제주도내 최대 패총유적인 광지패총과 근접하여 자리잡고 있다. 광지패총은 탐라시대 전기간에 걸쳐 형성된 곳이며, 조사지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996년 애월~신창간 국도 확장공사 구간내 지표조사에서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어 제주대학교박물관을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지역 중 북제주군 애월읍 금성리 금성주유소 앞(일주도로 북편)에서 폭 4.5m, 높이 2.1m, 길이 60m 가량 되는 석축유구가 조사되었는데, 당시 도로공사구간내에 대한 한정된 발굴조사로 석축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다만 축조시기와 그 성격을 일부 파악했을 뿐이었다.

이번 발굴조사는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에서 동 유적을 탐라시대유적으로 기존 발굴조사된 곳(일주도로 매립)과 연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축유적의 범위와 그 성격을 규명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삽도 1. 금성리 유적과 한반도 남해안과의 시인거리와 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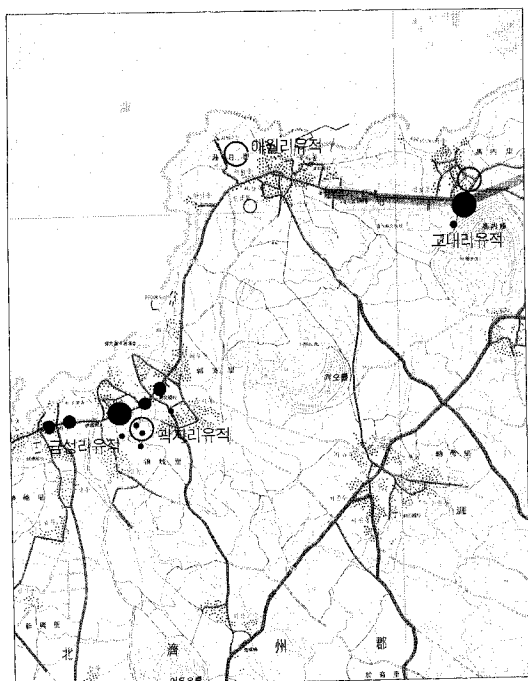


발굴조사는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 조사한 석축유구의 연장선을 일단 확인하고자 작업 일수를 적게 잡고 시작하였는데, 막상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유구가 중복되어 확인되고, 아울러 기상악화로 인해 작업일수가 부족하여 2차에 걸쳐 연장 발굴조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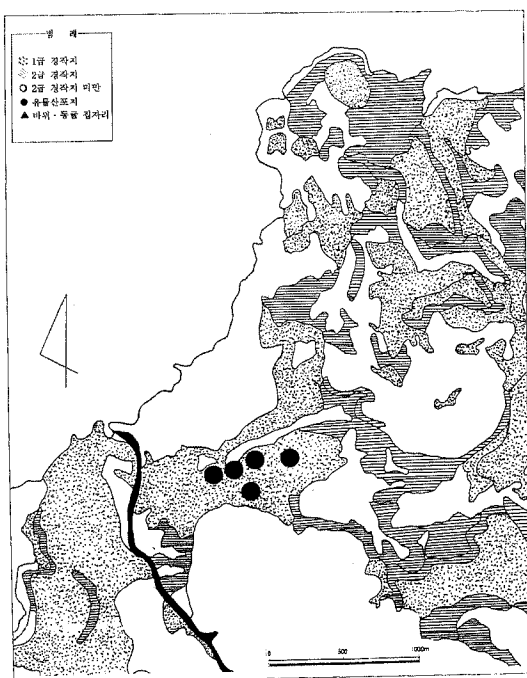
조사지역내에서는 시기를 달리하는 원형의 석렬주거지, 석축유구, 적석시설물, 패총, 도로시설물 등이 중복되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탐라시대의 표식적인 유물인 적갈색토기, 회색토기, 화폐, 철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들 유구와 출토유물들은 지난 1996년 조사된 석축유구와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973년 이후로 광지리와 금성리 유물산포지와 패총은 전국에서 알려진 유적이었으며 1996년에 조사된 원삼국시대 석축이 과연 耽羅國의 石築 城跡이었는데 焦點이 모아졌고 이러한 이유로 금성리 유적은 보완조사가 요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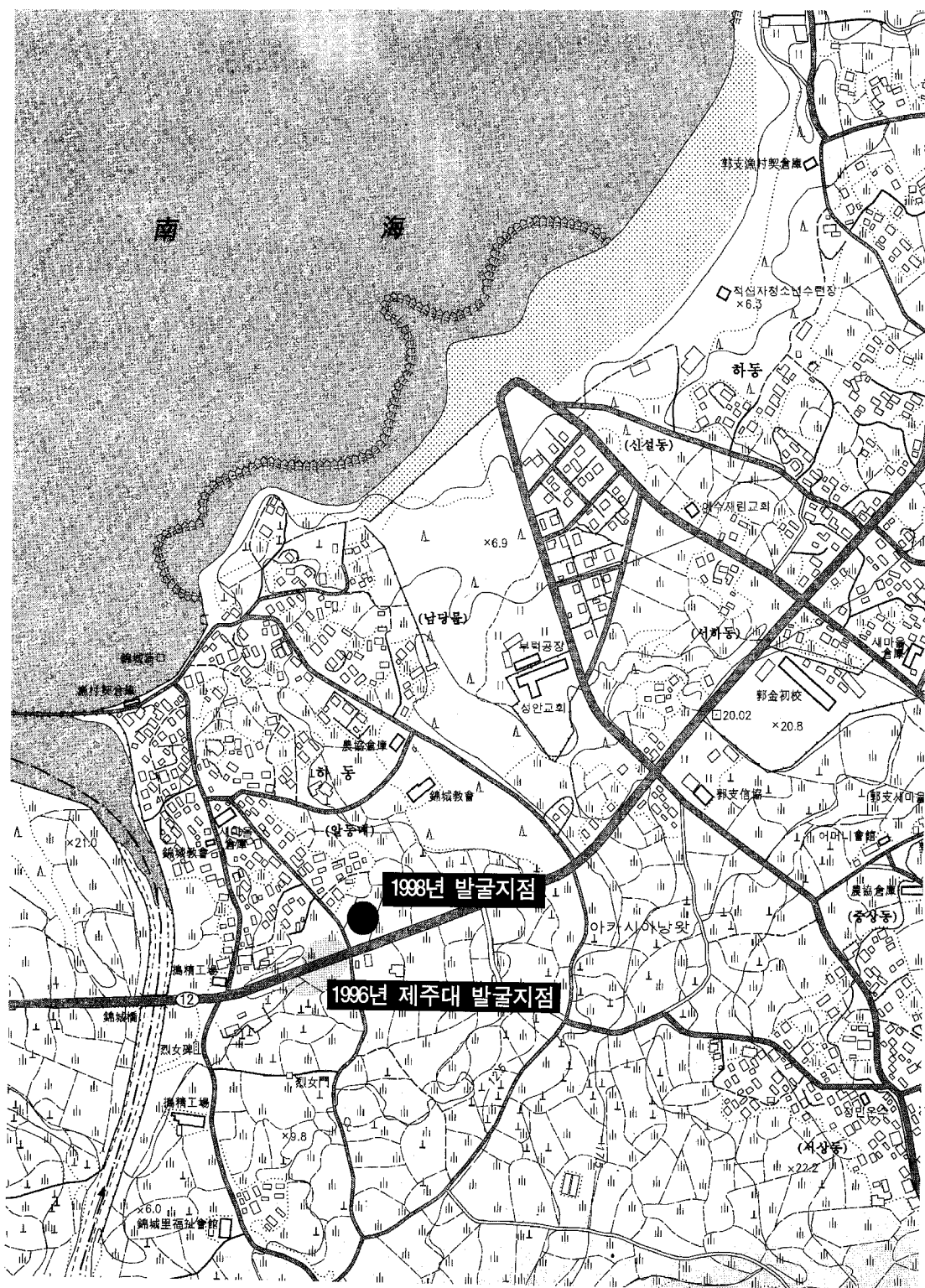
이 조사는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濟州史定立事業推進協議會)의 지원금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기간 동안 수차례 현장을 찾아 격려와 자문을 해주신 홍순만(제주도문화재위원), 고창석(제주대학교수, 협의회운영위원장), 유철인(제주대박물관장, 협의회부위원장), 강만생(한라일보 편집국장), 김동전(제주대학교수) 등을 포함한 협의회 회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제주도청 문화예술과의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린다.



삽도 2. 금성리 주변 유적 분포도



삽도 3. 금성리 유적 주변의 토양과 하천



삽도 4. 금성리유적 발굴지점 위치도



## I. 調查地域 環境과 關聯遺蹟

### 1. 調查地域 位置 와 環境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북제주군 애월읍 금성리 446-1번지에 해당된다. 이 지역은 제주도 북서편에 위치하며, 대략 북위 33° 27', 동경126° 18' 이다. 조사지역은 제주시에서 일주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약 18Km 떨어져 있다. 현재 금성리 마을은 기존의 일주도로를 경계로 남쪽은 상동, 북쪽은 하동으로 나뉘는데, 조사지역은 하동에 해당된다. 일주도로 북편에 하동쪽으로 만들어진 마을(알동네) 도로가 있는데, 일주도로와 이 도로가 만나는 동편 경작지가 발굴조사 지역에 해당된다. 해안과는 300m가량 떨어져 있으며, 해안은 금성천(錦城川) 하류를 중심으로 완만한 만을 이루고 있다. 조사지역 동편에 위치한 괄지패총과는 500m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조사지역의 해발고도는 7~10m의 평탄면을 이루고 있는 지형이며, 동쪽인 괄지리 쪽으로 갈수록 경사면을 이루며 올라가 있다. 조사지 서편으로 약 150m 떨어진 곳에 제주도 중산간 지대에서 발원한 건천인 금성천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해안에는 용천수가 흘러 나오는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sup>1)</sup>, 이는 과거에도 이 지역이 물의 공급은 충분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마을은 해안과 하천 하류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동북편으로는 과오름(臥牛峰, 해발155m)이라는 기생화산이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지질은 제주도가 화산섬이므로 현무암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토양은 화산회토이다. 토양은 배수가 양호한 사양질 및 미사식 양질토로 토양수분 및 양분을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은 적성등급 밭1급지에 해당된다<sup>2)</sup>. 토양은 150cm내외로 깊은 편이다. 현재 조사지역은 마늘, 양파 등 밭농사를 중심으로 한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 일대는 마을과 경작지로 인해 자연식생은 파괴되어 있으나, 주변 오름 혹은 평지의 식생을 보면 소나무를 중심으로 한 기타 관목림이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의 동물상은 과거 괄지패총 발굴조사에 의한 동물뼈를 분석한 예가 있는데 멧돼지, 사슴, 소, 말, 개 등이 알려져 있다.<sup>3)</sup>

이 지역은 과거 제주 14縣村(『耽羅誌』 1300年) 중 괄지현이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대규모 촌락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성리 마을은 원래 괄지리에 포함되어 있

1) 고광민, 1997, 「郭支貝塚 주변의 바다발 사정」, 『濟州郭支貝塚』, 제주대학교박물관

2) 農村振興廳農業技術研究所, 1976, 『土壤精密圖-濟州道』

3) 신태균 외, 1992, 「제주 괄지패총에서 출토된 동물뼈의 해부학적 연구」, 『고문화』40·41.

다가 1894년에 훈장 左時祐에 의해 분리되었다.

## 2. 關聯 遺蹟

### 1) 郭支貝塚<sup>4)</sup>

그간 광지패총에서 출토된 고고학적 자료는 제주도 상고 문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여 주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발굴조사된 각 패총의 층위적 서열과 더불어 여러 시기에 걸친 층위별 유물 조합상은 지금까지 제주도 고고학의 상대 편년 연구와 문화상을 읽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여기서는 앞서 다룬 각 지구별 발굴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각 지구별 패총의 성격과 흐름을 요약하고자 한다.

#### (1) 광지패총 4지구

이곳에서는 수입된 灰色陶器(統一新羅土器)와 濟州産 赤褐色深鉢形土器(高內里式土器)가 공반 출토된다. 제주도는 1,000℃ 이상의 온도에서는 그릇을 성형할 수 없는 토양, 즉 화산회토가 대부분을 차지함으로 인해 陶器의 자체 생산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삼국 시대 이후, 제주도에에서 발견되는 회색도기는 대부분 제주 밖에서 유입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5)</sup> 이곳 뿐만아니라 제주도에에서 출토되는 회색도기는 지리적으로는 백제와의 연관성이 깊으나, 반드시 백제의 유물만이 출토되는 것이 아니다. 경주중심의 토기의 유입도 간헐적으로 확인된다.<sup>6)</sup> 광지패총 4지구는 대략 4개의 층위에서 패각층과 적석층으로 이루어진 3개의 문화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1문화층에서는 長頸壺가 대표되며 그 윗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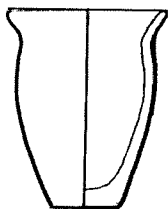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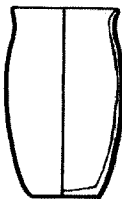


기종	광지1a식	광지1b식	광지1c식	광지2식(고내리식토기)
형태				

표1. 광지7지구 광지리식 토기에서 고내리식 토기로의 변화

4) 濟州大學校博物館, 1986, 『郭支貝塚』

濟州大學校博物館, 1997, 『濟州郭支貝塚』

5) 이청규, 1995, 『濟州島考古學研究』, 학연문화사.



제2문화층에서는 세경화된 반구병과 문양이 복잡해지는 도기류가 나타난다.<sup>7)</sup> 또한 맨 상층인 제3문화층에서는 대형항아리와 더욱 세경화되는 병류, 문양이 소멸하는 단계의 회색도기류가 중심이 된다.<sup>8)</sup> 이 유물군의 대체적인 시기는 대부분 8세기 중반 이후 영산강유역에서 유입된 회색도기군으로 파악되며, 일부 주름무늬 소형병에서 확인되는 국화문이 찍힌 인화문토기는 경주중심에서 유행하는 이시기의 토기군으로, 제2문화층 시기에서 확인된다. 결국 광지패총 4지구의 제4층(제1문화층)시기는 한반도의 토기군 중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유입된 古來의 백제도기가 유입되었고, 제3층(제2문화층)시기는 경주의 말기 인화문토기의 간헐적 유입과 낙동강유역의 파상문 위주의 회색도기가 수입되어 문양이 복잡해지고 기종도 다양하게 사용되는 패총의 중심시기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2층(제3문화층)시기에는 영산강유역의 구림리요지에서 등장하는 병류(주름무늬병, 각병, 일면편병 등)와 돌대문대호 등이 다량으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sup>9)</sup>

## (2) 광지패총 5지구

확장발굴을 하지않은 현 단계에서 단언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패각층 아래 형성된 土器閉場遺構로 여겨진다. 이 유구에서는 전형적인 탐라전기의 赤褐色壺型土器(郭支1式土器), 다량의 생활유물, 장신구 등이 공반 출토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단 어떤 일정한 한 시기에 특정 목적에 의해 형성된 閉場遺構로 판단되는 경우, 분명 이 유구에서 출토된 100여점 이상의 유물은 한시기 주민의 생활용기·도구의 세트라고 말할 수 있다. 이

6) 金元龍의 통일신라토기 전기양식과 후기양식의 구분은 경주중심의 인화문토기 초기양식과 영산강유역의 제3단계 토기양식에 대한 구분으로 이해되며, 崔秉鉉의 통일양식토기군은 경주와 낙동강 하류에 국한된 구분으로 한반도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경주중심의 초기 인화문토기는 영산강유역의 제1단계토기와 그 기종 및 제작기법을 달리하는, 즉 고신라전통토기의 발전 맥락과 고래의 백제전통토기의 발전 맥락으로 해석되며, 양자간의 토기유형은 그 축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결국, 통일신라양식토기는 한반도내에 지역구분없이 동일한 유형의 기종과 문양을 사용하는 토기가 분포되어 있을 경우 주어지는 용어인 바, 한정된 구역(경주, 낙동강유역)에서 사용된 토기를 지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석된다. 8세기중반 이후의 제3단계 토기기종 중 대표적인 기종은 瓶類(四角扁瓶, 一面扁瓶, 주름무늬병, 돌대무늬병)와 大壺類(沈線文突帶紋大壺)로 파악되며, 특히 병류는 외부적인 제작요소에서 채용된 것임은 이미 알려져 있으며, 통일신라적 요소로의 전환은 아마도 영산강유역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기종의 유행은 장거리 운반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며, 대호류의 유행은 병류의 유행과 축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두 기종은 제3단계와 제4단계(9세기중반)에 한반도 전역의 유행과 축을 같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진정한 통일토기권 문화가 형성된 시점은 삼국의 통일과 축을 같이하는 것이 아니라 8세기 중반 이후로 판단된다.(강창화, 1995, 『統一新羅土器의 變遷에 對한 研究』, 영남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취구논문)

7) 이 부분은 본 보고서의 <도면14>, <도면15>에서 제시한 광지4지구 층위별 유물 분류표 참조.

8) 이와 비슷한 단계의 제주도 유적으로는 제주시 용담동 제사유적이 있다. 호류로서 단경호, 광경호, 직구호, 대호가 출토되며 병류로서 장경병, 단경병, 소형병, 사각편병이 출토된다. 대웅과 8세기대의 중국 월주요産 중국도자기도 소수 확인되었다.(이청규·강창화, 1993, 『제주시용담동유적』, 제주대학교박물관 조사보고11집)

9) 강창화, 1995, <註6>의 같은책.

유구의 中心年代는 A.D. 2세기 중반경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군곡리패총에서 출토되는 경질찰문토기 등이 출토하는 층위와의 交叉年代를 통해 파악된다.<sup>10)</sup>

### (3) 광지패총 6지구

소규모 테스트피트를 넣어 층위양상을 추적한 바에 의하면 이곳의 패총층위는 크게 2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그 중 제2층(黑褐色混土貝殼層)에서는 혼토파각층 내의 같은 레벨에서 다량의 사슴, 멧돼지, 소, 식육목 동물뼈와 함께 완형의 赤褐色深鉢形土器(郭支2式土器), 盤口瓶, 骨角器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자료는 당시 광지주민들이 동물의 사냥과 도살, 폐기 등을 행했던 일종의 생계경제양식을 연구하는데 있어 좋은 자료로 여겨진다. 그 시기는 광지패총 4지구 제2문화층과 맞물리는 시기로 여겨진다.

### (4) 광지패총 7지구

이 지구는 탐라시대 전·후기 문화의 변천상을 층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단면층위가 확인된 유적이다. 남쪽층위에서의 적석포함층을 경계로 상층에서는 赤褐色深鉢型土器(高內里式土器)만이 다량 출토되며, 북쪽토층의 흑색재층 상면에 형성된 2·3층은 남쪽토층의 적석석렬층 밑으로 연결되고 있다. 반면 북쪽토층의 재층아래층은 남쪽토층의 6층 아래층으로 서로의 층위가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토층양상은 결국 재층아래층→재층과 적석층 사이→적석층윗층이라는 3기의 문화층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sup>11)</sup> 이 층에 포함된 중요유물을 분석해 보면 흑색재층(Ⅶ층)에서 출토하고 광지1a식과 공반하는 격자문대호편은 5~6세기경의 백제지역 고분에서 흔히 출토하는 것이다.<sup>12)</sup> 또한 적석층 상면(Ⅲ층)에서 출토하는 靑銅鉢은 민간이 사용하다 버린예로, 경주 안압지(A.D. 676년 이후 창건)유적이 있다.<sup>13)</sup> 이 곳의 층위에서 관찰되는 광지1a,b,c 토기의 단계적인 변화는 층위상에서 그 선후관계를 엿볼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구연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먼저 구연의 점진적인 직립구연화 현상을 볼 수가 있다. 토기용량의 소형·균일화에 따른 저경이 넓어지는 현상이 보이고, 특히 중간층(Ⅳ층)에서 출토된 완형토기 바닥의 경우는 저부를 따로 만들어 접합한 흔적이 뚜렷하다.

북쪽층의 경우 적갈색심발형토기(광지2식토기)문화가 유입되면서 기존의 적갈색호형토기(郭支里式土器)문화가 소멸·폐쇄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남쪽층의 경우 赤褐色深鉢型土器(高內里式土器)문화가 郭支1式土器문화의 소멸과 함께 유입·발전 단계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졌다고 여겨진다. 期層別 所屬年代는 광지1a식 토기가 출토되는 第1期層에서 회청색 경질의 격자문과 승석문이 타날된 대호편이 공반출토되어 그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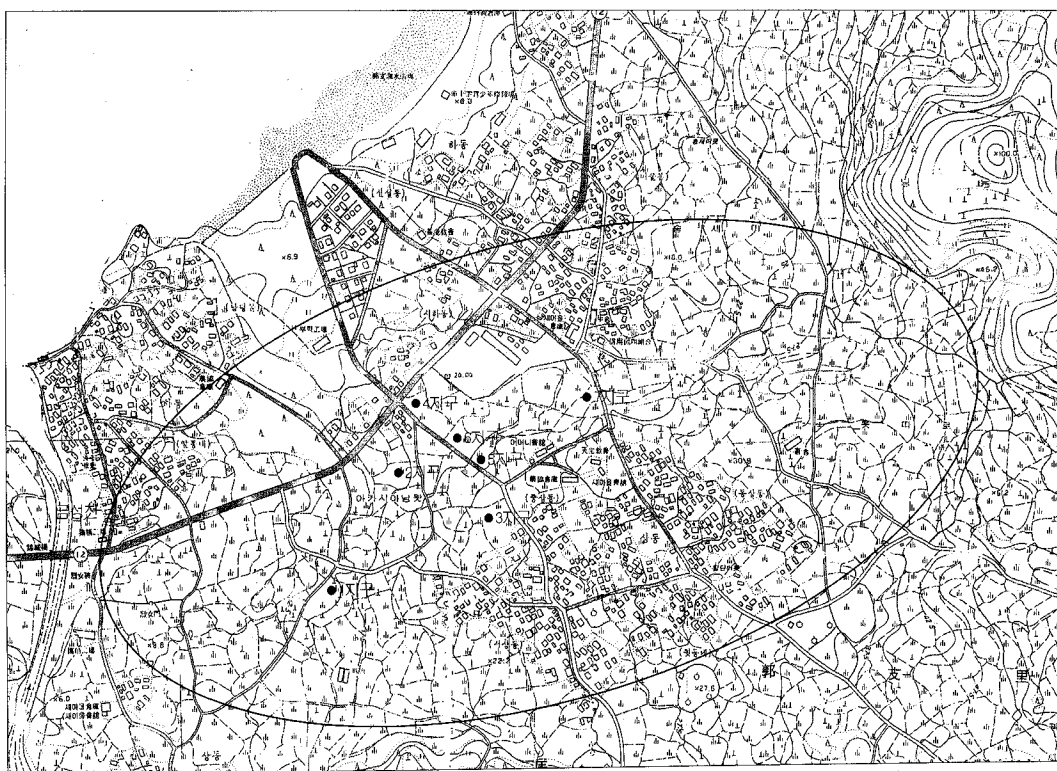
10) 최성락, 1987, 『해남 군곡리패총 I』, 목포대학교박물관.

11) 이 부분은 제주대 박물관, 1997, 『제주광지패총』 보고서의 <도면165>에서 제시한 광지7지구 전체단면 접합층위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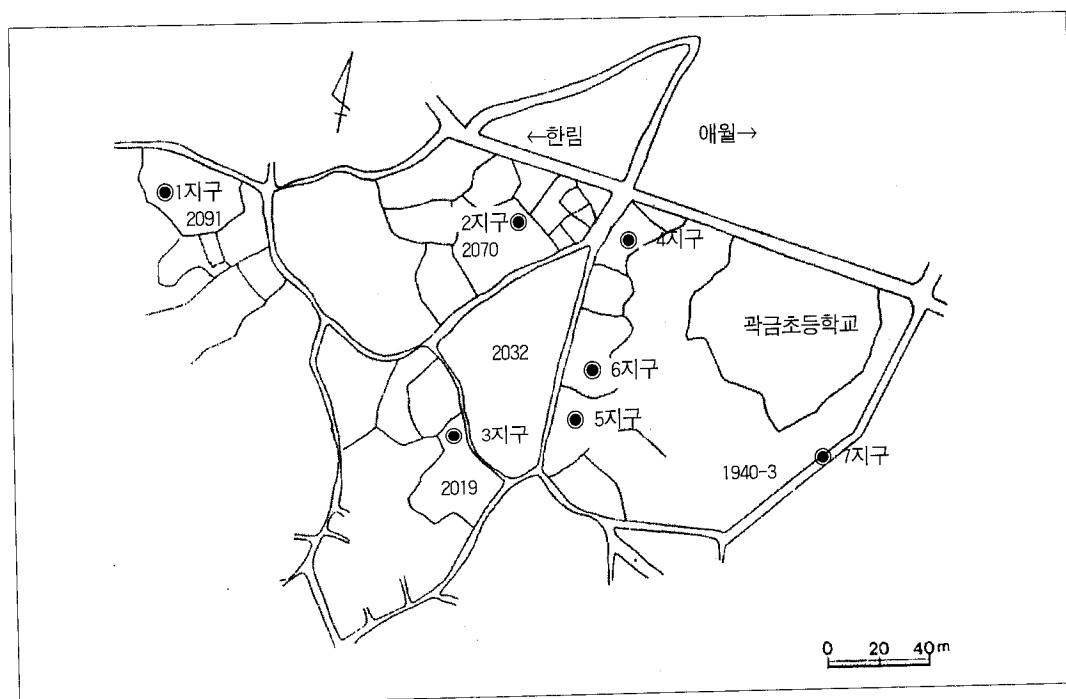
12) 안승주, 1992, <백제토기의 발달과 특징>, 『백제의 조각과 미술』, 공주대학교박물관.

13) 文化財研究所, 1987, 『雁鴨池』上·下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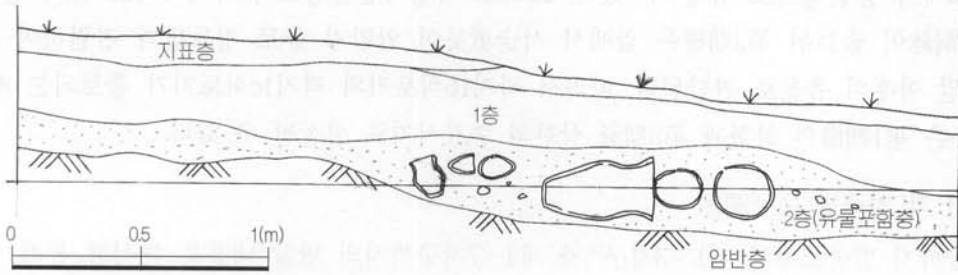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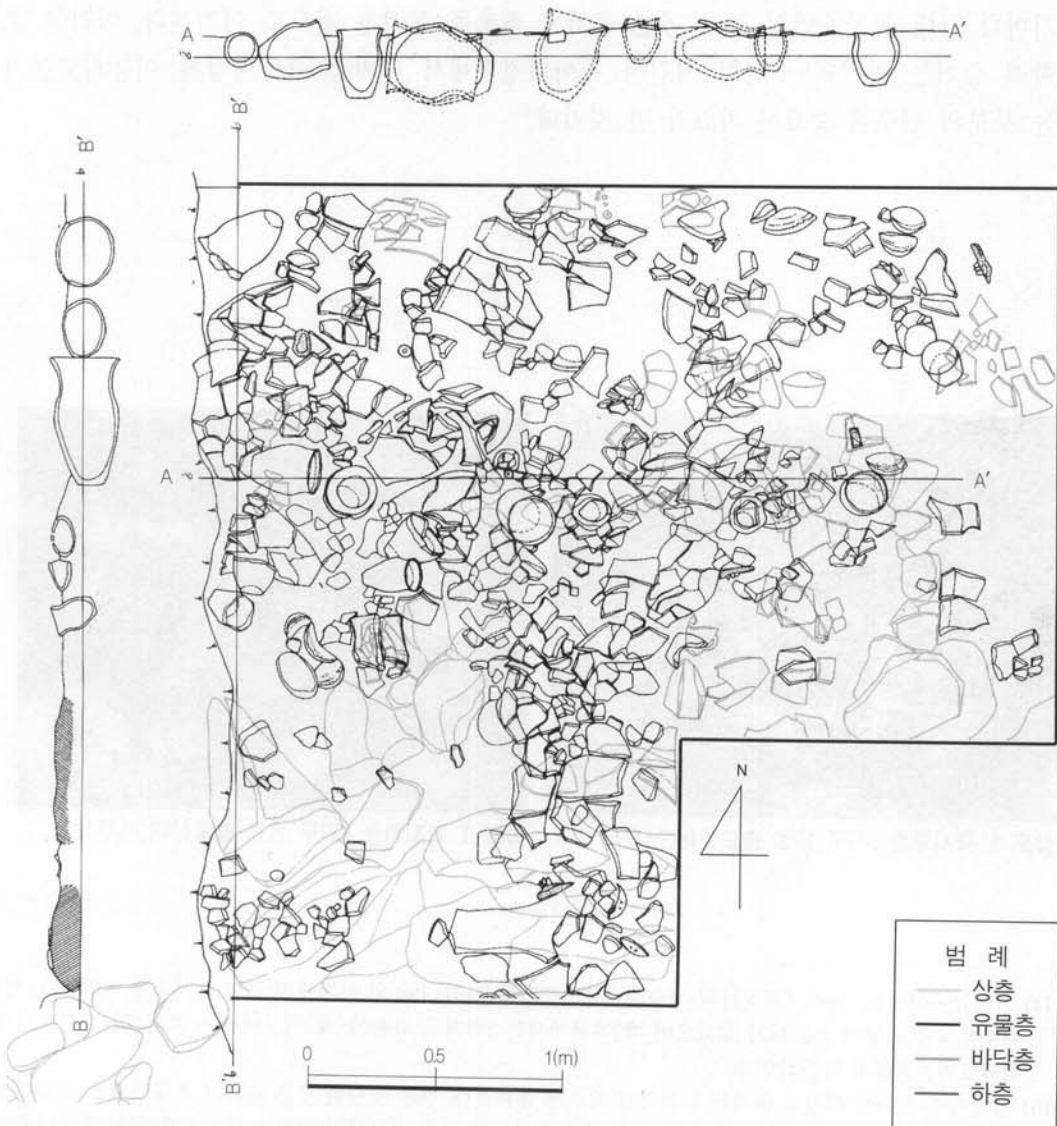
삽도 5. 광지리 유적 지형과 유물산포지의 범위(○ : 유물산포지 ● : 발굴지점)



삽도 6. 광지리 유적 발굴지점 위치도



삽도 7. 5지구 층위 단면도



삽도8. 5지구 유물층 실측도



한을 5세기 중반경으로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적갈색심발형토기(곽지 2식토기)와 공반하며 靑銅鉢이 출토된 第3期層은 앞에서 서술했듯이 안압지 출토 청동발과 관련하여 대략 7세기말 이후의 유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곽지1b식토기와 곽지1c식토기가 출토되는 제2기 문화층은 第1期層의 하한과 第3期層 상한의 중간시기로 설정될 수 있다.

#### (5) 각 지구별 序列關係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제1~3지구<sup>14)</sup>와 제4~7지구까지의 발굴 내용을 분석해 볼때, 다음의 表와 같이 요약된다.

결국 이곳 제주 곽지리 패총은 어떤 한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각 시기마다 당대 곽지주민의 삶의 공간 근처에 패총을 형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는 한지역 주민의 시간적 추이과정속에서 주거장소를 어떻게 이동하였는가 하는 부분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sup>15)</sup>



삽도 9. 곽지패총 5지구 유물 출토상태(전체)



삽도10. 곽지패총 5지구 유물 출토상태(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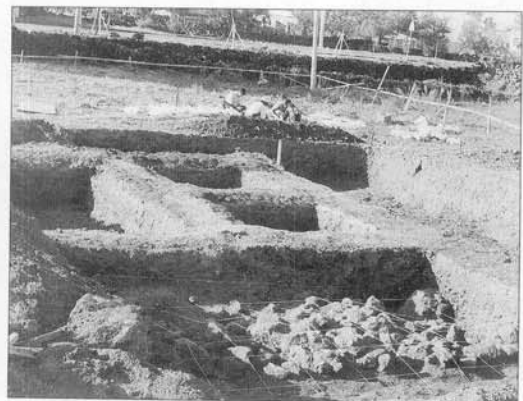
14) 이백규·이청규, 1985, 『郭支貝塚』제주대박물관조사보고1집, 1985년 이전에 발굴한 곽지패총 구역이다. 제1지구에서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으며 제2지구에서는 2개의 문화층이, 제3지구에서는 적갈색심발형토기와 회색도기문화층이 확인되었다.

15) 현재까지 조사한 곽지리 유적은 단편적인 자료에 불과하다. 발굴 조사한 모든 地區가 긴급조사로 이루어져 적은 예산과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 들이다. 따라서 앞으로 나올 고고학적 자료가 모아질때마다 연구 내용은 더욱 수정·보완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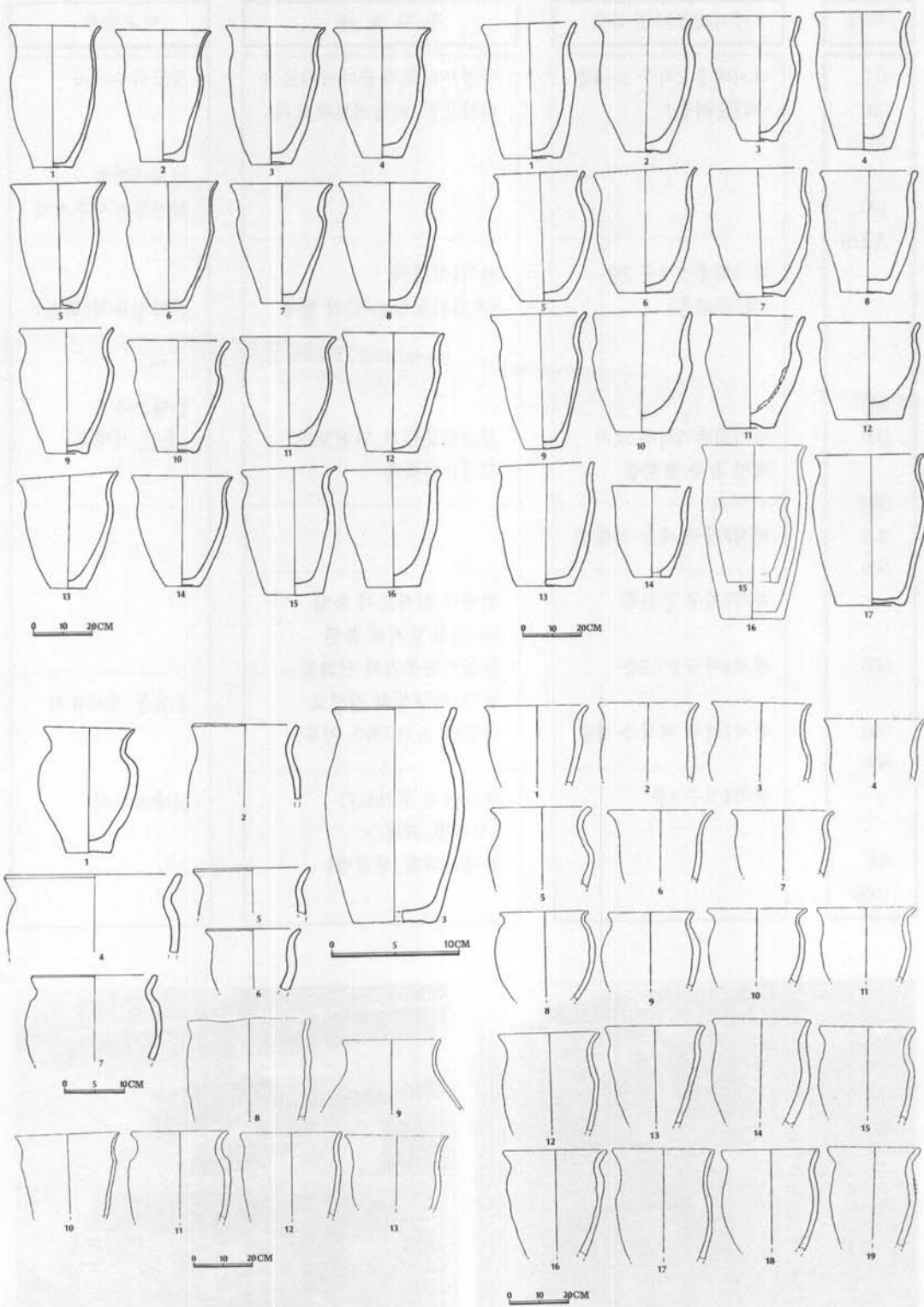
시기	곽지패총의 문화층	출 토 유 물	비교유적
B.C. 300 200	곽지패총 2지구 3~4층 (제1문화층)	구멍무늬토기, 골아가리토기 마연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상모리주거지
100 A.D.0			상모리패총 삼양동선사주거지
	곽지패총 2지구 2층 (제2문화층)	곽지1식토기 (적갈색호형토기)의 발생	산지항유적(화천)
100 200	곽지패총 5지구 토기 폐장 유구 포함층	경질찰문토기, 와질토기 고식유리곡옥	용담동유적 (옹관, 석곽묘)
300 400 500	곽지7지구 재층 아래층		
	곽지7지구 중간층	백제계 회색도기 유입 곽지2식 토기의 출현	
600	곽지4지구 2~3층	통일신라초기의 인화문 토기, 반구상의 장경호 청동발(A.D.676年 이후)	용담동 제사유적
700 800	곽지7지구 적석층 상층		
	곽지4지구 1층	통일신라 후기토기 (사각병, 각병, 돌대문대호, 광견병)	고내리유적
900 1000			



삽도 11. 곽지패총 7지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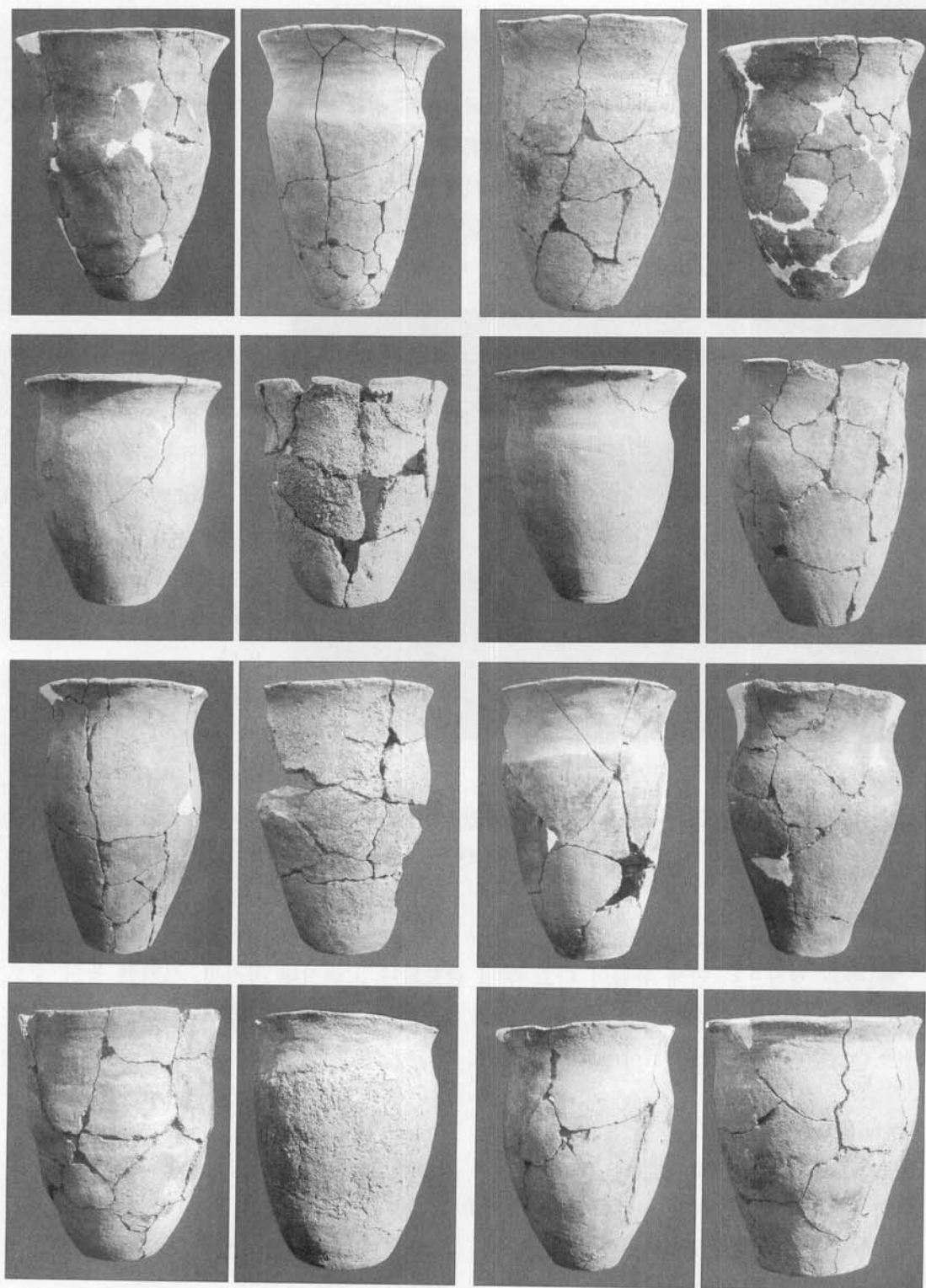


삽도 12. 곽지패총 4지구 전경



삼도 13. 각지파총 5지구 출토 각지리식토기 일괄





삼도 14. 각지패총 5지구 출토 각지리식토기 일괄

## 2) 고내리 유적

이 유적은 제주대박물관이 1994~1995년에 걸쳐 발굴한 바 있다. 해당지번은 고내리 650-4번지이고 그 조사 면적은 2,000평에 이른다.

고내리는 제주도 서북부 해안을 끼고 동서방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유물산포지가 확인되는 지점은 마을 동편으로 약 10,000여평에 해당된다. 유물산포지의 맨 남쪽부분에는 고인돌 1기가 자리하고 있다.



삽도 15. 고내리 유물산포지 1지구 발굴지 모습

유적의 해발고도는 10~30m이며 마을 남쪽으로 고내봉(해발200m)이 있고 유적의 서쪽편으로 작은 하천이 흐르고 있다. 고내봉의 찰흙 점토는 제주도내에서 良質로 알려져 있어서 지금도 간간히 採土가 이루어 지고 있다.

해안과 인접하여 용천수 2개소가 있고 發掘地 내에도 용천수가 있어서

최근까지 이용되어 왔다. 이 유적은 동편해안을 끼고 외도동유적과 인접하고 있으며 서편으로는 3km의 거리를 두고 郭支貝塚이 자리하고 있다.

### (1) 層位

제1층은 경작으로 인해 유물이 다소 섞여 출토되나 고려시대 청자편, 기와편 등이 주로 출토된다. 하층의 유물인 적갈색토기도 일부 混入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유구는 황색 점토층(3층)을 파고들어가 시설되어 있었다.

### (2) 遺構

A구역에서는 황갈색생토면을 파고 들어가 시설한 크고 작은 구덩이유구가 다량으로 밀집되어 확인되었다. 이들 구덩이 유구는 서쪽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랑, 북쪽은 인위적으로 파들어난 높이 1.5m의 단애면을 경계로 그 내부에 밀집되어 나타난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구덩이유구의 범위는 동서 64m, 남북 52m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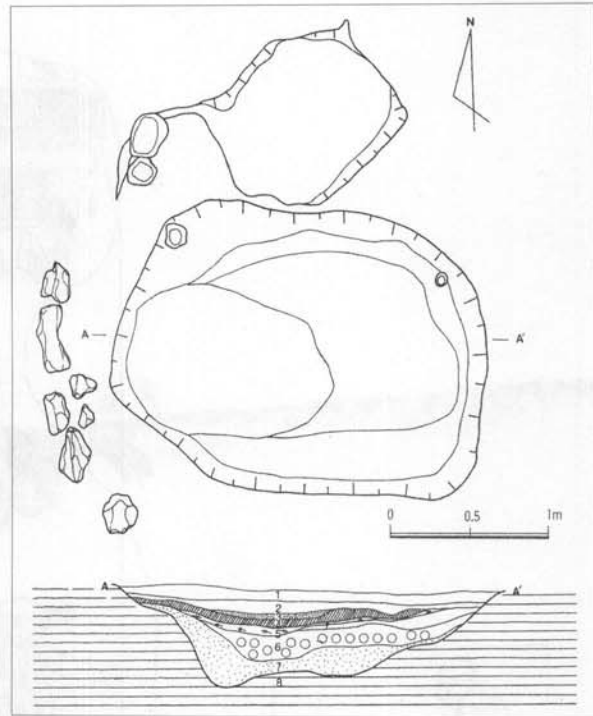
이들 구덩이유구는 크게 직경 2~3m 이상되는 대형구덩이와 직경 1~1.5m 내외의 소형구덩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형구덩이는 5가지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제1형식(La형)은 평면형태가 타원형이며, 내부토층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흑색재층과 붉은 소토덩어리로 채워져 있는 구덩이 유형이다. 이 구덩이 주변에서 흑색재층, 붉은소토덩어리가 廢棄되어 있고 구덩이주변에서 덜성형된 토기편이 확인되고 있어 토기생산과 관련된 야외요지일 가능성이 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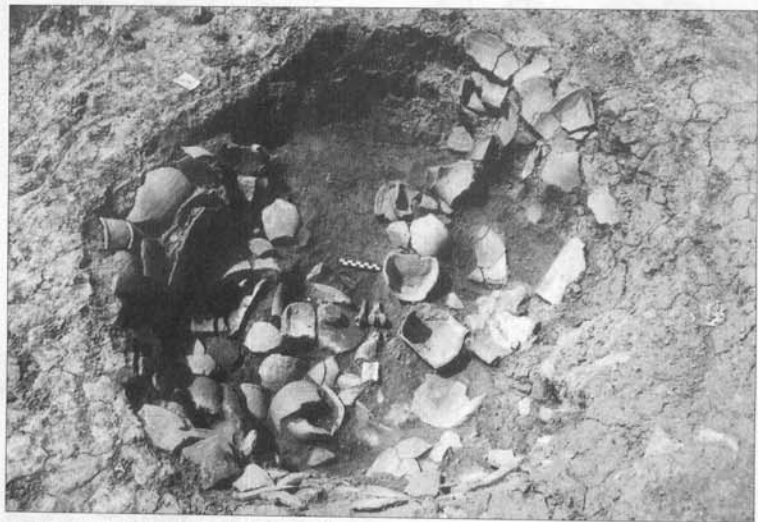
제2형식(Lb형)은 평면형태가 일정한 정형없이 불규칙한 모양이며, 흑갈색부식토로 채워져 있고, 유물이 거의 없는 구덩이 유형이다. 어떤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 졌을 것으로 판단되나 발굴한 구덩이중 그 용도가 가장 불확실한 구덩이다. 다만, 구덩이 바닥의 점토가 양질인 점으로 보아 점토를 대대적으로 채취했던 구덩이가 아닌가 한다.

제3형식(Lc형)은 평면형태가 불규칙하며, 덜소성된 토기편과 불에

탄 붉은점토덩어리로 이루어진 구덩이 유형이다. 이 구덩이의 소토층은 20~40cm 두께를 보이고 대부분 다른 구덩이와 중복되거나 소토층이 다른 구덩이의 상면을 덮고 있어 앞서 La형의 구덩이와 관련된 토기제작 후 남은 소토를 폐기한 燒土廢棄구덩이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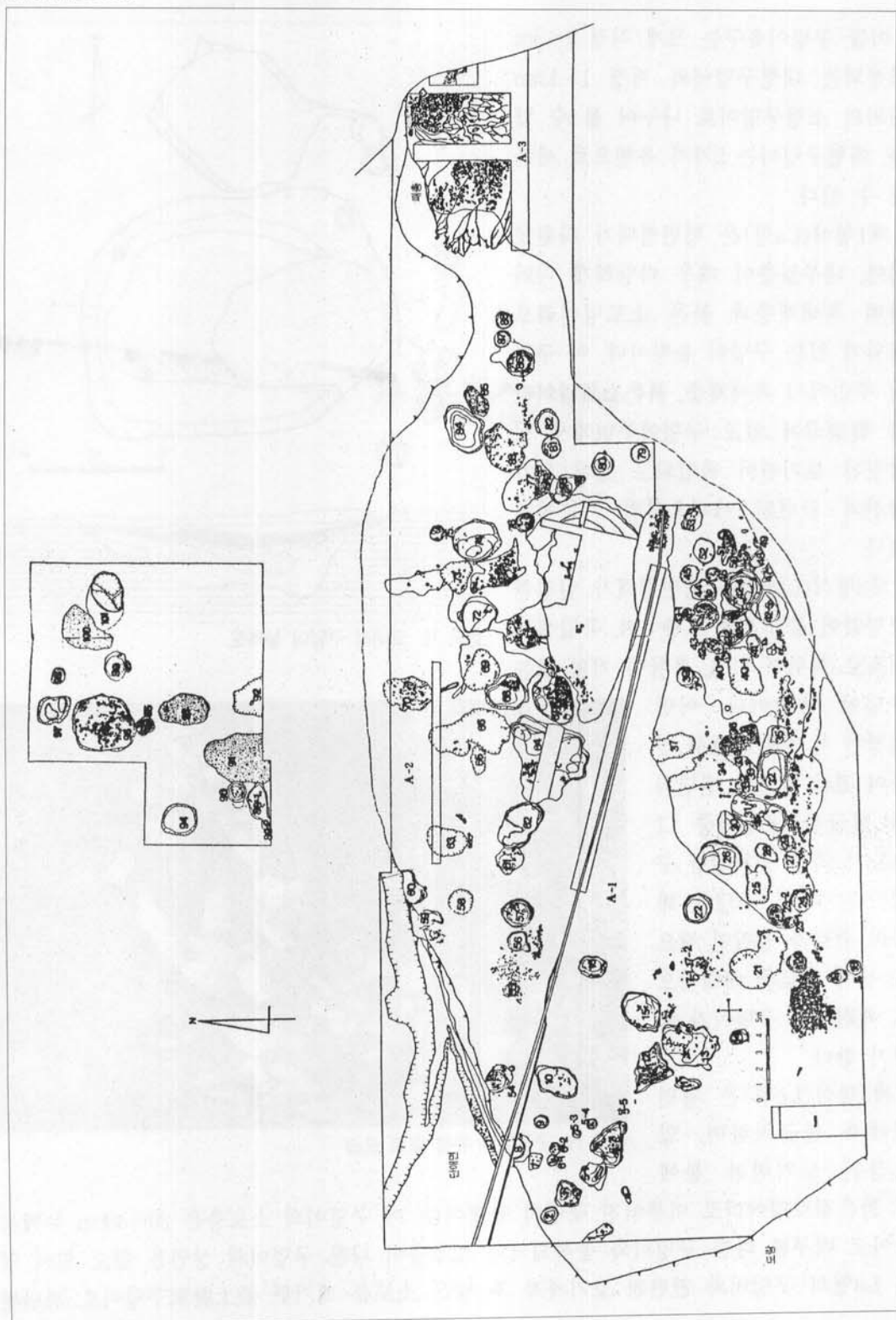


삽도 16. 고내리 구덩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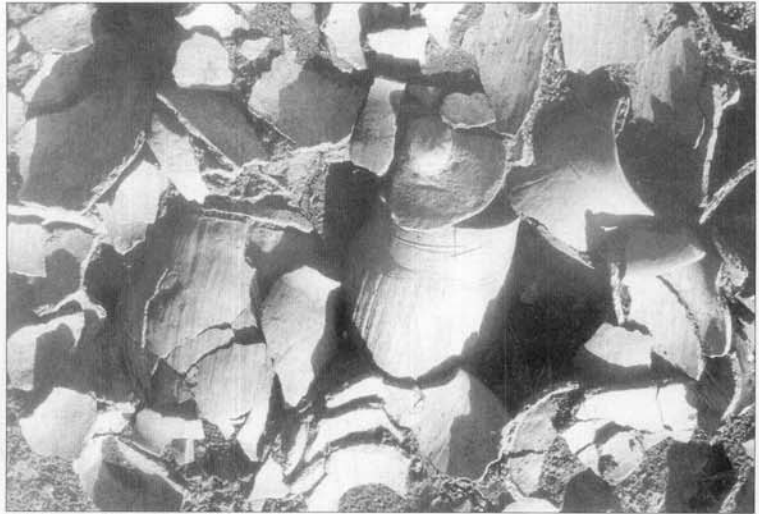
삽도 17. 구덩이와 유물 출토 모습





삼도 18. 고내리 1지구 전체유구 평면도

제4형식(Ld형)은 평면 형태는 원형이며, 구덩이 깊이가 1.5m이상되며 내부벽에서 작은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돌려져 있는 구덩이 유형이다. 이 구덩이에서 확인되는 벽체의 작은구멍은 구멍간의 대칭관계가 일정하여 곡물을 저장한 후 나무막대를 서로 얹어놓아 덮개를 엮은 형태의 곡물저장



삽도 19. 유물 출토 상태 세부

구덩이로 여겨진다. 이 구덩이 주변에서 탄화된 곡물이 다량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해준다.

제5형식(Le형)은 평면 형태가 장타원형이며, 흑갈색부식토로 채워진 30cm 내외의 깊이에 완형토기가 겹겹이 놓여 있는 구덩이 유형이다. 적갈색심발형토기(곽지2식토기) 완형 30여점이 서로 엇갈려 가지런히 놓인 채로 확인되고 있어 土器貯藏구덩이로 추정되는 구덩이유구이다.

이러한 대형구덩이 주변에서 확인되는 소형구덩이는 크게 두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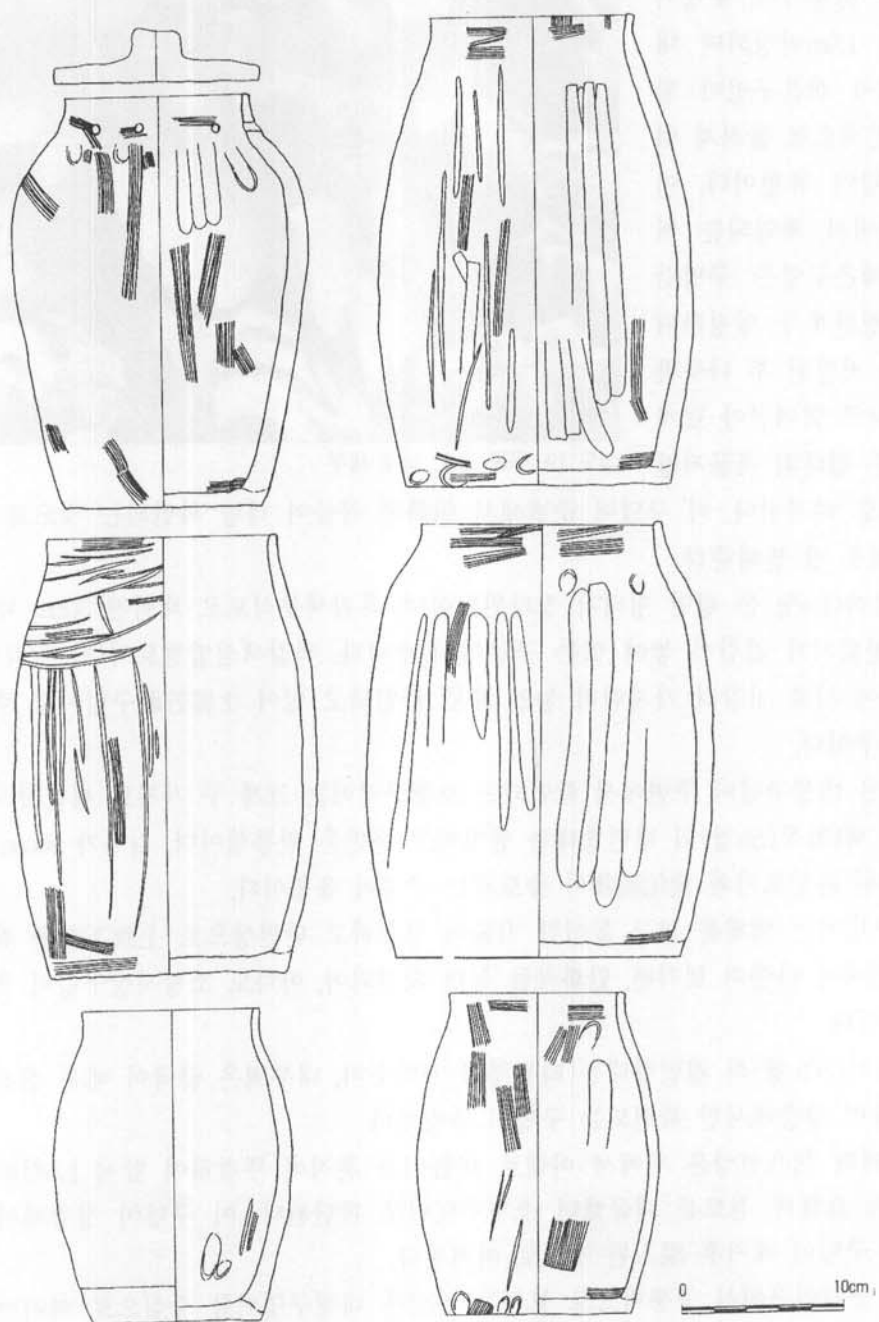
먼저 제1형식(Sa형)의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단면은 원통형이며, 깊이가 50cm 이상 되며 바닥에서 완형토기와 炭化穀物이 출토되는 구덩이 유형이다.

이 구덩이는 벽체를 파고 들어간 기술이 정교하고 단면상으로 上狹下廣을 취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다량의 토기편, 탄화곡물 등이 확인되어, 아마도 소형저장구덩이 용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제2형식(Sb형)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내부벽은 굴곡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며 유물이 상층에서만 확인되는 구덩이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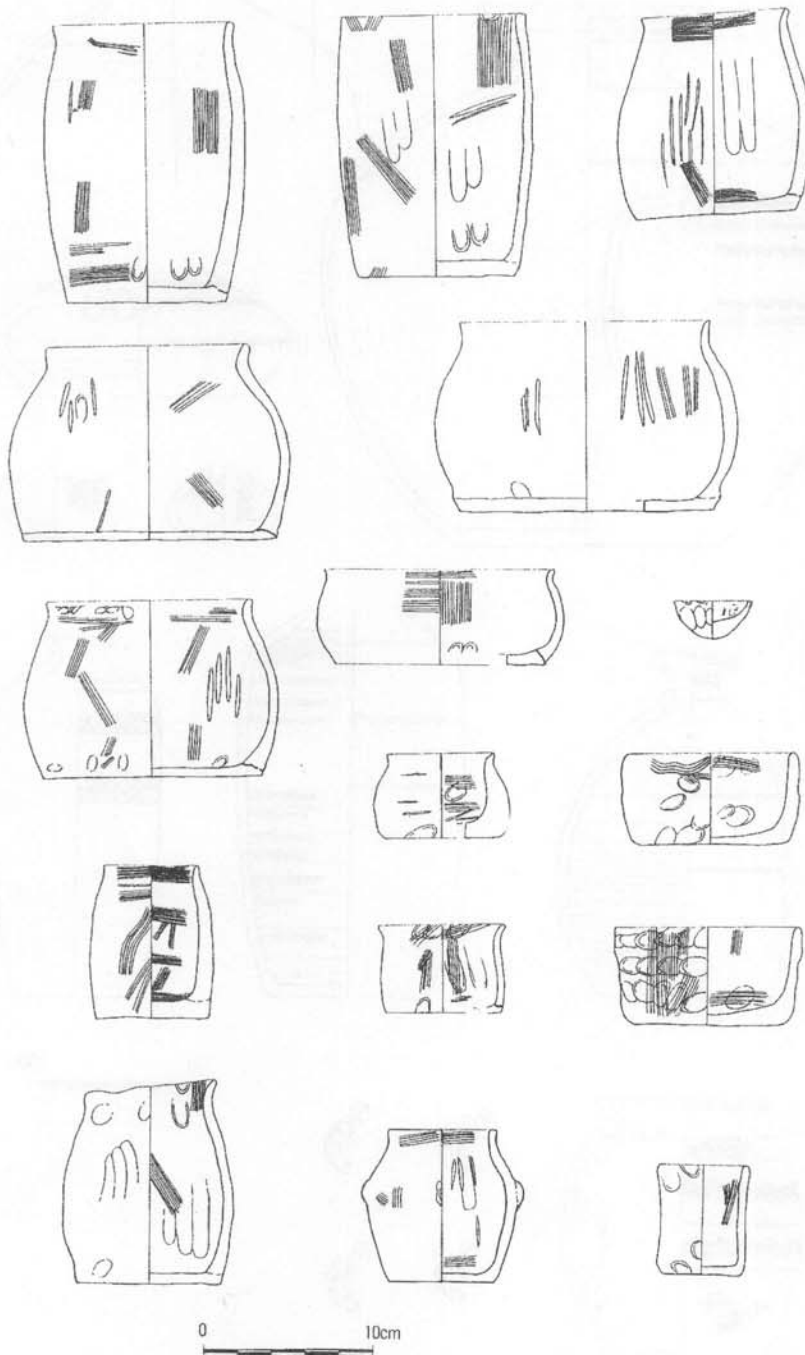
내부벽의凹凸현상은 위에서 아래로 파들어간 흔적이 뚜렷하여 앞서 Lb형의 구덩이보다 좀더 良質의 점토를 채굴했던 소형구덩이로 판단된다. 이 구덩이 상층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구덩이 폐기후 混入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구덩이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양상은 대형구덩이를 중심으로 여러개의 소형구덩이가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개개의 구덩이가 단일구덩이로 시설된 것이 아니라, 당시 생활지내에서 일정한 목적에 의해 여러 용도의 구덩이가 군을 이루어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대부분의 구덩이들이 평면적·층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점에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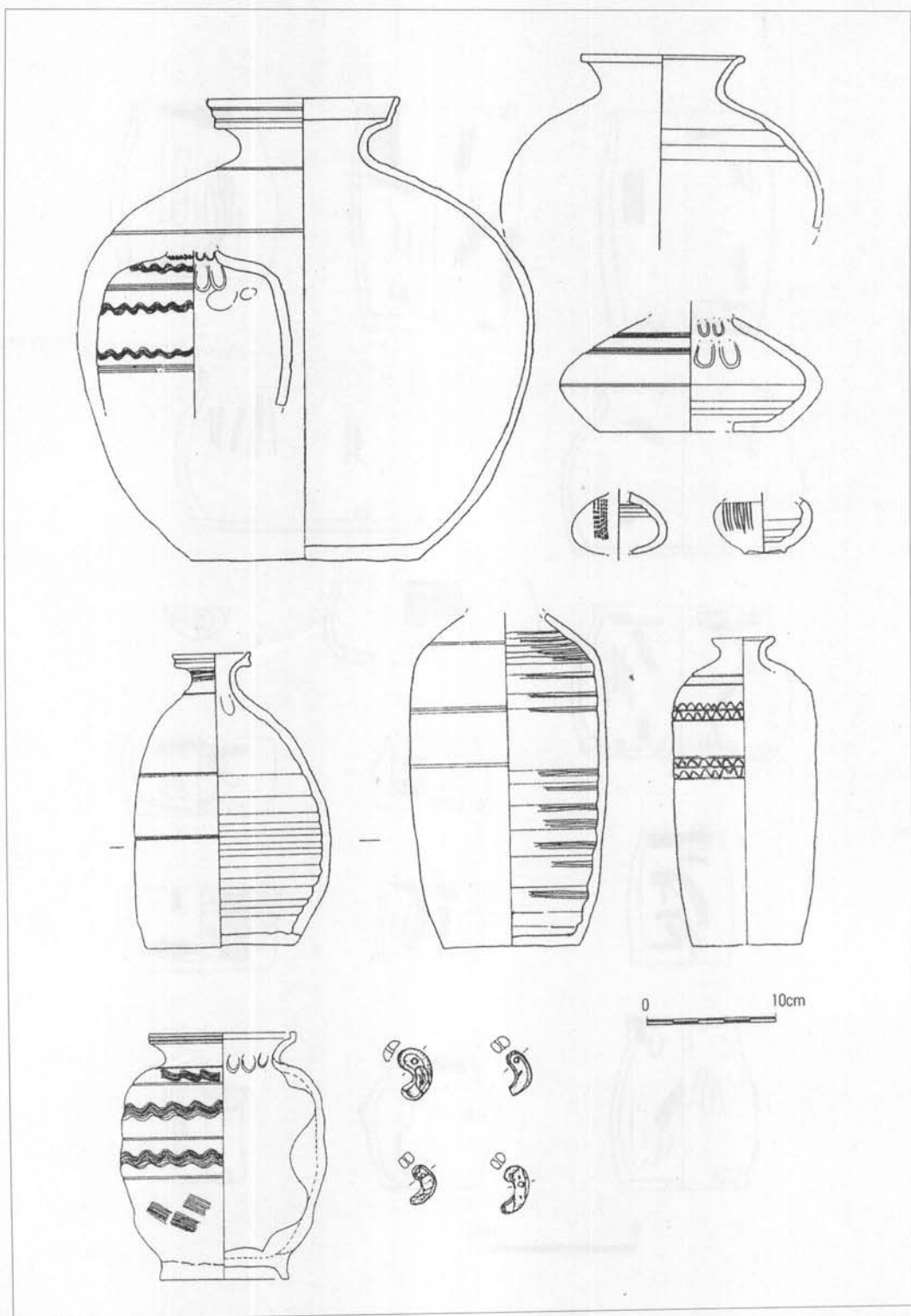


삽도 20-1. 고내리 유적 출토 고내리식 토기 일괄





삼도 20-2 고내리 유적 출토 고내리식 토기 일괄



삽도 21. 고내리 1지구 출토유물 실측도

## (3) 遺物

A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 유물은 제주산적갈색토기이다. 이 적갈색토기는 그 형태에 따라 심발형, 사발형, 꺾형으로 대별되고, 이외에 異形土器도 출토된다. 심발형토기는 적갈색의 郭支2式土器이다. 기벽의 두께가 1cm미만이고 저부를 따로 만들어 동체와 부착하였으며 바닥과 구연부 직경이 거의 같은 비율로 제작된 토기이다. 이 적갈색토기는 통일신라시대 혹은 탐라시대후기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토기외에 이번에 새롭게 사발형토기, 잔형토기, 소형꺾형토기, 꼭지가 달린 소형토기, 이형토기 등이 출토되어 이 시대의 제주도산 적갈색토기가 다양한 기종으로 만들어졌음을 추정케 한다. 이들 유물과 더불어 구덩이내부에서 8세기 중반이후에 유행한 統一新羅時代後期土器인 灰色陶器가 적은 양이나마 앞서 적갈색토기와 공반 출토되고 있다. 출토되는 기종은 盤口短頸瓶, 長頸瓶, 四角瓶, 偏瓶, 주름무늬 小形瓶, 突帶무늬 大壺 등이다. 이 토기는 남한계 회색토기와 기형이 같고 제주도 태토가 아닌 점으로 미루어 수입된 그릇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들 적갈색토기, 회색토기와 공반하여 해무리 굽청자, 청동제 사발, 납석제곡옥, 유리구슬 뿐만 아니라 낫, 소형도끼, 화살촉 등의 철제품도 출토되었다. 또한 A1구역의 구덩이 내부에서 콩과 보리로 여겨지는 다량의 탄화곡물이 확인되었다.

이외에 A1, 2구역 상층(1층)에서 고려초기 순청자편과 고려말기 청자편, 연화문숫막새 등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C구역 담장지에서는 고려말기 청자편과 조선초기



삽도 22. 광지2식토기 일괄



삽도 23. 사각편병 · 원통형병 · 일면편병



분청사기편, ‘高內村銘’ 平瓦 등이 확인되며, 특히 元代 자기, 北宋代의 熙寧元寶(1068~1077년), 紹聖元寶(1094~1097년) 등이 貨幣遺物도 출토되었다.

#### (4) 성격과 편년

현재까지 한반도내에서 이와같이 구덩이만이 밀집된 유구가 조사된 바 없어 단언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光州月田洞遺蹟에서 확인된 일련의 구덩이 유구가 비교된다. 전남 月田洞遺蹟은 대체로 5세기때에 해당하는 유구로 이러한 구덩이를 異形竪穴遺構로 판단하면서 구덩이 중 일부는 粘土貯藏庫로 해석하고 있다.

고내리 유적의 구덩이는 크게 대형구덩이와 소형구덩이로 나누어지며 대형구덩이중 La형은 토기제작과 관련된 野外窯址, Lb형은 粘土採掘구덩이, Lc형은 土器製作과 관련된 燒土廢棄구덩이, Ld형은 穀物貯藏구덩이, Le형은 土器貯藏구덩이로 여겨진다. 반면 소형구덩이중 Sa형은 소형 穀物貯藏구덩이, Sb형은 소형 粘土採掘구덩이로 추정하였다.

특히 La형의 구덩이는 내부토층에 소토층이 반복되고 폐기된 소토덩어리가 구덩이 상면을 덮고 있고 내부와 주변에 덜 성형된 토기편이 흩어져 있어, 토기생산과 관련된 야외 요지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구덩이는 日本 土師器 野外窯와 유사성을 갖고 있어 주목되어진다.

또한 Sa형의 소형구덩이는 몽촌토성내 건물지 주변에서 확인되는 貯藏孔에서 이와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Sb형의 소형구덩이는 ‘粘土土抗’이라해서 일본 多摩 遺蹟의 예가 있으나, 확실하게 粘土採掘구덩이로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

결국 이러한 구덩이군은 아직 주거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생활지내의 유구로 판단되며 크게 土器生産과 穀物貯藏이라는 용도로 사용되어진 구덩이군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구덩이유구의 시기는 郭支2式赤褐色土器와 공반하여 출토되는 통일신라시대후기에 유행한 灰色陶器에서 그 소속 年代를 추정할 수 있다. 출토되는 회색도기는 盤口短頸瓶, 四角瓶, 일면편병, 주름무늬병 등이 확인되며 이 유물은 대체로 8세기중반에서 9세기에 해당된다.

이외에 A구역 상층에서 노출된 적석유구와 기와매립층, C구역에서 확인된 담장지에서는 대체적으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초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 제주도의 고문헌인 『耽羅志』에 의하면 고려 충렬왕때 현 제주시에 있는 大村縣을 비롯한 여러 현촌 중에 高內縣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노출된 고려시대 유구는 縣廳址 혹은 口傳하는 高內寺址와 관련된 시설물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금성리 석축유적\*

이 유적은 애월읍 금성리 1675번지에 위치한다. 석축의 발견된 곳의 지형은 서편끝이 금성천과 맞닿아 있어 동에서 서로, 즉 하천으로 가면서 급격히 경사져 내려간다.

이 석축시설은 동에서 서로 길게 연결되어 확인되었다. 석축은 흑갈색점토와 잔자갈, 덜 소성된 토기편, 현무암제 할석 등이 혼용되어 축조되어졌다.

이 석축유구의 외벽은 약간 다듬어진 현무암제 할석(직경 30cm 이상)을 사용하여 7단이상 겹겹이 쌓는 방식으로 축조되어 있다. 외벽의 높이는 180~210cm 정도이다. 석축유구의 폭은 4.2~4.5m 정도이다. 외벽은 동서로 길게 이어지고 있으며, 당시 노출된 길이는 62.2m이다. 이 석축시설의 내벽은 외벽보다 정교하지 않으며, 이부분은 자갈한 돌을 채워 넣거나 흑갈색점토·덜 소성된 토기편 등을 단단하게 다져 축조하였다. 또한 석축시설 안쪽으로 50cm 정도 간격을 두고 석축열과 동일한 방향으로 폭 20~30cm의 천석열이 석축과 관련하여 이어지고 있었다. 이 적석시설의 상면상태는 고르지 못한 점으로 보아, 현재보다 더 올라간 석축부분이 평삭된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적석틈새와 내벽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모두 耽羅前期에 해당하는 경질무문토기(곽지1식토기)들이다. 석축시설의 하단은 토층 확인결과 암반층과 모래층 위에 축조되어 있었다. 이 석축시설의 서쪽 끝부분에서 후대에 만들어진 일련의 적석유구가 확인되며 이



삽도 24. 금성리유적 발굴지 전경(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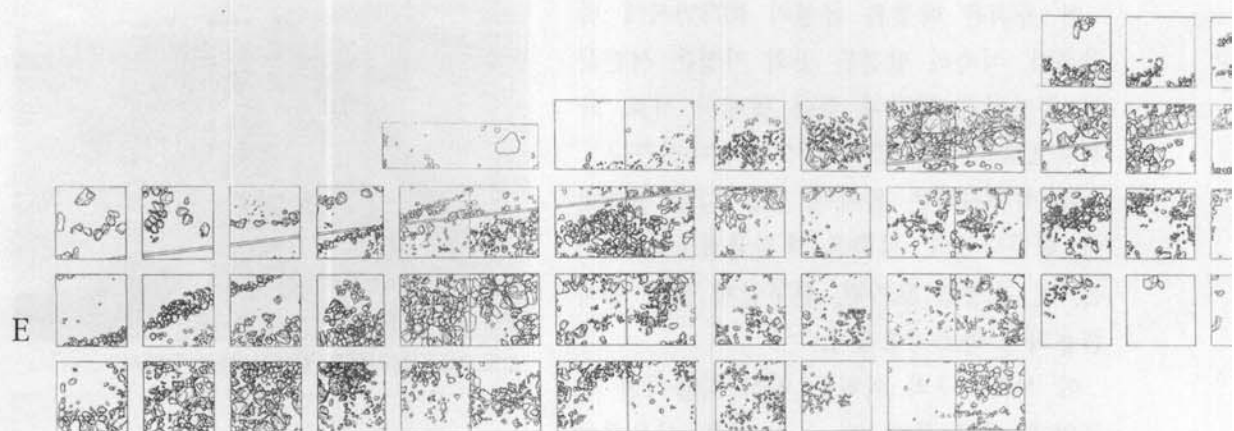


삽도 25. 금성리유적 발굴지 전경(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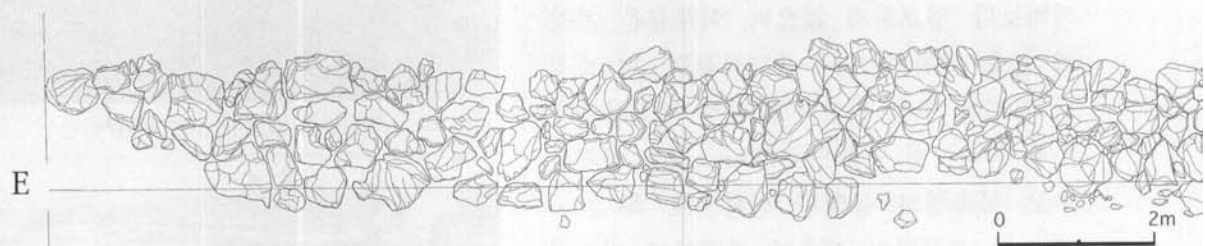


삽도 26. 금성리유적 석축 축조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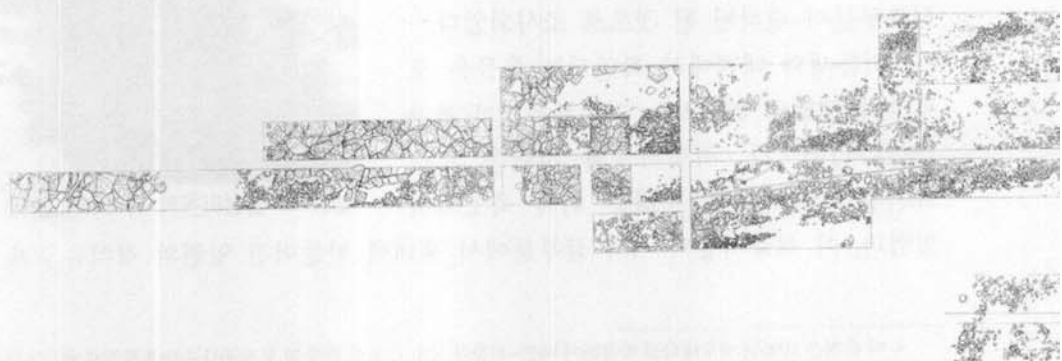
\* 이 유적은 1996년 제주대학교 박물관이 애월~신창간 국도 12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구간내 문화재 발굴조사에서 발견된 석축유구이다. 이 유구는 금번 조사(1998년)된 유구와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아직 보고서는 未刊이나 유구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수록하였다.



삽도 27. 금성리 석축유적 발굴구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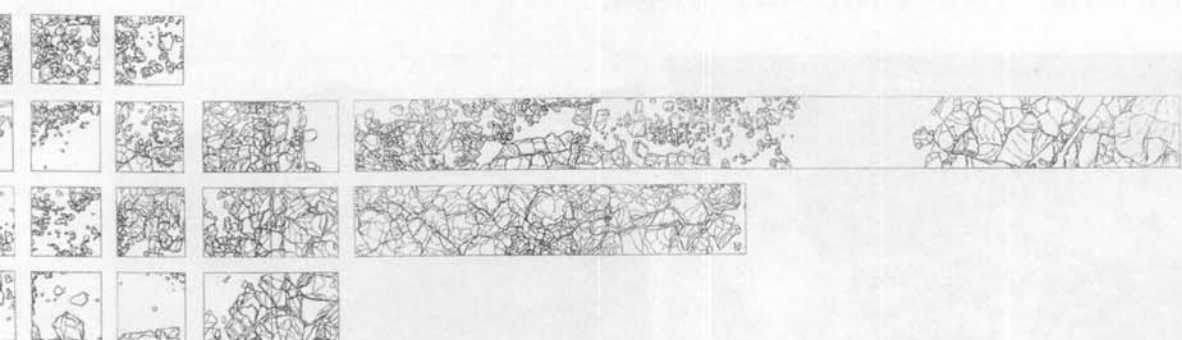


삽도 28. 금성리 석축유구 단면도



삽도 29. 금성리 석축유구 평면도





W



濟州錦城里遺蹟

적석틈새에서 治平元寶(宋英宗, 1064~1067年 發行)가 출토되었다. 이 年代는 적어도 이 석축이 存續한 下限를 제시하는 자료로 판단된다.



삽도 30. 금성리유적 석축 윗면 축조상태



삽도 31. 금성리유적 패총 층위단면



삽도 32. 금성리유적 석축 유구

## II. 地 表 調 査\*

### 1. 개 요

1996년도의 郭支貝塚 발굴조사에서 본 발굴단이 조사구역이었던 I구역과 VII구역 나, 다지점에서의 조사결과 문화층으로 보이는 층위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조사했던 郭支貝塚 1~7지구와는 달리 패각층의 형성이나 문화층으로 보이는 층위상태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발굴단은 발굴지역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고 郭支貝塚과 금성패총지역에 대한 정밀지표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기상악화로 인해 조사기간내에 계획했던 정밀지표조사를 시행하기에는 시일이 부족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지금까지 조사된 광지패총 1~7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유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에 놓고 주변지역으로 확대조사 하는 방식을 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먼저 유물의 분포범위를 설정하고 그 분포범위 중에서 집중분포된 지역에 대해 분포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 결과 郭支貝塚과 錦城貝塚의 유물산포지역에 대한 분포범위와 집중분포지역 그리고 앞으로 개발에 따른 시굴및 발굴조사가 요구되는 지역을 파악할 수가 있었다.

이번 지표조사로 인해 차후의 도로확장공사든지 기타 제반 공사에 따른 유적의 손실을 최대한 막기위한 기초적인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조사기간의 부족과 기상의 악화, 농작물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최초의 계획했던 대로 조사를 하지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여기서는 기간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단 각각의 지번별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차후 그리드 구획에 따른 정밀지표조사<sup>16)</sup>가 이루어질 경우에도 이 자료가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것으로 생각된다. 금번 지표조사는 1996년 2월 5일부터 1996년 2월 18일까지는 광지패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1996년 2월 19일부터 1996년 3월 3일까지는 금성패총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 조사내용은 1996년 제주대학교 박물관과 영남대 문화인류학과가 공동으로 조사한 「애월~신창간 국도12호선 확장 및 포장공사 구간내 발굴조사」에서 광지·금성리 일대 지표조사 내용을 수록한 글이다.

16) 尹煥 譯, 1994, 『考古學入門』, 學研文化社

지표조사(분포조사)시 유적의 지형측량도에 일정한 간격의 대그리드를 설정하고 대그리드내에서 한 구역에 대해 다시 중그리드를 구획하고 그 다음 중그리드의 한 구역을 다시 소그리드로 구획하는 방법으로 유물의 분포정도를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다.

## 2. 조사방법 및 경과

지표조사는 여러가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르게 마련이다. 충분한 인적·물적자원과 시간이 보장된 경우라면 조사대상지역의 모든 지점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용자원의 제약으로 주어진 지역 전체를 살살이 돌아보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연구자들은 흔히 조사대상지역에 대한 표본조사로써 조사지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sup>17)</sup> 郭支貝塚과 錦城貝塚에 대한 지표조사 또한 시간적 제약과 인적·물적자원의 제약 그리고 농작물의 미수확으로 인해 Grid구획에 의한 정밀조사가 불가피하여 편의상 각 지번별로 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1)지표조사는 지적도상에 표시된 지번별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내용을 지도상에 구획된 방안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지적도상에 기록된 지번을 확인하고 지번의 토양상태와 농작물 경작상태 그리고 유물 분포상태 등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표로 작성하였다.(표1~2)유물의 분포상태는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등급은 A~D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A등급은 1×1m의 방안을 설치하여 토기편의 개체수를 확인하였는데 방안틀 안에서 확인된 토기편의 개체수가 대략 80~100점 이상인 지역은 A등급으로 분류하였고 30~80점 정도의 개체수가 보이는 곳은 B등급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30점 이하인 지역은 C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토기편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지번내에서 1~2점이 확인되는 지역은 D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토기편이 대략 50점 이상이 분포된 A등급과 B등급의 지점은 광지패총 5·6·7지점이 해당되며 A, B등급의 지점은 상당한 양의 유물과 유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각 지번마다 일일이 방안틀을 놓고 조사를 하기에는 조사기간과 인력이 부족하고 또한 조사범위가 넓어서 대표적인 몇군데만 표본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주변지역과의 비교와 육안관찰로 그 분포 정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각 지번마다의 분포정도에서 다소 차이가 질지라도 주변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어느정도의 차이는 줄일 수가 있었다. 지표조사 일정은 1996년 2월 3일 발굴조사단 전체 미팅 시간을 갖고 조사에 대한 사전미팅과 함께 준비물을 체크 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조사는 1996년 2월 5일부터 실시되었다. 지표조사는 일단 郭支貝塚을 중심으로 실시하였고 郭支貝塚에 대한 지표조사가 끝난 2월 19일부터 금성패총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중에 폭설과 강추위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등으로 조사일정에 차질이 있었으나 기간내에 소기의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17) 이선복, 1998, 『고고학개론』, 이론과실천  
尹煥 譯, 1994, 『考古學入門』, 學研文化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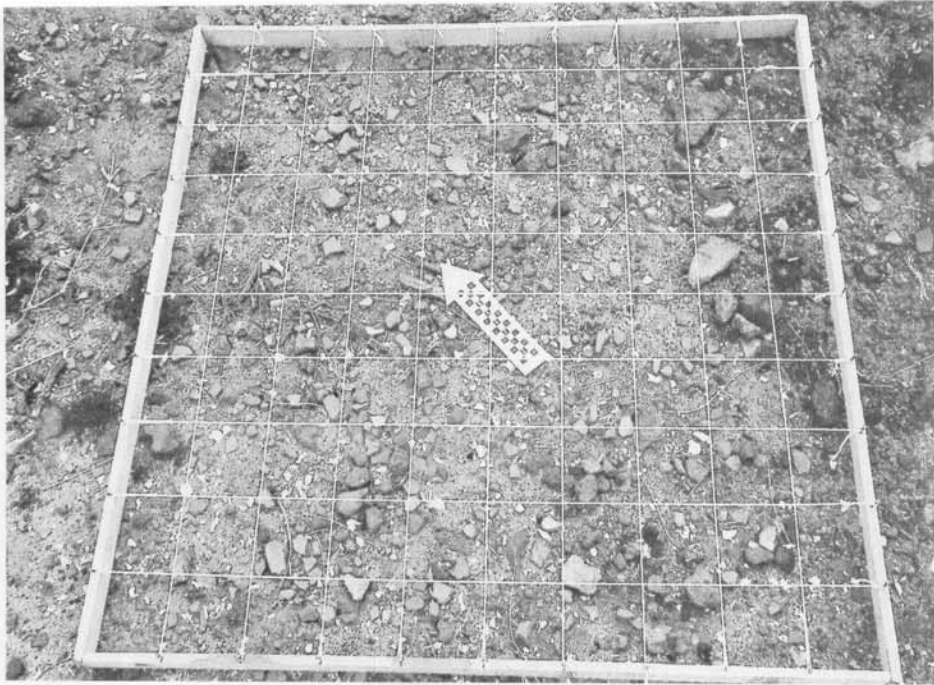


사진1. A등급(1943-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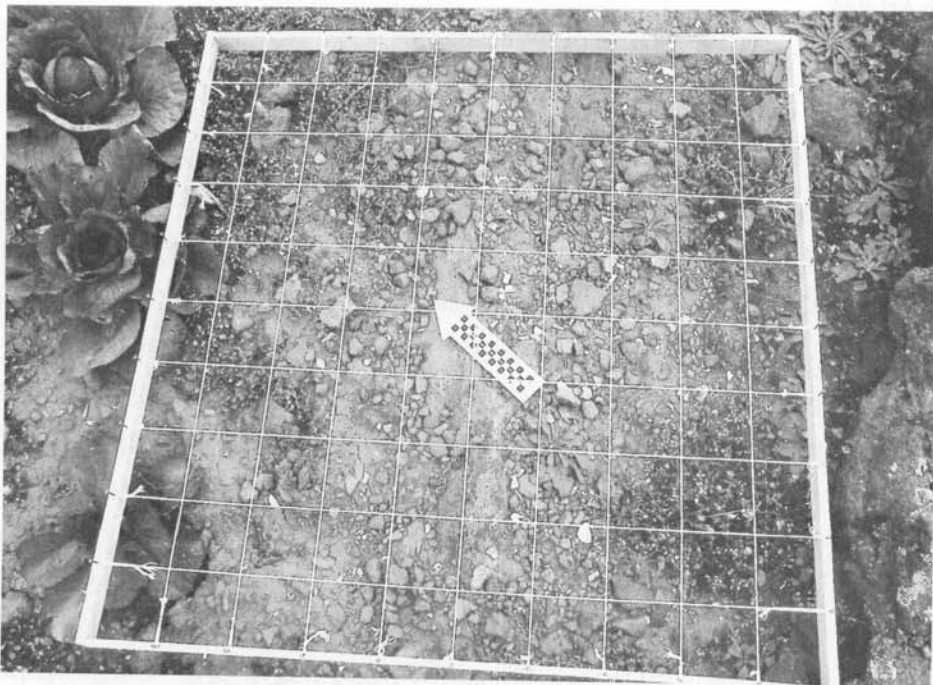


사진2. B등급(1944-1번지)



사진3. C등급(2038-1번지)

### 3. 조사내용

#### 1) 郭支貝塚

郭支貝塚은 그간의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제주도 최대의 패총유적으로 보고되었다. 금번 발굴조사기간중 본 발굴단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유적을 중심으로 하여 郭支貝塚과 금성패총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범위와 밀집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 및 지표조사 기간동안에 양배추, 파, 보리, 대파, 케일등의 경작으로 인해 지표면의 유물 분포상태를 조사하기에 불가능한 지역도 많았지만 주변지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어느정도의 근사한 분포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조사순서는 유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팍지패총 3033번지일대와 금성패총 2243번지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분포정도가 빈약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전에 대부분의 지역이 농작물 경작지역으로 아직 농작물을 수확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또한 농작물을 수확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종의 농작물 경작을 위해 밭갈이를 한 상태여서 육안으로 유물의 분포상태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육안관찰이 비교적 용이한 지역을 먼저 조사하고 그 주변 지역을 비교·확인하면서 조사를 시행하였다. 먼저 郭支貝塚에 대한 조사는 팍지패총5지구를 시작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각 지번별로 조사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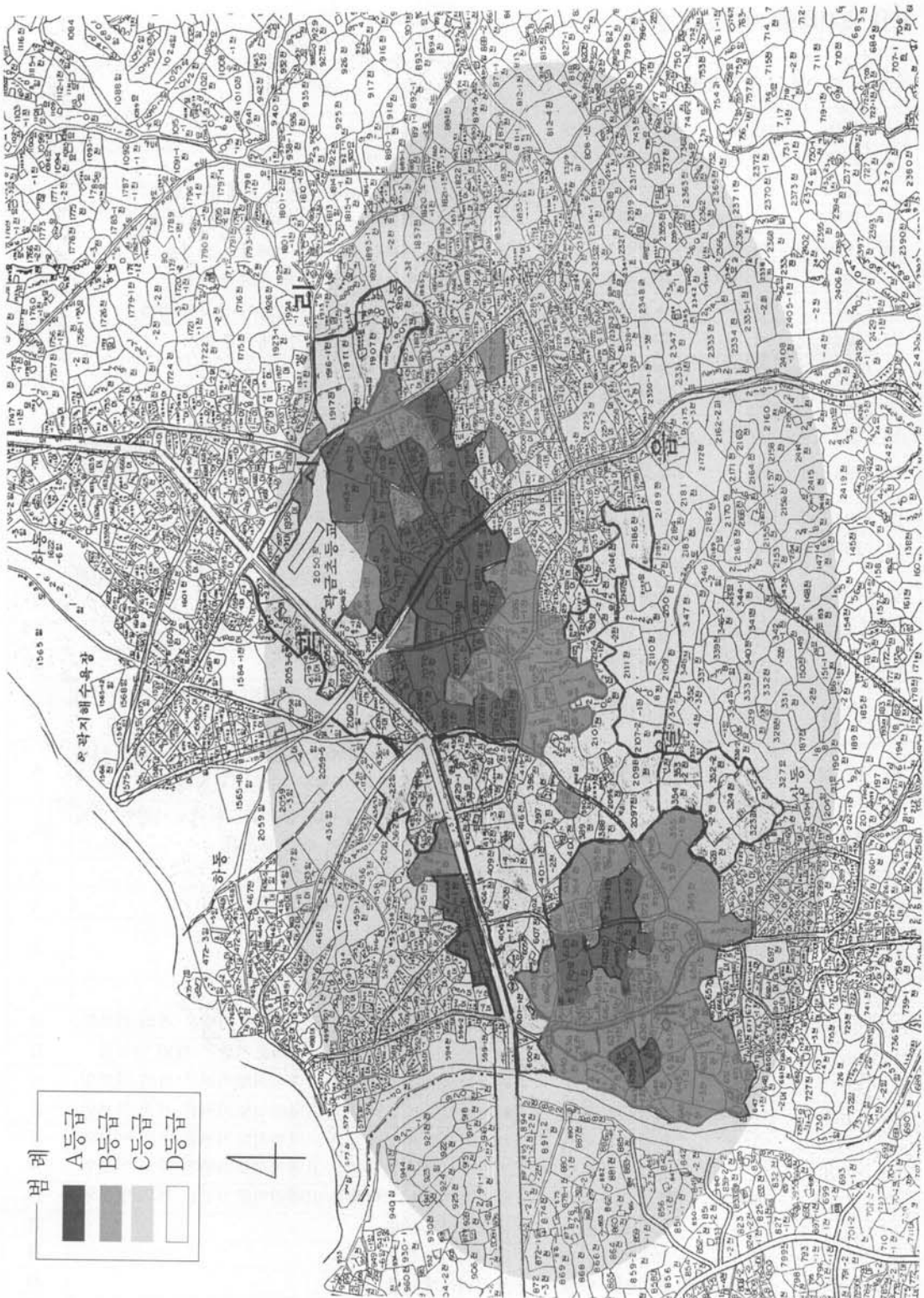


그림1. 광지·경성패총 유물 분포도

표1) 광지패총 지표조사 현황

순번	지 번	경작작물	토 양	조 사 내 용	분포도
1	1891	대파	흑갈색부식토	광지리식이 대부분	C
2	1900	파,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비닐경작으로 조사불능	C
3	1901	케일	흑갈색부식토	1907-2번지보다 2m가량 높은 곳에 위치한다.	C
4	1907	파,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자잘한 패각과 광지리식토기편이 많이 분포함.	C
5	1907-2	파,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광지리식이 대부분. 패각이 전체적으로 분포	C
6	1911	보리, 배추	흑갈색부식토	1917번지보다 1.5m가량 높은 곳에 위치한다.	C
7	1917	양배추	흑갈색사질점토	기와편이 일부 분포. 토기분포량이 급격히 감소.	C
8	1940-3	파	흑갈색부식토	비닐경작으로 조사불능(광지5지구 주변)	A
9	1942	양배추	흑갈색사질점토	비닐경작으로 조사불능(광지5지구 주변)	A
10	1943-1	양배추	흑갈색사질점토	고내리식이 대부분(90%이상)	A
11	1944-1	양배추	흑갈색사질점토	민묘 1기가 있음. 광지리식이 거의 대부분	B
12	1946-1	파	흑갈색사질점토	비닐경작을 하고 있어서 조사가 불가능하다. 대부분 광지리식토기편이며 고내리식토기는 5%정도 이다.	A
13	1947-3	취나물	흑갈색부식토	수확이 끝난 상태이다. 광지리식이 대부분	A
14	1952	파	흑갈색부식토	비닐경작으로 조사불능(광지5지구 주변)	A
15	1995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돌담부위 (1996-2와 1997-1의 경계)에 대형토기편(광지리식)이 다량 흩어져 있음.	A
16	1996-2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돌담부위에 광지리식토기편이 다량 흩어져 있음.	A
17	1997-1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A
18	2081	없음	흑갈색부식토	광지리식토기편이 대부분 분포한다. 고내리식토기편이 소량 분포하고 있으며 회색도기편이 다수 분포한다.	A
19	2082	없음	흑갈색부식토	광지리식토기편이 대부분 분포한다. 회색도기편이 다량 분포하며 고내리식토기편이 소량 분포한다.	A
20	2084-1	없음	흑갈색부식토	광지리식토기편이 대부분 분포함. 회색도기편이 다량 분포. 고내리식토기편이 소량 분포함.	A
21	2065-1	양파	흑갈색부식토	광지리식토기편이 대부분 분포함.	A
22	2066-1	양파	흑갈색부식토	광지리식토기편이 대부분 분포함.	A
23	2067-1, 2, 3, 4	양파	흑갈색부식토	광지리식토기편이 대부분 분포함.	A
24	2071-2	없음	흑갈색부식토	광지리식토기편이 대부분 분포함	A
25	2070-3	양파	흑갈색부식토	광지리식토기가 대부분 고내리식토기편은 거의 안보임.	B
26	2072-2	양파	흑갈색부식토	광지리식토기가 대부분 고내리식토기편은 거의 안보임.	B
27	2073-2	양파	흑갈색부식토	광지리식토기가 대부분 고내리식토기편은 거의 안보임.	B
28	2079	양파	흑갈색부식토	광지리식토기가 대부분 고내리식토기편은 거의 안보임.	B
29	2025-1	없음	흑갈색부식토	광지리식토기가 대부분 고내리식토기편은 거의 안보임.	B
30	2076-1	없음	흑갈색부식토	광지리식토기가 대부분 고내리식토기편은 거의 안보임.	B
31	2027-1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광지리식토기가 대부분 고내리식토기편은 거의 안보임.	B
32	2117-1	양파	흑갈색부식토	광지리식토기편.	B
33	2116-2, 3	양파	흑갈색부식토	광지리식토기편.	B
34	2085-2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광지리식토기편.	B
35	2081-2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광지리식토기편.	C



순번	지 번	경작작물	토 양	조 사 내 용	분포도
36	2043-1	양배추	흑갈색사질점토	곽지5지구~서쪽편 담장.	A
37	2071-2	양배추	흑갈색사질점토		A
38	2072-2	양배추	흑갈색사질점토		A
39	2029-1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대부분이 곽지리식토기편임.	A
40	2030	양파	흑갈색부식토	전체적으로 비닐경작을 하고 있다.	A
41	2019-2	파	사질토	비닐경작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 점토성분이 강해지며 폐각량이 많이 보인다. 곽지리식토기편이 대다수임.	A
42	2032-2	파	사질점토	곽지리식토기편이 대부분임.	A
43	2037-2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대부분이 수확이 된 상태이나 정리가 안된 상태여서 조 사가 불가능하다. 곽지리식 · 고내리식토기편이 둘다 많 이 흩어져 있음.	A
44	2036-1	양파,배추	흑갈색부식토	부분적으로 비닐경작	A
45	2038-1	양배추	흑갈색사질점토	고내리식토기편이 다소 많아진다. 폐각이 다소 많다.	A
46	2070-3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이 대부분임.	A
47	2044-1	파	흑갈색부식토	민묘가 2기 있음. 대부분 곽지리식토기이다.	A
48	2039-3	없음	흑갈색사질점토	전체적으로 비닐경작을 하고 있어 조사가 불가능하다.	B
49	2031-3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이 대부분	B

## 2) 금성패총

금성패총은 1986년도에 유물산포지로 보고된 바가<sup>18)</sup> 있으나 금번 발굴을 시행하기 전까  
지는 이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나 郭支貝塚과 바로 인접하고 있  
고 금성천을 끼고 있어서 매장유물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곳으로 추정되어 왔다. 따라서  
금성패총에 대한 지표조사에서는 곽지패총에 대한 조사 보다 유물분포상태, 밀집정도등에  
있어서 더욱 세밀하게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표상에서도 곽지리식 · 고내리식적갈색토기를  
비롯하여 갈판, 갈돌, 공이석기와 같은 석기류등 기타 여러가지 유물들이 집중적으로 분포  
하고 있었다.

유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금성패총의 위치는 대부분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 경작되고 있는 작물에 있어서도 양배추, 양파, 쪽파등 비교적 토심을 얇게 경작하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서 차후 발굴조사시 다량의 유구와 유물이 확인될 것으로 보아진다.

금성패총에 대한 조사도 대부분 경작작물이 있어서 곽지패총에 대한 조사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지역과의 육안관찰과 비교를  
통해 실시하였다.

금성패총에 대한 각 지번별 조사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8)李清圭, 1986, 『濟州島遺蹟』, 濟州大學校博物館

표2) 금성패총 지표조사 현황

순번	지 번	경작작물	토 양	조 사 내 용	분포도
1	633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석이 대다수. 패각이 전면적으로 깔려있음.	A
2	635	양파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석이 대다수. 패각이 전면적으로 깔려있음.	A
3	621	양파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석 · 고내리식토기편과 패각이 혼재하여 다량 분포한다.	A
4	620	양파	흑갈색부식토	625 · 372번지 보다 대략 1~2m가량 높은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패각과 동물뼈가 다량의 고내리식토기편과 함께 분포한다. 곽지리식토기편도 다소 많이 보임.	A
5	625	양파	흑갈색부식토	다량의 고내리식토기편이 패각과 함께 분포하고 있다.	A
6	623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다량의 고내리식토기편과 함께 패각이 전면적으로 혼입되어 있다.	A
7	374-1,2		흑갈색부식토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을 수확한 상태이나 표토가 뒤섞여 있어 육안관찰이 어렵다. 다량의 곽지리석과 고내리식토기가 패각과 함께 혼재하여 분포하고 있다.	A
8	623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석 · 고내리식토기편이 혼재하여 분포하고 있다. 곽지리식토기편이 대다수이며 패각이 일부 확인된다.	B
9	631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토기가 대부분	B
10	632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토기가 대부분	B
11	640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토기가 대부분	B
12	641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토기가 대부분	B
13	642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토기가 대부분	B
14	643-2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토기가 대부분	B
15	644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토기가 대부분	B
16	358	케일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토기편만이 나타나고 있다.	B
17	357	양파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토기편이 대다수이며 고내리식은 소량만이 보인다.	B
18	359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토기편이 대부분	B
19	368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토기편이 대부분	B
20	630-1	양파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석 · 고내리식토기편이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B
21	616-1	케일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토기편이 소량 분포되어 있다.	B
22	624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토기편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패각은 전혀 보이지 않음.	B
23	618-1	양파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석 · 고내리석이 혼재하여 소량 분포한다.	B
24	372	양파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석이 대다수	B
25	387	양파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석이 대다수	B
26	615-1	양파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석과 고내리석이 소량 혼재하여 분포한다.	B
27	637-1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석과 고내리석이 소량 혼재하여 분포한다.	B
28	369	양파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석 · 고내리석이 혼재하여 분포한다.(곽지리석이 다소 우세)	B
29	370	양파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석 · 고내리석이 혼재하여 산포한다.(곽지리석이 대다수임)	B

순번	지 번	경작작물	토 양	조 사 내 용	분포도
30	658-1	양파	흑갈색부식토	팍지리식이 대다수이다(고내리식은 소량 보임). 패각은 일부 혼입되어 있다.	B
31	367-1	양파	흑갈색부식토	팍지리식이 대다수이다(고내리식은 소량 보임). 패각은 일부 혼입되어 있다.	B
32	628-1	양파	흑갈색부식토	팍지리식 · 고내리식이 비슷하게 분포한다(패각 소량 혼입).	B
33	656-1	양파	흑갈색부식토	팍지리식 · 고내리식이 비슷하게 분포한다(패각 소량 혼입).	B
34	610	양파	흑갈색부식토	팍지리식토기와 회청색도기편이 다소 분포한다.	B
35	602-4	케일	흑갈색부식토	팍지리식이 대부분이며 패각이 일부 혼입. 고내리식토기는 안보임.	B
36	608	양파	흑갈색부식토	팍지리식과 도기편이 다소 흩어져 있으며 고내리식은 안보인다.	B
37	380		흑갈색부식토	팍지리식이 많이 흩어져 있으며 고내리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B
38	379	양파	흑갈색부식토	팍지리식이 다소 많으며 고내리식도 약간 보인다.	B
39	384	양파	흑갈색부식토	팍지리식이 다소 많으며 고내리식도 약간씩 보인다.	B
40	378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팍지리식과 고내리식이 혼재하고 있다.(팍지리식이 다소 많음)	B
41	376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팍지리식 · 고내리식과 패각이 혼재하고 있다.(팍지리식이 다소 많음)	B
42	385	양파	흑갈색부식토	팍지리식 · 고내리식이 혼재하며 패각이 일부 확인된다.(팍지리식이 다소 우세)	B
43	387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팍지리식토기가 대부분	B
44	391	양파	흑갈색부식토	팍지리식토기가 다소 분포한다. 자기와 기와편이 다량 분포함.	B
45	611-1	양파	흑갈색부식토	팍지리식과 고내리식이 혼재하여 분포하고 있으나 토기 분포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C
46	638	양파	흑갈색부식토	팍지리식과 고내리식이 혼재하여 분포하고 있으나 토기 분포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C
47	317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팍지리식토기편이 극히 소량 보인다.	C
48	318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팍지리식토기편이 극히 소량 보인다.	C
49	324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팍지리식토기편이 극히 소량 보인다.	C
50	325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팍지리식토기편이 극히 소량 보인다.	C
51	355-2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팍지리식토기편이 극히 소량 보인다.	C
52	410	양배추	흑갈색사질토	팍지리식토기편이 극히 소량 보인다.	C
53	411-3	양배추	흑갈색사질토	팍지리식토기편이 극히 소량 보인다.	C
54	413	양배추	흑갈색사질토	팍지리식토기편이 극히 소량 보인다.	C
55	413-2,3	양배추	흑갈색사질토	팍지리식토기편이 극히 소량 보인다.	C
56	429	양배추	흑갈색사질토	팍지리식토기편이 극히 소량 보인다.	C
57	420-1	양배추	흑갈색사질토	팍지리식토기편이 극히 소량 보인다.	C

순번	지 번	경작작물	토 양	조 사 내 용	분포도
58	421	양배추	흑갈색사질토	곽지리식토기편이 극히 소량 보인다.	C
59	424-1	양배추	흑갈색사질토	곽지리식토기편이 극히 소량 보인다.	C
60	425-1	양배추	흑갈색사질토	곽지리식토기편이 극히 소량 보인다.	C
61	426-1	양배추	흑갈색사질토	곽지리식토기편이 극히 소량 보인다.	C
62	427-1	양배추	흑갈색사질토	곽지리식토기편이 극히 소량 보인다.	C
63	429-1	양배추	흑갈색사질토	곽지리식토기편이 극히 소량 보인다.	C
64	430-1	양배추	흑갈색사질토	곽지리식토기편이 극히 소량 보인다.	C
65	605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토기와 기와편이 흩어져 있다.	C
66	601-5	없음	흑갈색부식토	농작물 수확후 밭갈이한 상태여서 지표상에서 유물을 확인할 수가 없다. 605번지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C
67	404-1	양파	흑갈색사질토	곽지리식토기편과 기와 · 자기편이 다소 분포한다.	C
68	607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토기편과 기와편이 다소 보이며 고내리식토기 편이 소량 확인된다.	C
69	401-2	양파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토기편이 일부 보인다.	C
70	402	케일	흑갈색부식토	기와편이 다소 보이며 곽지리식토기편이 다소 보인다.	C
71	409	양파	흑갈색부식토	기와편과 고내리식토기편이 다소 보인다.	C
72	415	양파	흑갈색부식토	청자 · 분청, 기와편이 확인되며 토기편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C
73	381	양파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토기편이 다소 보인다.	C
74	382	양파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토기편이 다소 보인다.	C
75	388	양파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토기편이 소량 보이며 토기편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C
76	389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기와편이 집중적으로 깔려있고 곽지리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C
77	390	양파	흑갈색부식토	기와편이 집중적으로 깔려있으며 곽지리식토기편이 소량 보인다.	C
78	400		흑갈색부식토	경작후 밭갈이한 상태여서 유물을 확인할 수가 없다.	C
79	398	케일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토기가 소량 분포하며 고내리식토기는 거의 보이지 않음.	C
80	419	양파	백갈색사질토	곽지리식토기가 소량 보인다.	C
81	417	양파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토기편이 소량 보인다.	C
82	416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기와편이 다소 분포하며 곽지리식토기편이 일부 보인다.	C
83	396	양배추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이 소량 분포하며 유물 분포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C
84	393	양파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토기편이 소량 분포한다.	C
85	397	양파	흑갈색부식토	곽지리식이 소량 분포하며 고내리식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C



## 4. 수습유물

수습된 유물은 대체로 토기와 석기류 그리고 토제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습된 토기는 팍지리식토기와 고내리식토기이며 석기류는 공이, 갈돌, 갈판등이 있다. 토제품으로는 토제방추차뿐이다. 여기서는 팍지리식토기와 고내리식토기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생략하고 유물의 세부속성만을 기술하도록 하겠다.

### 1) 팍지리식토기 구연부

팍지리식토기 구연부편으로 2031-3번지 일대에서 수습된 유물이다. 외면의 구연부에는 물손질흔과 문지르기 수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구연부에서 동체로 이어지는 부위에는 물손질 후 주걱과 같은 넓은 도구를 사용하여 문지르기 수법으로 처리하였다. 태토는 약간 거칠은 편이며, 검게 그을린 부분이 일부 관찰된다. 내면은 손누름수법과 물손질흔, 그리고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긁어낸 흔적이 보인다. 구연은 손누름수법과 물손질로 자연스럽게 처리했다. 구순부처리는 물손질로 손으로 자연스럽게 처리하였다. 색조는 적갈색조와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태토보강제로 굵은 현무암알갱이와 함께 일부 패각편이 혼입되었다.

현고 : 14.1 추정구경 : 24.1 두께 : 0.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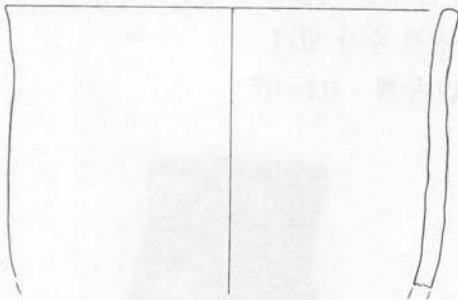


그림2. 팍지리식 토기 구연부



사진4. 팍지리식 토기 구연부

### 2) 팍지리식토기 구연부

팍지리식토기 구연부편으로 구순부는 깎기수법을 일부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구순부 바로 밑으로는 초보적인 회전흔이 내외면 공히 관찰되고 있다. 외면은 깎기수법과 빗질흔, 그리고 내면은 빗질흔과 손누름수법을 주로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태토나 색조, 그리고 정면처리수법이 매우 정연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기형상에서는 전형적인 팍지리식 토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태토보강제는 비교적 정선된 모래알갱이와 함께 일부는 굵은 모래알갱이가 사용되었다. 색조는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현고 : 6.4 추정구경 : 11.5 두께 : 0.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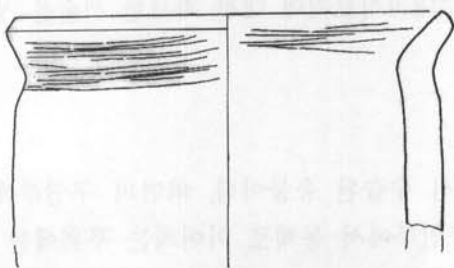


그림3. 팍지리식 토기 구연부



사진5. 팍지리식 토기 구연부

### 3) 고내리식토기 구연부

고내리식토기 구연부편으로 심발형토기이다. 내외면 모두 종으로 깎기수법과 굽기 그리고 빗질흔이 관찰되며 구연부 바로 밑으로 회전흔이 관찰된다. 구순부 역시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여 수평으로 깎아서 처리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손누름수법을 주로 사용하여 토기를 제작한 후에 깎기와 굽기 그리고 기타 도구를 사용하여 정면처리한 후 마지막으로 문지르기와 물손질로 마무리를 하였음을 관찰할 수가 있다.

잔존길이 : 10.3 추정구경 : 10.5 동최대경 : 13.9 두께 : 0.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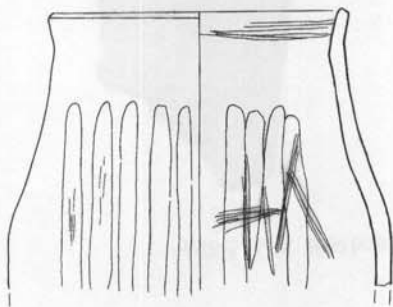


그림4. 고내리식 토기 구연부



사진6. 고내리식 토기 구연부

### 4) 팍지리식토기 저부

2041-1번지에서 수습된 팍지리식토기 저부편으로 태토가 매우 거칠고 표면에 보강제로

사용한 굽은 모래알갱이가 많이 관찰된다. 저부 바닥면과 외면은 공히 물손질수법과 빗질수법을 사용하였고 외면 밑부분은 성형후 기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3~4cm 정도의 폭으로 제작된 목판도구를 사용하여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누른흔적이 확인된다. 이러한 수법을 사용한 것은 아마도 저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덧붙이거나 덧대는 과정에서 돌출된 부분의 기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법인 것으로 추정된다.

잔존길이 : 4.3 추정저경 : 14.7 두께 : 1.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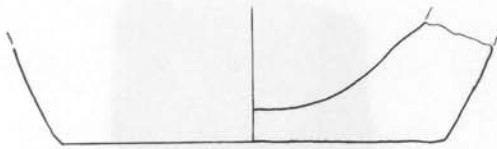


그림5. 팍지리식 토기 저부

사진7. 팍지리식 토기 저부

### 5) 팍지리식토기 저부

2043-1번지에서 수습된 팍지리식토기 저부편이다. 동체에서 바로 일직선상으로 저부와 이어져 내려오는 기형이다. 정면수법으로는 목판누르기수법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물손질과 빗질로 정면처리를 한후에 목판도구를 사용하여 누르거나 깎아내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내부바닥은 손누름수법을 사용하고 자체적으로는 빗질수법을 사용하였다. 태토가 매우 거칠며, 보강제로 사용된 굽은 모래알갱이가 다량 확인된다.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현고 : 6.5 추정저경 :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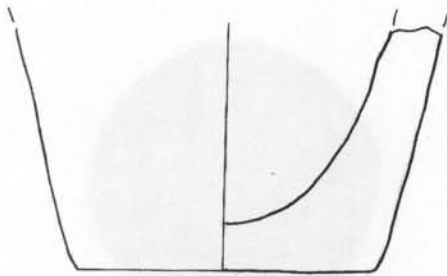


그림6. 팍지리식 토기 저부

사진8. 팍지리식 토기 저부

## 6) 팍지리식토기 저부

팍지리식토기 저부편으로 외면은 물손질과 문지르기 수법을 일부 사용하였다. 내면은 직경 3cm 내외의 목판도구를 사용하여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눌러 기벽을 정리한 흔적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이러한 수법으로 기벽을 정리한 후 다시 빗질을 더해 마무리하였다. 저부 바닥과 동체로 올라가는 부위는 약간 단을 지게 성형되어 있어서 동체부와 저부의 접합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Slip이 벗겨져서 거친 태토가 관찰된다. 색조는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현고 : 4.5 추정저경 : 12.5 두께 : 0.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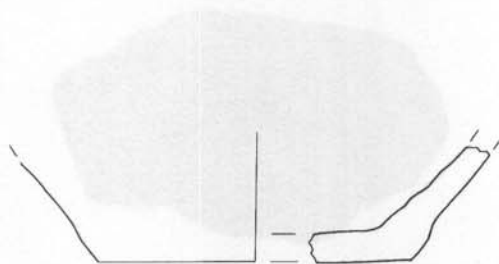


그림7. 팍지리식 토기 저부

사진9. 팍지리식 토기 저부

## 7) 팍지리식토기 저부

1946-1번지에서 수습된 팍지리식토기 저부편으로 외면은 태토가 약간 매끄러운 편이며 손누름 수법으로 정면한 후 물손질과 깎기수법 그리고 빗질수법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내면은 상·하, 좌·우로 무질서하게 빗질수법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저부바닥은 약간 굽이 있는 굽저부로 손누름수법 후 무질서하고 강한 빗질수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색조는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현고 : 4.2 저경 : 10.2 두께 : 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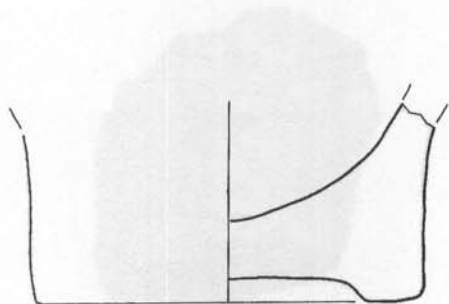


그림8. 팍지리식 토기 저부

사진10. 팍지리식 토기 저부



### 8) 광지리식토기 저부

광지리식토기 저부편으로 외면은 문지르기수법 후 목판누르기수법으로 처리하여 매끄러운 편이다. 반면에 내면은 손누르기수법으로 저부와 동체부의 접합부를 접합후 돌출부를 눌러서 제작하였다. 빗질흔이 일부 보이며 태토는 매우 거친 편이다. 저부 바닥은 약간 들린 굽저부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내면은 Slip이 대부분 벗겨져 있어 뚜렷한 관찰이 어려우나 대체로 암갈색조를 띠고 있으며 외면은 황갈색조를 띠고 있다.

현고 : 5.1 추정저경 : 9.0 두께 : 1.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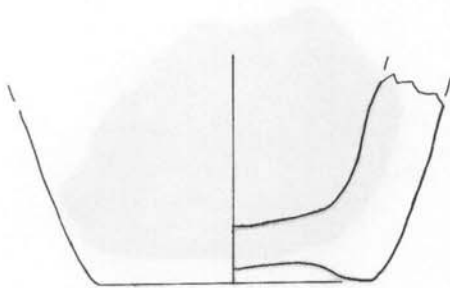


그림9. 광지리식 토기 저부



사진11. 광지리식 토기 저부

### 9) 광지리식토기 저부

광지리식토기 저부편으로 굽이 특이한 굽저부이며 동체부가 굽으로 내려오면서 축약되고 둥글게 말아 올라가서 굽을 이루는 전형적인 광지리식토기에서 예외적인 토기이다. 기표면은 1.8cm 정도의 일정한 간격으로 목판누름 흔적이 보이며 목판누름을 한 면은 문지르기 수법 등으로 매끄럽게 처리하였다. 현재 저부편만 남아있어 알 수는 없으나 저부를 제작한 후에 점토를 덧붙여 깎아내고 매끄럽게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굽내부는 손누름흔이 일부 보이고 있어서 손으로 누르면서 굽을 성형한 것으로 보이며, 기내면은 날카로운 대나무칼 등의 도구로 바닥 내부를 손질하여 조잡하게 보인다.

길이 : 4.6 저부지름 : 5.4 두께 : 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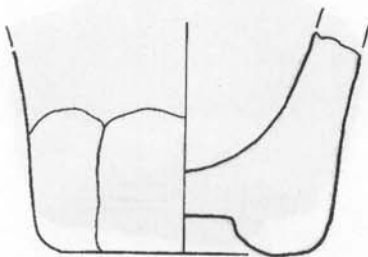


그림10. 광지리식 토기 저부



사진12. 광지리식 토기 저부

### 10) 팍지리식토기 저부

팍지리식토기 저부편으로 외면은 문지르기와 물손질 그리고 손누름수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외면은 물손질처리가 양호하여 비교적 매끄러운 편이나 내면은 매우 거친편으로 현무암알갱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저부와 동체부의 접합부에 손누름흔이 관찰되고 있어 접합후 손으로 누르면서 접합부의 돌출부를 정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고 : 4.7 추정저경 : 11.5 두께 : 1.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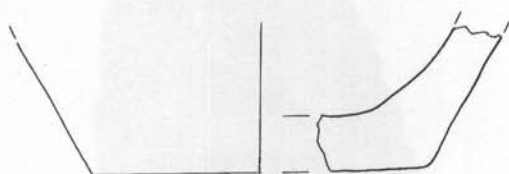


그림11. 팍지리식 토기 저부



사진13. 팍지리식 토기 저부

### 11) 팍지리식토기 저부

팍지리식토기 저부편으로 내외면 모두 태토가 매우 거칠고 외면은 비교적 가는 모래알갱이를 보강제로 사용하였으나 내면에서는 굵은 모래알갱이를 사용하였다. 내외면 모두 물손질과 빗질수법을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그리고 저부 바닥은 약간 고르지 못한 편이다. 내면은 암갈색조를 띠며 외면은 적갈색조를 띠고 있다.

잔존길이 : 4.6 추정저경 : 11.4 두께 : 1.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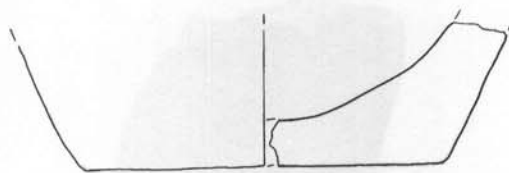


그림12. 팍지리식 토기 저부



사진14. 팍지리식 토기 저부

## 12) 광지리식토기 저부

광지리식토기 저부편으로 기외면 모두 깎기수법 및 문지르기 수법을 사용하였다. 손누름수법이 일부 보이며, 기내면은 Slip이 벗겨져서 관찰할 수가 없다. 아마도 지두흔과 빗질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길이 : 3.0 저부지름 : 21.4 두께 : 1.0~1.8



그림13. 광지리식 토기 저부

사진15. 광지리식 토기 저부

## 13) 광지리식토기 저부

광지리식토기 저부편으로 태토 내외면이 매우 거칠고 보강제로 쓰인 모래알갱이가 드러나 보인다. 저부내면과 바닥에서 손누름수법과 빗질흔이 일부 관찰되나, Slip이 대부분 벗겨져 있어서 기타 제작수법은 확인할 수가 없다.

현고 : 3.2 추정저경 :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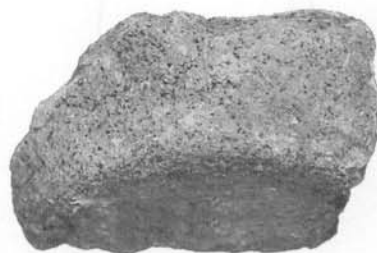


그림14. 광지리식 토기 저부

사진16. 광지리식 토기 저부

## 14) 원뿔형토기 저부

2071-2번지에서 수습된 원뿔형토기 저부편이다. 태토는 매우 거칠은 편이나 보강제로

쓰인 모래알갱이는 매우 자잘한 것이고 또한 세밀하게 형성되어 있다. 내면바닥은 손누름 수법이 관찰되며 외면은 정면수법이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Slip이 일부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Slip이 입혀져 있었으나 떨어져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저부의 밑부분은 일부가 파손·마모되어 있으나 원뿔형 토기의 저부인 뿔족밑 저부임을 추정할 수가 있다.

현고 : 4.5 추정저경 : 1.5cm내외 두께 : 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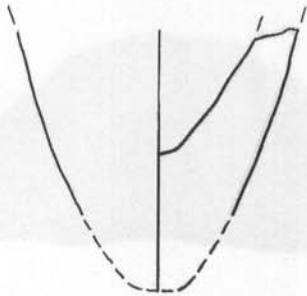


그림15. 원뿔형 토기

사진17. 원뿔형 토기

### 15) 홈돌

2041-1번지에서 수습된 현무암제 홈돌석기로 직경 3.2cm 가량의 홈이 1.0cm 깊이로 형성되어 있다. 비교적 정교하게 제작되었고, 마모상태로 보아서 사용흔적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쪽면 모두를 사용했으나 한쪽면을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장 : 14.9 단 : 1.0 두께 :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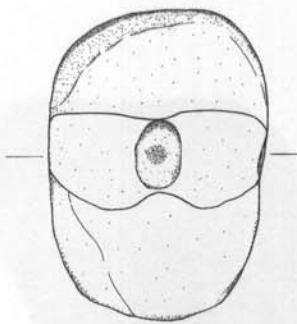


그림16. 홈돌

사진18. 홈돌

### 16) 공이석기

2041-1번지에서 수습된 현무암제 공이석기로 양쪽을 모두 사용한 흔적이 관찰된다. 약간 부정형이지만 손에 잡기에 적당한 크기여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제작한 것으로 보



인다.

장: 19.9 단 : 3.5 두께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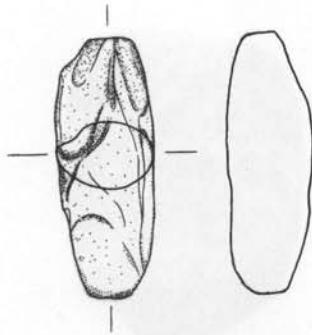


그림17. 공이석기



사진19. 공이석기

### 17) 공이석기

2048-1번지에서 수습된 공이석기로 한쪽면만을 타격면으로 사용하였다. V자형으로 심하게 마모되어 있어서 사용을 많이 한 것으로 보아진다. 넓은면의 한쪽은 평평하고 마모흔이 있어서 갈돌로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장 : 7.1 단 : 4.5 두께 :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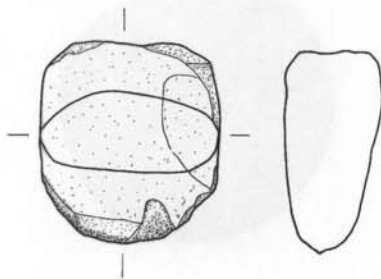


그림18. 공이석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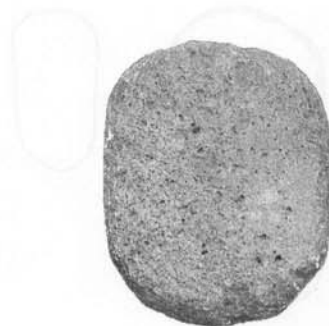


사진20. 공이석기

### 18) 부석

2043-1번지에서 수습된 석기로 어망추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매우 가볍고 한쪽면을 다듬은 흔적이 관찰된다.

이러한 석제품은 광지패총 5지구에서 다량이 출토되었으며 저울추로 사용되었을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장 : 7.6 단 : 5.8 두께 :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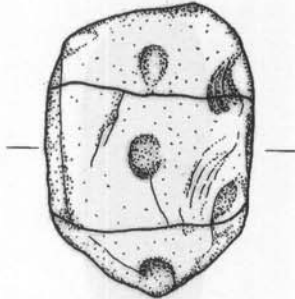


그림19. 부석



사진21. 부석

### 19) 원판형 석제품

2043-1번지에서 수습된 석기로 어로행위와 관련된 도구로 추정된다. 원판형의 현무암제 석기로 매우 가벼운 석제품이다. 양면과 측면을 모두 마연하여 제작되었다.

장 : 6.1 단 : 6.2 두께 :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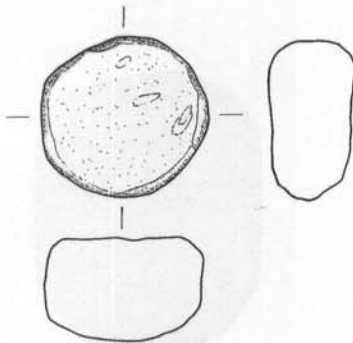


그림20. 원판형 석제품



사진22. 원판형 석제품

### 20) 공이석기

2043-1번지에서 수습된 현무암제 공이석기로 양쪽 모두에서 마모흔이 관찰된다. 마모흔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사용은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넓은면의 한쪽면은 평평하게 마연되어 있어서 역시 갈돌로도 사용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장 : 8.3 단 : 4.4 두께 :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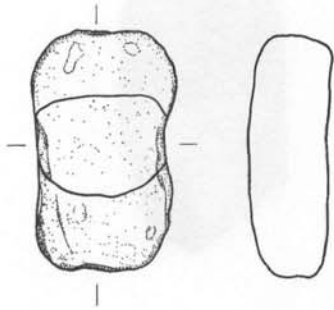


그림21. 공이석기



사진23. 공이석기

## 21) 숫돌

2043-1번지에서 수습된 화강암제의 숫돌편이다. 단면 사다리꼴 모양의 숫돌로 4면이 모두 마연되었고 마모의 정도로 보아서 사용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숫돌의 대부분이 파손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형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장 : 5.1 단 : 4.4 두께 :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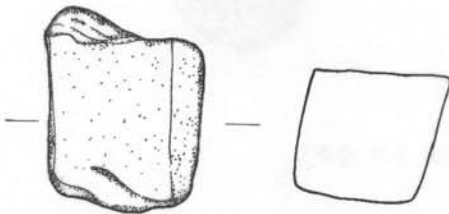


그림22. 숫돌



사진24. 숫돌

## 22) 숫돌

2043-1번지에서 수습된 숫돌로 한쪽면만을 정교하게 마연하였다. 한면만이 남아있고 다른면과 측면이 모두 파손되어 정확한 형태는 알 수가 없다. 현재의 잔존상태로 보아 장방형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모된 부분이 마모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아 빈번한 사용으로 인해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 : 7.8 단 : 5.0 두께 :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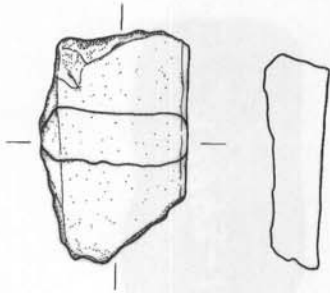


그림23. 솥돌



사진25. 솥돌

### 23) 토제 방추차

2041-1번지에서 수습된 토제방추차이다. 단면형태는 주판알 모양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일부분이 파손되어 있다. 태토가 약간 거칠은 편이며 굵은 모래알갱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지름 : 3.9 두께 : 2.1 구멍지름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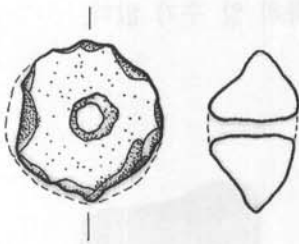


그림24. 토제 방추차



사진26. 토제 방추차

### 24) 토제 방추차

태토가 약간 거칠고 외면에 보강제로 사용한 굵은 모래알갱이가 일부 관찰된다. 한쪽면은 구멍주위가 불룩하게 돌출되어 있으나 다른 한쪽면은 평평하게 제작되었다.

지름 : 3.4 두께 : 0.3~1.1 구멍지름 :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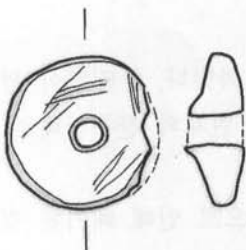


그림25. 토제 방추차



사진27. 토제 방추차



## 5. 고 찰

유적의 형성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지리적 여건 그리고 식용수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팍지패총과 금성패총의 경우 해안과의 거리간격과 모래층의 분포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郭支貝塚과 금성패총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유물의 집중분포 범위와 비분포범위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유물의 집중분포지역과 해안과의 거리, 유물 분포의 밀집도, 집중분포 지역의 상태등을 알 수가 있었다. 유물의 분포범위는 앞에서도 기술했듯이 A~D 등 급으로 분류하고 분포지역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팍지패총과 금성패총에 있어서 유물의 집중분포 지역은 대부분이 평지상의 대지에 위치하는데 평지중에서도 약간 둔턱이 있는 비교적 구릉상의 평지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것은 해안과의 거리가 약간 떨어져 있고 레벨상으로도 약간의 둔턱을 이루고 있어서 모래층의 퇴적이 적었고 또한 과오름과 해안과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퇴적된 토양(점토성분의 토양)이 적은 곳이나 모래가 많이 퇴적된곳, 그리고 비교적 레벨이 낮은 지역에는 유물분포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서 유적형성의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점은 이번 발굴과 지표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대체로 모래층이 퇴적된 지역에서는 유물의 밀집도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층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에서 알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본 발굴단의 발굴지역 뿐만이 아니라 본 발굴단과 동일한 토층상태를 보인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 내용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이것은 본 발굴단의 발굴조사 지역과의 직선거리상 대략 30m 안팎에 팍지패총 4·5·6·7지구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박물관의 조사지역의 경우 모래층이 확인되지 않았고 또한 유구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주는 좋은 증거일 것이다. 금번 지표조사에서는 지금까지 발굴조사된 팍지패총 1~7지구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대체로 발굴조사된 지역을 중심으로 유물이 밀집 분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Ⅲ. 調查經過

#### 1. 調查經過

조사지역은 지난 1996년 애월~신창간 국도 확장공사 구간내 지표조사에서 유물포함층이 확인되어 濟州大學校博物館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지역과 인접한 곳이다. 당시 발굴조사는 北濟州郡 涯月邑 錦城里 금성주유소 앞(일주도로 북편)에서 길이 60m 가량 되는 石築遺構가 조사되었는데, 당시 공사구간내에 대한 발굴조사로 석축의 전체규모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다만 築造時期와 그 성격을 일부 파악했을 뿐이다. 당시 이러한 석축유구뿐만 아니라 금성천주변에서 제사유구로 파악되는 유구 및 유물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발굴조사는 복제주군 애월읍 금성리 446-1번지에 해당되는데, 濟州史定立事業推進協議會에서 동 유적을 耽羅時代遺蹟으로 기존 發掘調査된 곳과 연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石築遺蹟의 범위와 그 성격을 규명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학술적 성격의 발굴조사를 우리박물관에 의뢰해 오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박물관에서는 1996년 애월~신창간 확장공사구간내 발굴조사에 제주대학교박물관 등 공동으로 참여한 바 있다.

발굴조사는 기존 석축유구방향을 따라 피트발굴을 위주로 조사하다가 패총을 비롯한 여러시기의 유구가 중복되어 확인됨에 따라 피트발굴을 중단하고 전면 확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기존의 석축시설의 연장선을 확인하는 선에서 1차발굴을 완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뚜렷한 석축유구는 확인되지 않고, 다른 주거유구, 적석유구, 패총 등이 확인되고,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어 연장조사가 불가피 하게 되었는데, 2차례에 걸쳐 연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기간 현장을 방문하여 주신 이청규교수(영남대 문화인류학과), 최몽룡교수(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유철인(제주대 박물관장), 고창석교수(제주대 사학과) 등 많은 분이 격려 및 자문하여 주었다.

##### • 조사기간

1997년 12월 27일 ~ 1998년 5월 6일

##### • 조사단구성

단장 : 양재박 (前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장) / 조사위원 : 이청규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고고학교수), 이영배(現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관장) / 조사원 : 강창화(문화재전문위원), 고재원(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연구원), 김창화(제주도문화재감정위원),

박찬식(제주대학교 강사), 김명철(제주도청 문화체육과) / 조사보조원: 오진영(제주도민 속자연사박물관), 양윤희(제주대학교 사학과 졸업), 오연숙(제주대학교박물관 연구조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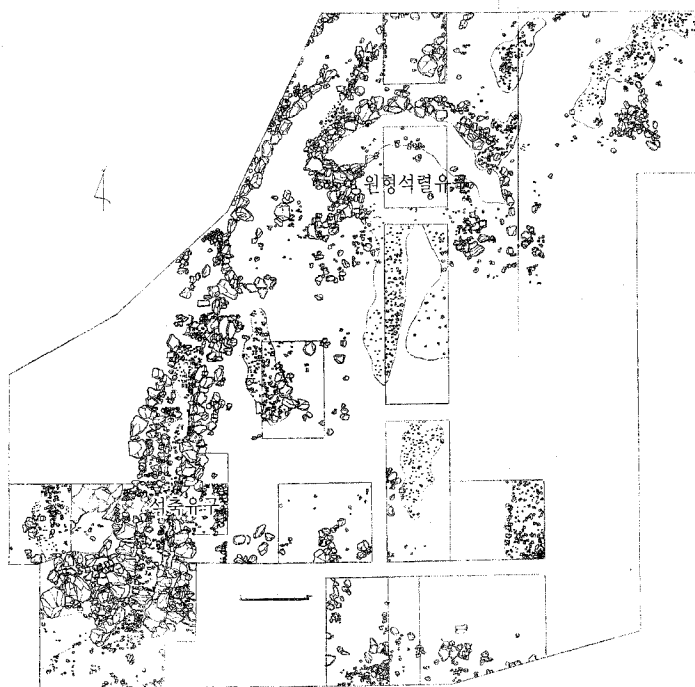
#### • 보고서작성

본 조사보고서의 원고는 원고 말미에 언급하였으며, 유구실측은 고재원, 오연숙, 양윤희, 유물실측과 도면정사는 오연숙, 이상미, 김효경, 이은영, 사진촬영은 고재원이 하였다.

## 2. 調 査 方 法

조사지역은 약 300여평 가량된다. 조사방법은 격자법에 의거 구획하고, 피트는 5x5m, 3x5m, 5x10m를 기준으로 두은 1m를 두고 조사하였다. 피트조사 과정에서 여러개의 유구가 중복 확인되어 확장조사가 불가피하여 과감히 기존 독을 제거하고 확장 조사하는 방식을 취했다. 한정된 조사지역으로 인해 유구가 중앙부와 북서편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나머지 지역은 일부 테스트피트 조사와 조사과정에서 나오는 다량의 토사를 쌓아 두었다.

조사과정에서 유구가 중복되거나, 시기를 달리하는 유구가 복합적으로 확인되므로 해서 좁은 공간내의 조사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유구의 세부조사 혹은 층위 확인을 위해 테스트 피트를 설정해 조사하였으며, 「가」, 「나」피트 등으로 피트명을 명명하였다.



삽도33. 1998년 발굴 금성리유적 상·하층유구배치도



## IV. 調查 內容

### 1. 層 位

조사지역내 층위는 크게 5개의 층위로 구분되며, 패충이 있는 서남편은 조금 다르다. 층위 두께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조사지역내의 층위구성은 거의 비슷하다. 북편의 층위「가」피트를 보면 다음과 같다.

I : 표토층 ; 5-10cm

II : 흑갈색 부식토층 ; 10-20cm 두께이며, 경작과 관련된 층위로 현무암 할석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 층위에서는 적갈색토기편과 부석유구(도로시설)가 확인되는데, 기와편 및 도자기편이 출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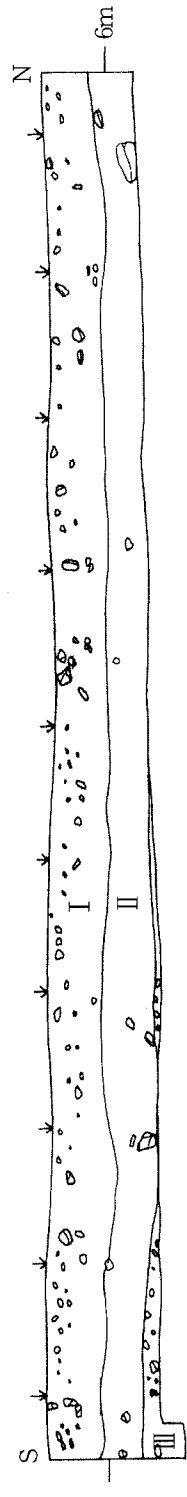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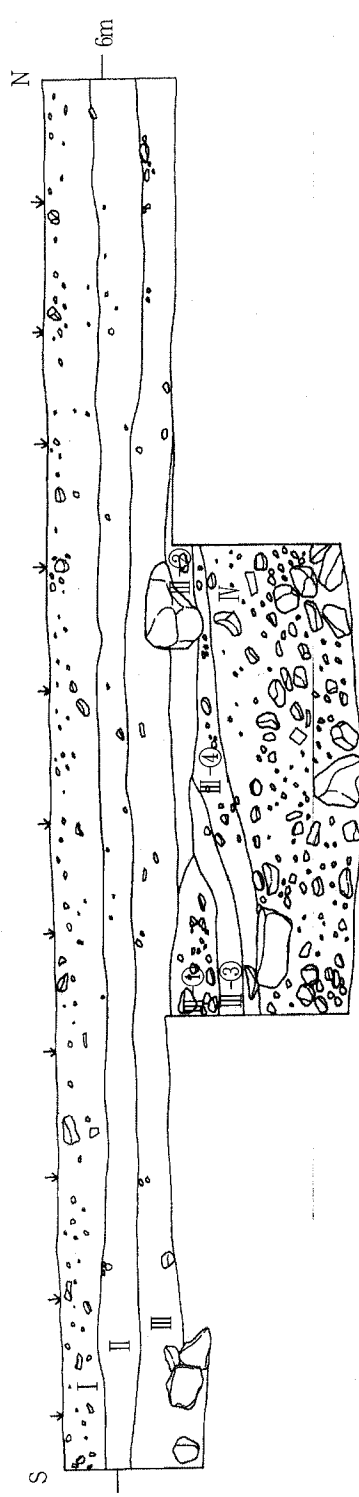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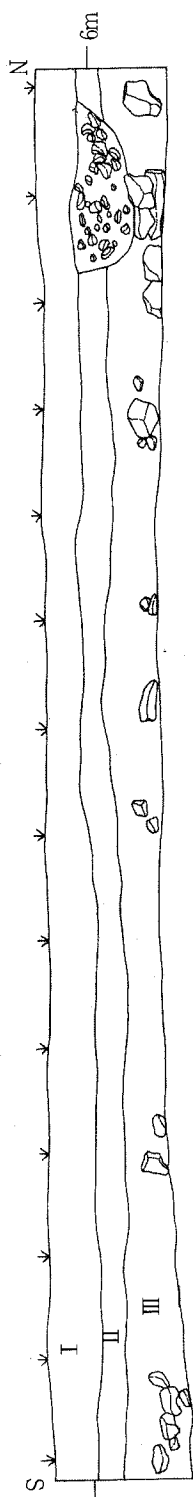
III : 흑갈색사질토층 ; 층위두께는 30-50cm 점성이 거의 없는 층위로 잔자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일부 소토다짐도 일부 확인된다. 유물이 포함된 층위이며, 문화층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발견되는 유구들이 있는 층위이기도 하다.

III-① : 자갈층, 10cm내외의 두께이며 잔자갈들이 집중적으로 산재해 있는 층위이다. 이 층위는 중앙부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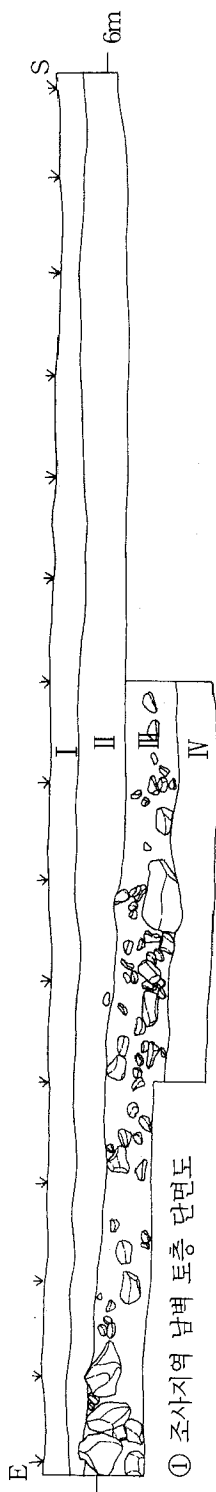
IV : 모래층 ; 흑색모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 원마도가 좋은 할석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모래의 존재는 금성천의 과거 유로면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보인다. 따라서 모래는 유수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알수 있는데, 이는 위층의 유구해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피트 내에서는 원형점토띠토기, 손잡이토기, 직립구연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유물들은 가장자리가 대부분 마모되어 있는데, 유수에 의해 휩쓸려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V : 암반층 ; 조사지역 서편에서 확인되는데, 암반 돌출부가 불규칙하지만, 마모되어 있는 양상이 확인되므로 위층의 모래층으로 보아 유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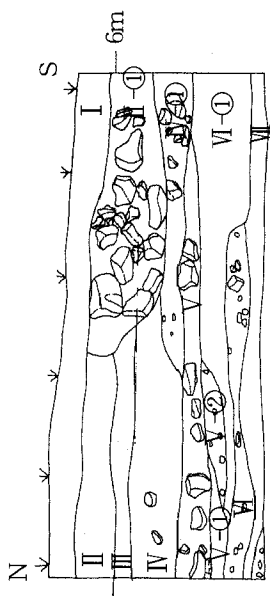


도면1 조사지역 북편 층위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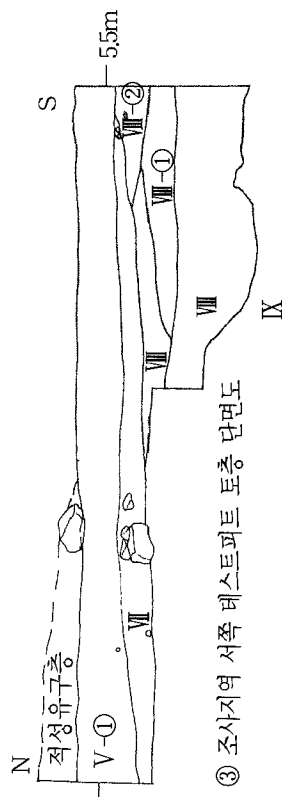
층위설명도

- I : 경작층
- II : 흑갈색 부식토
- III : 자갈층
- IV : 흑갈색 점질토층



② 조사지역 서쪽 테스트피트 토층 단면도

- ②·③ 층위설명
- I : 경작토
  - II : 흑갈색 부식토
  - III : 자갈층
  - IV : 흑갈색 부식토(자갈층)
  - V : 흑갈색 점질토층
  - VI : 자갈층
  - VII : 흑갈색 점토층
  - VIII : 모래층(자갈포함)
  - IX : 암반층



도면2. 조사지역 층위도

## 2. 遺構와 遺物

### (1) 圓形石列住居址

#### 1) 遺 構

이 유구는 조사지역 북편에 해당되며, 직경 7m가량 되는 반원형의 석렬 유구가 확인된다. 유구의 남쪽은 소토층이 확인되며, 석렬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원래는 원형의 석렬유구로 파악된다. 크기다 20-30cm가량 되는 잘 다듬은 현무암 석재 혹은 천석을 이용해 1열 혹은 2열로 적석되어 있으며, 일부 2단 가량 쌓인 흔적은 보이나, 대부분 1단밖에 남아 있지 않다.

이 유구내부 북편에 불에 탄 소토가 혼재되어 다져있는 양상이 확인된다. 유구내부의 동편과 서편 가장자리에 원형의 적석유구가 확인되는데, 적석틈새에서 토기, 석기, 토제품이 출토된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비교적 원형의 석렬이 일정하고, 유구 내부가 소토다짐이 되어 있으며, 생활공간과 관련된 시설·생활유물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아 지상가옥(원형돌담집)의 형태로 추정된다.

유구밖으로 동편에는 일부 적석유구(A-1)가 확인되는데, 석재는 천석으로 적석내부와 주변으로 불에 탄 소토가 폭1.5m의 불규칙한 원형으로 깔려져 있으며, 소토내에는 적갈색항아리형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야외노지로 여겨진다.

유구 서편에는 다음에 언급 할 석축시설물(B)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시설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 유구는 다음에 언급할 부석유구(D) 하면에 위치하고 있다.

### 2) 出土遺物

#### 가) 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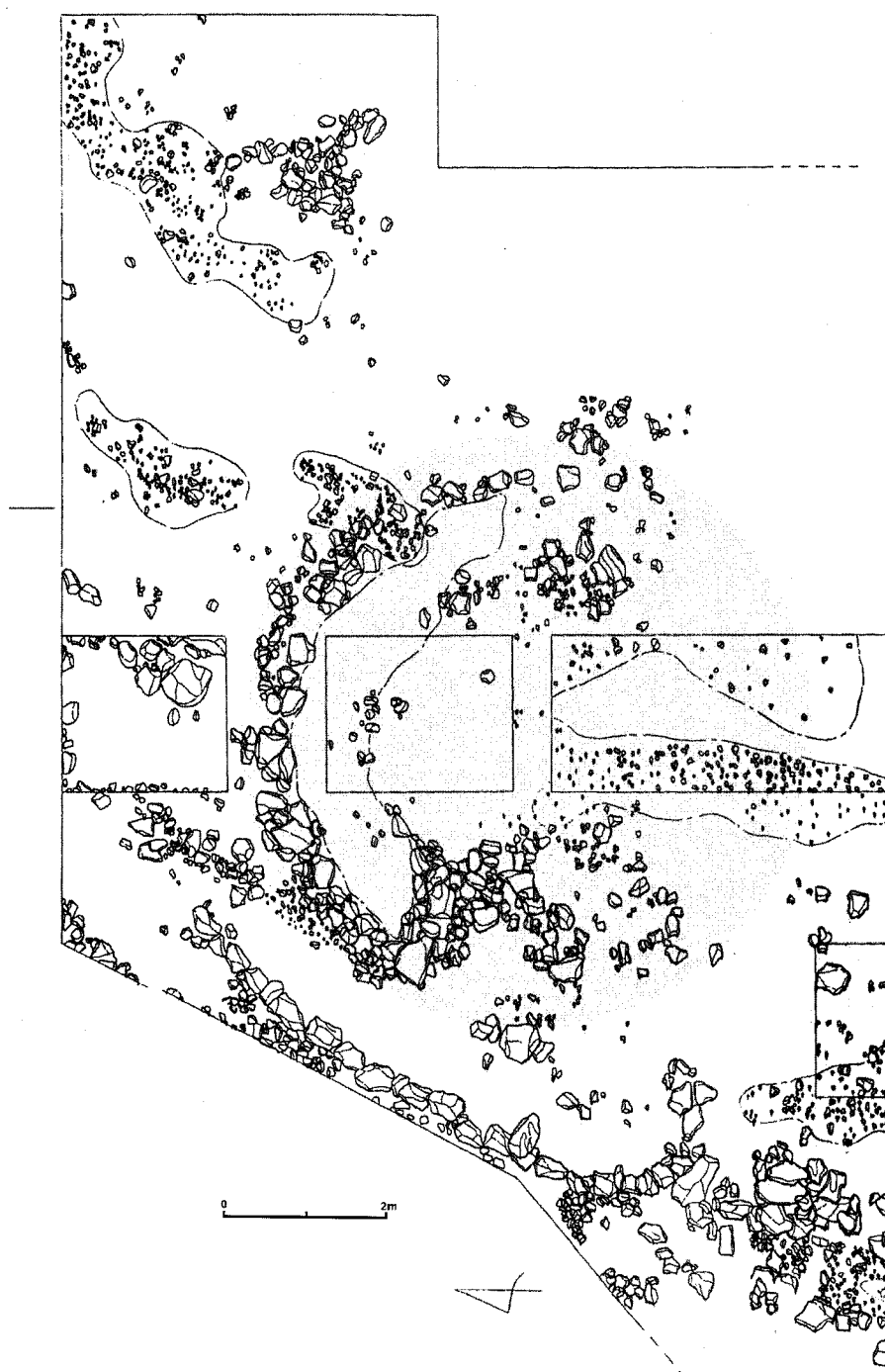
##### ① 적갈색토기구연부(도면8, 사진49)

유구 중앙부의 흑갈색사질토층에서 출토되었으며, 기형은 아가리가 넓은 직립구연토기로 파악된다. 토기내외면의 처리는 조잡하며, 기면처리를 위해 빗질흔, 목리흔, 그리고 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유관상 비교적 굵은 현무암알갱이를 보강제로 쓰여졌다. 이러한 태토의 토기는 광지패층에서 보이는 적갈색항아리형토기로 알려져 있다.

현재 높이 10.9cm, 구경 1.6cm, 두께 1.2cm

##### ② 적갈색토기구연부(도면9, 사진50)

기형은 구연부가 외반된 항아리형토기로 파악된다. 최대직경은 동체부 중앙에 형성되어 있으며, 동체부에서 구연부쪽으로 완만하게 꺾여 들어가다 구연부에서는 밖으로 심하게



도면3. 원형석렬주거지 유구



외반되고 있다. 토기내외면의 처리는 조잡하며, 기면처리를 위해 빗질흔, 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태토에는 유관상 비교적 굵은 현무암알갱이를 보강제로 쓰여졌다. 이러한 태토의 토기는 팍지패층에서 보이는 적갈색항아리형토기로 알려져 있다.

현재 높이 12.4cm, 구경 17.4cm, 두께 1.7cm

③ 적갈색토기 구연부 (도면10, 사진5-1)

구연부편으로 구연부의 형태로 보아 외반구연항아리형토기로 추정된다. 두께가 두터워 대형토기로 파악되며, 태토에는 유관상 비교적 굵은 현무암알갱이를 보강제로 쓰여졌다. 토기겉면에 손누름 및 빗질흔이 확인되며, 기면이 매끄럽다.

두께 2cm

④ 적갈색토기 저부(도면11, 사진5-2)

동체부에서 저부와 연결되는 부분에 두께가 얇아지면서 축약된 저부형태이다. 바닥은 중앙부에 약간 들림바닥형태이다. 토기내외면의 처리는 조잡하며, 기면처리를 위해 빗질흔, 목리흔, 손루름수법이 관찰된다. 태토에는 비교적 굵은 현무암알갱이를 보강제로 쓰여졌다.

현재 높이, 9.6cm 저경 7.6cm, 두께, 1.5cm

⑤ 적갈색토기 저부(도면12, 사진53)

동체부에서 저부와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축약된 저부형태이다. 토기내외면의 처리는 조잡하며, 토기외면에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긁어낸 흔적과 외면에는 목판누르기 흔적이 남아있다. 바닥은 두께가 다른저부에 비해 상당히 두터운 편이다. 태토에는 비교적 굵은 현무암알갱이를 보강제로 쓰여졌다.

현재 높이 5.5cm, 저경 7.3cm, 두께 3.6cm

⑥ 적갈색토기 저부(도면13, 사진54)

저부바닥이 들려있는 형태로 토기내외면의 빗질흔과 손누름흔적이 남아 있다. 표면처리는 조잡하며, 태토에는 비교적 굵은 현무암알갱이를 보강제로 쓰여졌다.

현재 높이 5.5cm, 저경 10.4cm, 두께 1.9cm

⑦ 적갈색토기 저부(도면14, 사진55)

저부에서 동체부로 연결되는 면이 일직선에 가깝다. 토기내외면의 빗질흔적이 남아 있다. 표면처리는 조잡하며, 태토에는 비교적 굵은 현무암알갱이를 보강제로 쓰여졌다.

현재 높이 4.4cm, 저경 8.6cm, 두께 1.2cm

⑧ 적갈색토기 저부(도면15, 사진5-6)

저부바닥은 평평하며, 각기수법으로 매끈하게 깎은 것으로 보인다. 표면처리는 조잡하며, 태토에는 비교적 굵은 현무암알갱이를 보강제로 쓰여졌다.

저경 13.2cm, 두께 1.6cm

#### ⑨ 적갈색토기 저부(도면16, 사진57)

바닥 가장자리에 턱이 형성되어 있어 바닥 가운데가 들려있는 형태다. 토기내외면에 빗질흔적이 확인된다.

현재 높이 4.1cm, 저경 7.8cm, 두께 1cm

#### ⑩ 적갈색토기 저부(도면17, 사진58)

바닥만 남아 있다. 토기 내외면 처리가 조잡하며, 상당히 거칠다. 태토에 현무암알갱이가 혼입되어 있다.

### 나) 토제품

#### ① 방추차(도면18, 사진59)

원형으로 가운데 지름 5mm가량의 원형구멍이 뚫려 있다. 가장자리에는 촘촘하게 각목되어 있으며, 가운데로 일렬의 줄이 그어져 있다.

지름 5.4cm, 두께 1.3cm

#### ② 방추차(도면19, 사진60)

주판알모양으로 가운데 지름 4mm가량의 원형구멍이 뚫려 있다.

지름 4cm, 두께 1.6cm

#### ③ 이형토기(도면20 사진61)

한쪽 가장자리만 남아있는 파손품이다. 비교적 두터우며, 단면이 사각형에 가깝다. 태토에 굵은 현무암알갱이가 혼입되어 있으며, 양쪽면이 반들거릴 정도로 매끈하다

두께 4.5cm

### 다) 石 器

#### ① 갈돌 (도면21, 사진62)

암질은 일반적인 제주도산 다공질현무암으로 만들어 졌다. 사용면은 장방형으로 갈려있으며, 단면은 반원형이다.

## (2) 石 築 施 設

### 1) 遺 構

유구의 조사지역 서편에 위치하며, 규모는 길이 18m, 폭80~100cm가량 되며, 유구방향은 남북방향으로 완만한 일직선에 가깝다. 북편에 이르러서는 반원형석렬유구(C, 동편유구)쪽으로 휘어지는 양상으로 곡선화 된다. 유구의 동편은 비교적 석재가 큰 것으로 3단 이상 정형성 있게 쌓여져 있고, 서편은 동편의 석재에 비해 비교적 작은 현무암석재가 쌓여 있으며 2단 내외로 동편에 비해 조잡하게 축조하였다. 유구 중앙부 동벽에서 천석으로 된 평평한 석재 3매가 3단으로 계단처럼 일정하게 쌓여 있다. 석재 상면은 마연된 것처럼 매끈하며, 하면에는 작은 할석(자갈)으로 고인 것처럼 흡과함께 채워져 있다. 유구 중앙부 북편 상면에는 나중에 언급할 후대의 도로시설물이 형성되어 있다.

석축상단에서 50~60cm가량 밑에는 목탄, 소토, 잔자갈, 적갈색항아리형토기가 혼재된 혼토층이 확인된다. 유구 남쪽과 북편에서 貨泉(A.D. 14-25년 주조) 각 1점씩 출토되었다. 유구내부의 층위구성으로 보아 장기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유구내부의 층위상황은 흑갈색사질토, 소토층, 모래층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부의 모래층은 流水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벽의 축조상태를 보면 하부는 비교적 소형의 할석 혹은 천석을 이용해 쌓았으나, 상부는 비교적 큰 현무암 할석을 이용해 쌓았다.

이 유구는 아마도 원형석렬주거지 유구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로 여겨지는데 이는 원형석렬쪽에서는 주거지쪽으로 휘어지는 양상을 하고 있으며, 원형주거지편에 계단과 같은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도 일부 추측할 수 있다.

석축유구는 남쪽의 패총에서 멈추고 있으며, 이 부근 서편으로는 적석유구와 연결되는데(B-1), 폭1.5m, 높이 1m가량의 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이 유구는 서편으로 계속 이어져 있으나, 마을도로가 있어 전체규모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 유구 하부로 패총Ⅱ가 형성되어 있다. 유구의 축조는 비교적 큰 할석을 이용해 조잡하게 쌓여 있으며, 상부는 비교적 작은 할석으로 채워져 있다. 이 유구는 석축유구보다 훨씬 늦은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언급 할 패총의 시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아울러 적석틈새에서 확인되는 유물은 대부분 적갈색심발형토기들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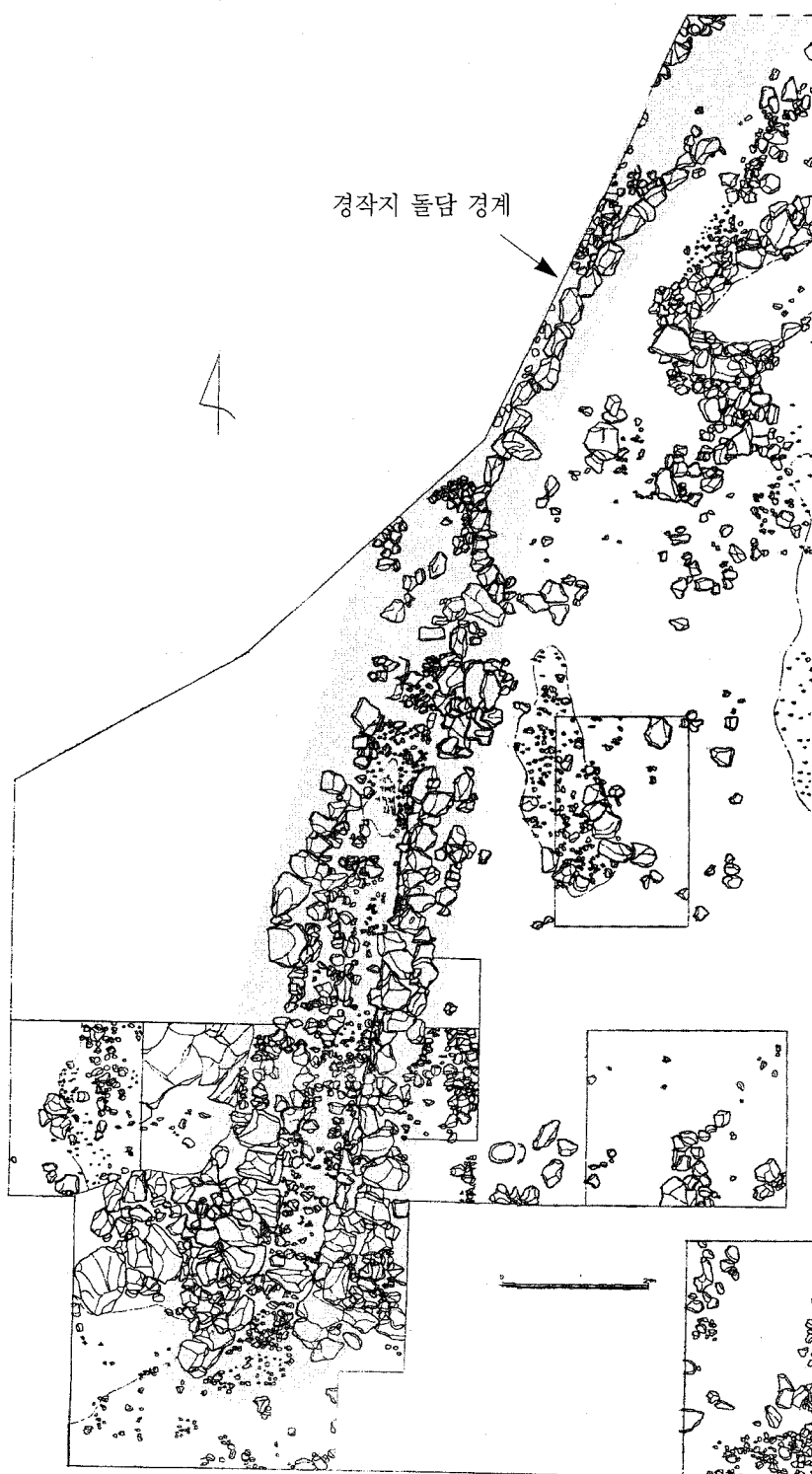
## 2) 出土遺物

### 가) 토기

#### ① 적갈색토기 구연부(도면22, 사진63)

토기내외면이 명갈색 색조를 띄며, 구연부 가가이에 돌대가 형성되어 있는 토기구연부편으로 전체 기형은 단경호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세립질 모래와 석영모래가 혼입되어 있어 제주도에서 만들어진것은 아닌것으로 판단된다.

구경 9.4cm, 두께 0.5cm



도면4. 원형석결주거지 유구

② 적갈색토기 저부(도면23, 사진64)

토기내외면에 빗질 및 손누름 흔적이 남아 있으며, 거칠다. 동체와 저부의 형태로 보아 소형 향아리토기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굵은 현무암 알갱이가 혼입되어 있다.

현재 높이 7cm, 저경 5.8cm, 두께 1cm

③ 적갈색토기 저부(도면24, 사진65)

토기내외면에 빗질흔적이 남아 있으며, 거칠다. 저부의 형태로 보아 대형 적갈색향아리토기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굵은 현무암 알갱이가 혼입되어 있다.

현재 높이 9.5cm, 저경 23.8cm, 두께 2.4cm

④ 적갈색토기 저부(도면25, 사진66)

토기내면 처리는 빗질흔적이 보이고, 바깥면은 목리흔, 빗질, 손누름 흔적이 남아 있으며, 표면은 거칠다. 저부의 형태로 보아 대형의 발형토기로 추정된다. 저부에서 동체로 연결되는 부분은 거의 직각에 가깝다. 태토에는 굵은 현무암 알갱이가 혼입되어 있다.

현재 높이 14.9cm, 저경 21.8cm, 두께 1.9cm

⑤ 적갈색토기 저부(도면26, 사진67)

토기내면 처리는 빗질과 손누름흔적이 보이고, 바깥면은 빗질 흔적이 남아 있으며, 거칠다. 저부의 형태로 보아 향아리형토기로 추정된다. 태토에는 굵은 현무암 알갱이가 혼입되어 있다.

현재 높이 5.9cm, 저경 6.3cm, 두께 1.9cm

⑥ 적갈색토기 저부(도면27, 사진68)

평저로 대형토기로 추정된다. 저부에서 동체부로 올라가는 면이 작각에 가깝다. 토기내외면에 빗질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높이 7cm, 저경 28.8cm, 두께 1.6cm

⑦ 적갈색토기 저부(도면28, 사진69)

호형토기의 저부편으로 적갈색조를 띄고 있다. 다소 굵은 현무암 알갱이와 석영알갱이가 태토 보강제로 혼입되어 있다. 토기의 내면에 검은 그으름 반점이 남아 있다. 바닥은 편평하게 처리되었으며, 바닥과 동체를 같이 만들어 데쌍기 방식으로 성형되었다. 토기의 내·외면에서 손누름흔, 빗질흔 등이 확인되며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매끄럽게 마무리 하였다.

현재 높이 10.5cm, 저경 9.0cm, 두께 1.0cm

나) 회색연질토기



① 항아리 구연부(도면29, 사진70)

동체부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침선문안에 승석문이 밀접하여 타날되어 있는 것으로 아가리가 외반된 항아리형 토기이다. 태토에는 석영이 포함되어 있으며, 두께도 얇고, 기벽이 무른 원삼국시대 연결계토기로 파악된다.

현재 높이 15.3cm, 구경 16.2cm, 두께 0.6cm

다) 토제품

① 방추차(도면30, 사진71)

주판알 모양(직경 2.9cm)에 가깝다.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② 이형토제품(도면31, 사진72)

불규칙한 사각형으로 파손된 상태다. 원래의 면이 남아 있는 곳을 보면 마연한 것처럼 매끈하다. 한쪽 가장자리가 손에 잡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다.

잔존길이 8.5cm, 잔존폭 4.4cm, 두께 4.5cm

라) 석기

① 갈돌(도면32, 사진73)

다공질현무암으로 제작되었으며, 한쪽면은 사용흔적이 있어 장방형으로 평평하다. 단면은 반원형으로 자연면이 그대로 남아 있다. 갈판과 한세트를 이루어 곡물 등을 가는용도의 것으로 파악된다.

길이 17.7cm, 폭 8.6cm, 두께 5.3cm

② 그물추(도면33, 사진74)

비교적 가벼운 다공질현무암으로 제작되었으며, 가운데 지름2.4cm의 구멍이 뚫여 있다. 전체형태는 길이가 폭보다 2배가량 큰 타원형이다.

길이 15.9cm, 폭 7.8cm, 두께 7.5cm

③ 그물추(도면34, 사진75)

비교적 가벼운 다공질현무암으로 제작되었으며, 가운데 지름0.5cm의 구멍이 뚫여 있다. 전체형태는 불규칙한 원형이다.

길이 15.9cm, 폭 7.8cm, 두께 7.5cm

마) 화 폐

유구 남쪽과 북편에서 중국 漢代 화폐인 貨泉(A.D. 14-23년 주조) 각 1점씩 출토되었다.

① 화천(도면35, 사진76)

‘화천’으로 주연부의 구분이 안될정도로 얇게 마연되어 있다. 좌우에 ‘화천’이 희미하게 나타나며 우측 하단에 구멍이 뚫려 있다.

크기 2.1cm, 두께 0.1cm

## ② 화천(도면36, 사진77)

‘화천’으로 상단부의 일부가 결실된 형태이다. 주연부와 좌우의 ‘화천’ 글씨가 뚜렷하게 남아 있으며, 상단부에 구멍이 뚫려 있다.

크기 2.1cm, 두께 0.2cm

## (3) 積石施設

### 1) 遺構

조사지역 남쪽에 해당되며, 패총 동편에 자리잡고 있다. 형태는 일정하지 않지만 중앙부분은 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다. 잔자갈과 현무암 할석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적석툼새에서 적갈색심발형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적석유구(A) 서편에 유물집중지(A-1유구)가 장타원형의형태로 길이6.5m, 폭 2~3m가량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자갈과 함께 동물뼈, 토기, 도기, 철기 등의 유물이 집중적으로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어 폐기장으로 여겨지는 유구다. 이 유구는 깊이 30-50cm 가량 되는데, 석축유구(B유구) 남쪽 상부에서 확인되며, 층위상 북편으로 급한 경사면으로 내려가는데, 서북편의 패총 아랫면으로 내려간다. 이 유구는 석축유구(B유구) 남쪽부분의 상면을 덮고 있다.

### 2) 出土遺物

이 유구에서 발견되는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 회청색도질토기, 철기류가 대부분이며, 특히 적갈색심발형토기(곽지2식)토기가 압도적으로 많은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유물은 유물집중지(A-1유구)에서 출토된 것들이다.

#### 가) 토기

##### ① 적갈색토기 구연부(도면37, 사진78)

구연부는 직립구연 형태이며, 대형 항아리토기로 파악된다. 토기내외면에 빗질흔적이 남아 있으며, 메끈하다.

현재 높이 8.4cm, 직경 42cm, 두께 1.7cm

##### ② 적갈색토기 구연부(도면38, 사진79)

구연부가 살짝 외반되어 있는 심발형토기로 파악된다. 구연상단 부분에 동체부와 접합

흔이 남아 있다. 토기내외면에 빗질흔적이 황으로 남아 있다.

현재 높이 5.2cm, 직경 13.2cm, 두께 0.8cm

③ 적갈색토기 구연부(도면39, 사진80)

아가리가 살짝 외반된 형태로 심발형토기로 파악된다. 최대직경은 동체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토기내면 처리는 빗질흔적과 손누름흔적이 남아 있으며, 겉면은 빗질흔적이 남아있다.

현재 높이 18.1cm, 직경 14.8cm, 두께 1.1cm

④ 적갈색토기 구연부(도면40, 사진81)

구연부가 거의 직립의 형태인 심발형토기로 판단된다. 토기내외면에 빗질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높이 5.2cm, 직경, 20cm, 두께 0.9cm

⑤ 적갈색토기 구연부(도면41, 사진82)

아가리가 살짝 외반된 심발형토기로 추정되며, 토기내외면에 빗질, 손누름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높이 11.4cm, 직경 10.8cm, 두께 0.8cm

⑥ 적갈색토기 구연부(도면42, 사진83)

아가리가 살짝 외반되어 직립구연 형태를 하고 있다. 토기내외면에 빗질 및 손누름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높이 5.2cm, 직경 20cm, 두께 0.9cm

⑦ 적갈색토기 구연부(도면43, 사진84)

아가리가 살짝 외반된 직립구연형태의 심발형토기로 여겨진다.. 토기내외면에 빗질 및 손누름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높이 10.5cm, 직경 9.8cm, 두께 0.9cm

⑧ 적갈색토기 구연부(도면44, 사진85)

아가리가 살짝 외반되어 심발형토기로 추정된다. 토기내면에는 빗질흔, 손누름,목리흔이 일부 남아 있고, 외면에는 구연부에 빗질흔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8.2cm, 직경 12.1cm, 두께 0.9cm

⑨ 적갈색토기 구연부(도면45, 사진86)

아가리가 살짝 외반된 심발형토기로 추정되며, 토기내외면에 빗질 및 손누름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높이 9.2cm, 직경 13.8cm, 두께 0.9cm

⑩ 적갈색토기 구연부(도면46, 사진87)



도면 원형석렬주거지 유구

아가리가 살짝 외반된 심발형토기로 추정되며, 동체부로 내려갈수록 직경이 넓어지고 있다. 토기내외면에 빗질 및 손누름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높이 8cm, 직경 12.2cm, 두께 1cm

⑪ 적갈색토기 구연부(도면47, 사진88)

아가리가 살짝 외반된 심발형토기로 추정되며, 토기내외면에 빗질 및 손누름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높이 7cm, 직경 10.8cm, 두께 1.3cm

⑫ 적갈색토기 저부(도면48, 사진89)

평저토기로 심발형토기로 추정된다. 토기내외면에 빗질흔과 손누름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높이 6.5cm, 직경 6.1cm, 두께 1.1cm

⑬ 적갈색토기 저부(도면49, 사진90)

평저이며 심발형토기로 추정된다. 비교적 두께가 두터우며, 저부에서 동체로 올라가는 양상이 거의 깃각에 가깝다. 토기내외면에 빗질흔과 손누름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높이 12.4cm, 직경 18cm, 두께 1.7cm

⑭ 적갈색토기 저부(도면50, 사진91)

평저이며 심발형토기로 추정된다. 저부에 턱이 형성되어 있다. 토기내면에 종으로 남아 있고, 토기 외면에는 목리흔이 관찰된다.

현재 높이 13.5cm, 직경 17.4cm, 두께 1.1cm

⑮ 적갈색토기 저부(도면51, 사진92)

평저이며 심발형토기로 추정된다. 토기내외면에 빗질흔과 손누름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높이 3.2cm, 직경 13.6cm, 두께 1.1cm

⑯ 적갈색토기 저부(도면52, 사진93)

평저이며 심발형토기로 추정된다. 토기내외면에 빗질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높이 7cm, 직경 15.4cm, 두께 1.7cm

⑰ 적갈색토기 저부(도면53, 사진94)

평저이며 심발형토기로 추정된다. 토기내면은 빗질흔과 손누름 흔적이 뽕뽕하게 남아 있으며, 겉면에는 빗질흔적이 남아있다.

현재 높이 5.6cm, 직경 11.4cm, 두께 0.9cm

⑱ 적갈색토기 저부(도면54, 사진95)

평저이며, 심발형토기로 추정되며, 동체부 상단에서 안쪽으로 끼여 있는 것으로 보아 소



형토기로 여겨진다. 저부와 동체부의 접합흔이 보이며, 토기내외면에 빗질흔적이 남아있다.

현재 높이 5.8cm, 저경 6.6cm, 두께 1.2cm

⑱ 적갈색토기 저부(도면55, 사진96)

평저이며 심발형토기로 추정된다. 저부에서 동체부로 연결되는 면이 직각에 가깝다. 토기 내외면에는 빗질흔과 손누름흔적이 남아있다.

현재 높이 6.4cm, 저경 11.2cm, 두께 1.3cm

⑳ 적갈색토기 저부(도면56, 사진97)

평저이며 심발형토기로 추정된다. 바닥은 거의 파손된 상태다. 토기 내외면에는 빗질흔과 손누름흔적이 남아있다.

현재 높이 6.9cm, 저경 12.2cm, 두께 0.8cm

나) 회색토기

회청색도질토기는 파편들로서 파상집선문, 승석문이 새겨진 것이 대부분이며, 기형은 항아리류가 다수를 점하고 있고 일부 반구병,광전병 등이다.

① 완(도면57, 사진98)

연질계 토기로 색조는 회색을 띤다. 구연부 외반되어 있으며, 동체부의 내외면에는 1cm 가량되는 홈줄이 횡으로 형성되어 물레를 사용해 제작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바닥은 원저에 가깝다.

높이 7.4cm, 직경 15cm, 두께 0.7cm

② 구연부(도면58, 사진99)

단경호의 구연부편으로 추정되며, 아가리가 살짝 외반되어 있다.

현재 높이 4cm, 직경 9.8cm, 두께 0.3cm

③ 구연부(도면59, 사진100)

장경병의 목부분으로 중앙에 2조의 홈이 둘러져 있으며, 어깨부분에 파상문형태의 문양이 남아 있다.

현재 높이 8.1cm, 두께 0.8cm

④ 저부(도면60, 사진101)

바닥이 2cm가량이 들려있는 형태로 색조는 회색에 가깝다.

현재 높이 5.2cm, 저경 9.6cm, 두께 0.8cm

⑤ 저부 (도면61, 사진102)

바닥이 1.3cm가량이 들려있는 형태로 색조는 회색에 가깝다. 그릇안쪽에 물레를 이용해

성형한 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높이 9.2cm, 저경 8.4cm, 두께 0.8cm

⑥ 동체부(도면62, 사진103)

동체부 상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상단에 한줄의 파상문이 시문되어져 있다.

동체두께 0.7cm

⑦ 완(도면63, 사진104)

외백색연질의 완편이며, 태토에 보강제로 다소 굵은 현무암 알갱이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비짐 상태가 고르지 못하다. 물레를 사용하여 성형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현재 높이 7.2cm, 구경 15.0cm, 두께 0.8cm

⑧ 동체부(도면64, 사진105)

병의 견부편이다. 외면은 암청색, 내면은 회청색, 속심은 암적색을 띠고 있고, 외면은 유약으로 광택이 있다. 2조의 평행침선대가 견부에서 동체부까지 연속적으로 음각되어 있고, 그 사이마다 파상침선문대가 시문되어 있다. 내면에 물레로 성형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두께 : 0.6cm

⑨ 저부(도면65, 사진106)

대호의 저부편으로 편평한 저부의 형태를 하고 있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청색조를 띠고 있다. 내·외면에서 회전흔과 손누름흔 등이 확인되며, 외면에서 두드러 성형한 흔적이 남아 있다. 기벽에 미세한 기공들이 형성되어 있고, 외면에 균열도 남아 있다.

현재 높이 10.7cm, 직경 22.2cm, 두께 1.1cm

⑩ 저부(도면66, 사진107)

소호의 저부편으로 편평한 저부이다. 색조는 내·외면 모두 회색조를 띠고 있다. 석영, 운모 등이 태토 보강제로 혼입되어 있고 기벽에 기공이 형성되어 있다. 외면의 동체부에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고, 내·외면에 거칠게 물손질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높이 3.6cm, 저경 15.2cm, 두께 1.0cm

⑪ 저부(도면67, 사진108)

소호의 저부편으로 편평한 저부이나 뒤틀려 다소 들린 상태이다. 색조는 내·외면 속심 모두 회청색조를 띠고 있고, 외면은 다소 광택이 있다. 기벽에는 크고 작은 기공들이 형성되어 있다. 내면에 물레로 성형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으며, 내·외면에서 물손질흔적이 확인된다.

현재 높이 8.0cm, 저경 7.3cm, 두께 0.7cm

다) 철기

철기는 철제도자가 출토되었는데, 길이 15cm내외의 소형의 칼이다.

① 철제도자(도면68, 사진109)

철제도자로서 전체적으로 형태가 잘 남아 있으나 부식이 심한 편이다. 평면형태는 일직선형이고 경부의 단면은 직사각형, 신부는 삼각형을 하고 있다.

전체 길이 14.5cm, 폭 1.3cm, 두께 0.3~0.5cm

② 철제편(도면69, 사진110)

소형의 철제품으로 부식이 심하고 결실부가 많아 정확한 모습은 알 수 없다. 전체적으로 살짝 굽어지는 형태를 하고 있다.

현재 길이 5.5cm, 폭 1cm, 두께 0.3~0.6cm

③ 철부(도면70, 사진111)

한쪽면에 날이 형성되어 있고 단면날이다. 자루부분에는 턱이 형성되어 있다.

길이 8.9cm, 폭 4cm, 두께 2.5cm

라) 석기

① 갈돌(도면71, 사진112)

다공질 현무암제 갈돌편이다. 단축 단면은 반원형이고, 전체적으로 잘 다듬어져 있다. 사용된 면은 한쪽면으로 마모되어 있다.

장 7.2cm, 단 7.5cm, 두께 4.6cm

② 갈돌(도면72, 사진113)

다공질 현무암제 갈돌이다. 단축 단면의 형태는 반원형이고 잘 다듬어져 있다. 사용되었던 한쪽면은 마모된 상태이다.

장 9.9cm, 단 7.8cm, 두께 3.6cm

③ 갈돌(도면73, 사진114)

다공질 현무암제 갈돌이다. 장축의 단면 형태는 장방형 단축의 단면형태는 반원형이다. 등면의 일부가 파손된 상태이며, 사용되었던 한쪽 면은 매끈하게 마모되어 있다.

장 10.3cm, 단 8.4cm, 두께 5.8cm

④ 흙돌(도면74, 사진115)

다공질 현무암제 흙돌이다. 등글납작하게 다듬은 현무암제 석재의 한쪽면에 흙을 파서 만들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원판형을 하고 있고, 흙의 길이는 약 1.2cm이다.

장 8.8cm, 단 8.7cm, 두께 3.9cm

(4) 貝塚

패총은 조사지역 서남편에 형성되어 있는데, 석축유구(B유구) 북편 밖으로 패각층이 형성되어 있다. 패각층의 범위는 비교적 소규모인데, 길이 5m, 폭 3m가량 된다. 패총구역 북편은 수도관 매설로 인해 패총자체가 전복된 교란층이 확인되고 있다. 패총의 범위는 작지만 다량의 인공유물과 자연유물이 확인된다. 패각층은 두께 40cm 가량의 황갈색점토층을 간층으로 하여 확연히 2개의 패각층으로 구분되는데, 상층(패총 I)의 패각층 두께는 50~60cm가량 두터운 반면, 하층은 패각층은 두께 20cm내외로 얇다.

## 1) 층위

I : 표토층으로 두께 15~20cm이며 경작층이다. II : 흑갈색부식토으로 두께 15~25cm 잔자갈이 포함된 부식토층으로 일부 유물이 기와, 도자기, 적갈색토기등이 출토되기는 하지만 경적과 관련된 층으로 파악된다. III : 패각층1으로 3개의 세부층으로 구분되는데, 이 패각층은 동쪽에 비해 서쪽이 비교적 두텁게 형성되어 있으며, 패각의 범위는 7×7m가량의 타원형 형태이다. III- ① : 두께 15~20cm동쪽으로 갈수록 층 두께가 두터워지고 있으며, 적갈색심발형토기, 철기, 중국제 도자기 등이 출토되고 있다. III- ② : 두께 10~40cm 서쪽으로 갈수록 층 두께가 두터워지고 있으며, 적갈색심발형토기, 회색도기 등이 출토되고 있다. III- ③ : 두께 15~25cm 수평층위에 가깝다. 적갈색심발형토기, 회색도기 등이 출토되고 있다. IV : 자갈층 - 두께 20~30cm 북동쪽의 적석유구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자갈무더기가 쌓여 있다. 이층은 동쪽편에 한정되어 있다. IV- ① : 두께 10cm 일부 소토가 포함된 층으로 서편 가장자리에서 일부 확인된다. V : 황갈색점토층 - 두께 15~35cm 2개의 층으로 구분되지만 점토가 단단하고 무른차이 이외에는 다른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다. 점성이 많은 층으로 적갈색심발형토기 완형개체가 출토되는 층위이다. VI : 자갈층으로 두께 10~20cm 갈색점토와 자갈이 집적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VII : 명갈색점토층으로 두께 40~50cm 위의 황갈색점토층과 같은 유물출토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층에서는 청동그릇인 청동바리가 출토되었다. VIII : 흑갈색점토층으로 두께 30~50cm 패총서편의 석축유구 서편의 적석유구적석벽에서 확인되는 층위로 패총 이외의 지역에서 확인되는 층위로 패총에서는 사라지고 있다. IX : 패각층2으로 두께 20cm,북서편에 한정적으로 확인된다. X : 자갈층석축유구의 남쪽 외부바닥 자갈층과 연결된다. 조사지역 북편과 서편의 층위 상황으로 보아 이 층밑에는 모래층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 2) 유 물

패총구역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하층(패각층2)에서 상층(패각층1)에 이르기까지 광지2식토기를 중심으로 다량 출토되며, 그밖에 회색도기, 철제품, 철동발, 석기 등이 확인된다. 패각층내에는 각종 패각류 뿐만 아니라 각종 동물뼈등도 다량 확인된다.

가) 토기

① 적갈색토기(도면75, 사진116)

패각층 I에서 출토되었으며, 도면복원이 가능한 완형으로 심발형이다. 최대직경은 동체 부상단에 있으며, 구연부가 조금 외반된 형태로 구연부 직경과 저부의 직경이 비슷하다. 저부는 약간 들려있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불균형을 이룬다. 표면처리는 끝이 날카로운 예새같은 도구로 구연부분에 횡으로 그어져 있다. 이는 물레를 이용해 전면처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체부 표면처리는 빗질과 목리흔이 종으로 남아 있으며, 저부의 표면처리 빗질흔과 손누름 흔적이 남아 있다. 기표면은 매끈하며, 물손질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높이 20.8cm, 직경 11.7cm, 저경 12cm, 최대직경 15cm, 두께 0.7cm

② 적갈색토기(도면76, 사진117)

패각층 I에서 출토되었으며, 도면복원이 가능한 완형으로 심발형이다. 최대직경은 동체 부 중앙에 있으며, 동체부에서 구연부쪽으로 기울어지다가 구연부에서 직립하는 형태를 하고 있으며, 저부직경이 구연부직경보다 조금 넓다. 저부는 가장자리에 턱이 형성되어 약간 들려있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다. 표면처리는 끝이 날카로운 예새같은 도구로 구연부분에 횡으로 그어져 있다. 이는 물레를 이용해 정면처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체부 표면처리는 빗질과 목리흔이 종으로 남아 있으며, 저부의 표면처리는 빗질흔이 횡으로 나타나 있으며, 손누름 흔적이 남아 있다. 기표면은 매끈하며, 물손질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높이 23.3cm, 직경 11.9cm, 저경 14cm, 최대직경 16.4cm, 두께 0.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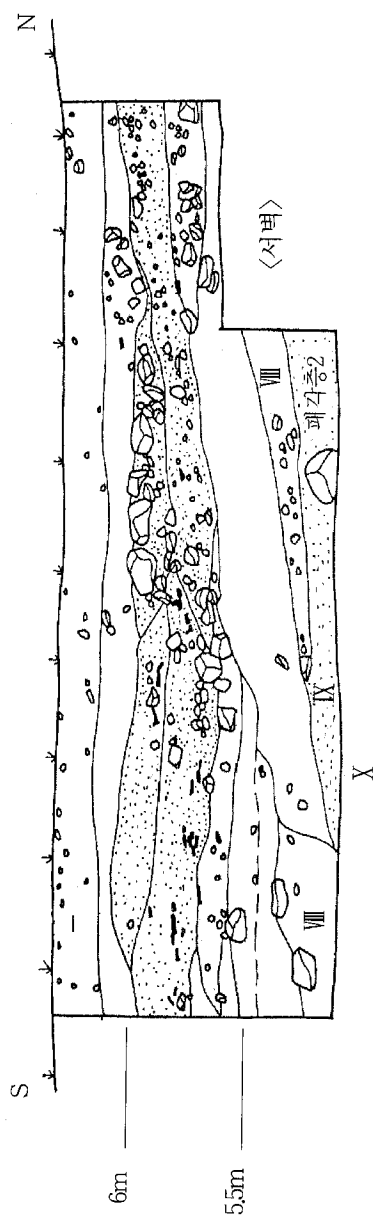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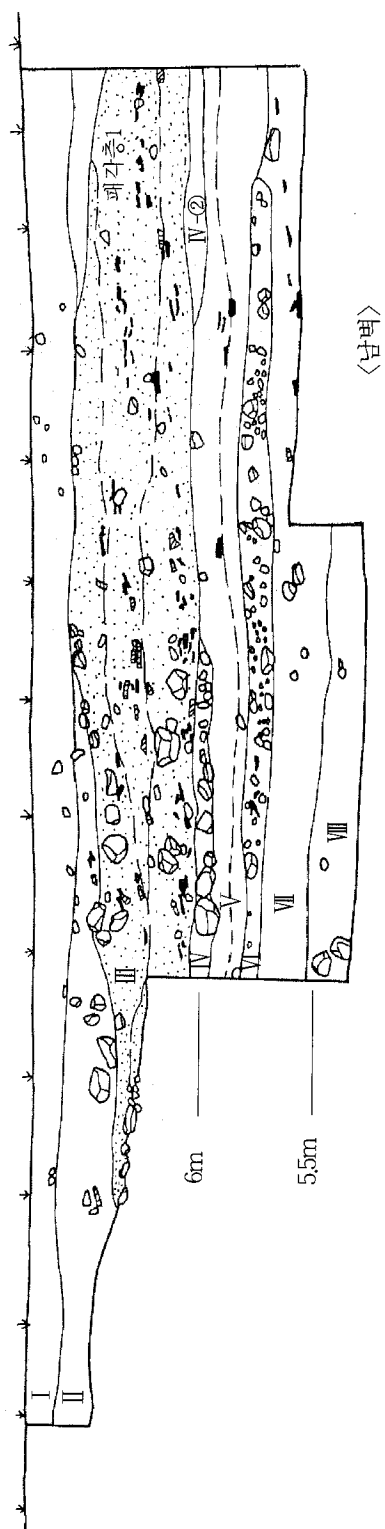
③ 적갈색토기(도면77, 사진118)

패각층 I에서 출토되었으며, 거의 완형인 심발형토기이다. 최대직경은 동체부 중앙에 있으며, 동체부 상단에서 구연부쪽으로 기울어지다가 구연부에서 살짝 외반하는 형태를 하고 있으며, 저부직경이 구연부직경보다 넓다. 표면처리는 끝이 날카로운 예새같은 도구로 구연부분에 횡으로 그어져 있다. 이는 물레를 이용해 정면처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체부 표면처리는 빗질과 목리흔이 종으로 남아 있으며, 저부의 표면처리는 빗질흔이 횡으로 나타나 있다. 기표면은 매끈하며, 물손질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높이 19.9cm, 직경 10.4cm, 저경 12.8cm, 최대직경 15.7cm, 두께 0.8cm

④ 적갈색토기(도면78, 사진119)

패각층 I에서 출토되었으며, 거의 완형인 심발형토기이다. 최대직경은 동체부 중앙에 있으며, 동체부 상단에서 구연부쪽으로 기울어지다가 구연부에서 살짝 외반하는 형태로 배부른 심발형토기이며, 저부직경이 구연부직경보다 넓다. 표면처리는 끝이 날카로운 예새



도면6. 패각 층위도



같은 도구로 구연부분에 황으로 그어져 있다. 이는 물레를 이용해 정면처리를 하였음을 알수 있다. 동체부 표면처리는 빗질과 목리흔이 종으로 남아 있으며, 저부의 표면처리는 빗질흔이 황으로 나타나 있다. 기표면은 매끈하며, 물손질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높이 24.9cm, 직경 13.6cm, 저경 15.8cm, 최대직경 21.7cm, 두께 0.8cm

#### ⑤ 적갈색토기(도면79, 사진120)

패각층 I 에서 출토되었으며, 거의 완형인 심발형토기이다. 최대직경은 동체부 중앙에 있으며, 동체부 상단에서 구연부쪽으로 기울어지다가 구연부에서 살짝 외반하는 형태로 배부른 심발형토기이며, 저부직경이 구연부직경보다 넓다. 표면처리는 끝이 날카로운 예새같은 도구로 구연부분에 황으로 그어져 있다. 이는 물레를 이용해 정면처리를 하였음을 알수 있다. 동체부 표면처리는 빗질과 목리흔이 종으로 남아 있으며, 저부의 표면처리는 빗질흔이 황으로 나타나 있으며, 손누름 흔적이 남아있다. 기표면은 매끈하며, 물손질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높이 25.6cm, 직경 11.5cm, 저경 12.8cm, 최대직경 17.4cm, 두께 0.7cm

#### ⑥ 적갈색토기(도면80, 사진121)

패각층 I 에서 출토되었으며, 거의 완형으로 저분부분이 파손된 상태인 심발형토기이다. 최대직경은 동체부 중앙에 있으며, 동체부 상단에서 구연부쪽으로 기울어지다가 구연부에서 살짝 외반하는 형태로 저부직경과 구연부직경이 비슷하다. 표면처리는 끝이 날카로운 예새같은 도구로 구연부분에 황으로 그어져 있다. 이는 물레를 이용해 정면처리를 하였음을 알수 있다. 동체부 표면처리는 손누름, 빗질과 목리흔이 종으로 남아 있으며, 저부의 표면처리는 빗질흔이 황으로 나타나 있으며, 손누름 흔적이 남아있다.

높이 21.4cm, 직경 11.7cm, 저경 12.2cm, 최대직경 15.3cm, 두께 0.9cm

#### ⑦ 적갈색토기(도면81, 사진122)

패각층 I 에서 출토되었으며, 거의 완형인 심발형토기이다. 최대직경은 동체부 중앙에 있으며, 동체부 상단에서 구연부쪽으로 기울어지다가 구연부에서 살짝 외반하는 형태로 저부직경이 구연부직경보다 약간 넓다. 표면처리는 끝이 날카로운 예새같은 도구로 구연부분에 황으로 그어져 있다. 이는 물레를 이용해 정면처리를 하였음을 알수 있다. 동체부 표면처리는 빗질과 목리흔이 종으로 남아 있으며, 저부의 표면처리는 빗질흔이 황으로 나타나 있으며, 손누름 흔적이 남아있다.

높이 27cm, 직경 14.6cm, 저경 16cm, 최대직경 19.7cm, 두께 0.8cm

#### ⑧ 적갈색토기(도면82, 사진123)

패각층 I 에서 출토되었으며, 거의 완형인 심발형토기이다. 최대직경은 동체부 중앙에 있

으며, 동체부 상단에서 구연부쪽으로 기울어지다가 구연부에서 살짝 외반하는 형태로 저부직경과 구연부직경이 비슷하다. 표면처리는 끝이 날카로운 예새같은 도구로 구연부분에 횡으로 그어져 있다. 이는 물레를 이용해 정면처리를 하였음을 알수 있다. 동체부 표면처리는 빗질과 목리흔이 종으로 남아 있으며, 저부의 표면처리는 빗질흔이 횡으로 나타나 있다.

높이 15.1cm, 직경 12.3cm, 저경 12.6cm, 최대직경 14.7cm, 두께 0.8cm

⑨ 적갈색토기(도면83, 사진124)

패각층 I에서 출토되었으며, 저부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심발형토기로 추정된다. 최대직경은 동체부 중앙에 있으며, 동체부 상단에서 구연부쪽으로 기울어지다가 구연부에서 살짝 외반하는 형태다. 표면처리는 끝이 날카로운 예새같은 도구로 구연부분에 횡으로 그어져 있다. 이는 물레를 이용해 정면처리를 하였음을 알수 있다. 동체부 표면처리는 빗질과 목리흔이 종으로 남아 있다.

현재 높이 17.6cm, 직경 11.8cm, 최대직경 16.7cm, 두께 0.7cm

⑩ 적갈색토기(도면84, 사진125)

심발형 토기 완형으로 약 1/3 가량이 파손된 상태이다. 전체적으로 황갈색조를 띄고 있으며, 외면에 부분적으로 그으름 자국이 남아 있다. 미세한 현무암 알갱이가 태토 보강제로 혼입되어 있다. 편평한 바닥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데쌍기 방식으로 동체를 올리는 방식으로 성형되었다. 토기의 내면에서 손누름흔, 대칼흔, 빗질흔 등이 확인되며, 구경부에 경부를 축약시키면서 생긴 주름흔적이 남아 있다. 외면에도 손누름흔, 대칼흔이 남아 있으며, 구경부에는 예새로 가로방향으로 돌려 깎은 흔적이 남아 있다. 전체적으로 물손질로 마무리 되어 있다.

저경 13.2cm, 구경 11.0cm, 높이 21.2cm, 두께 0.8cm

⑪ 적갈색토기(도면85, 사진126)

황갈색토층에서 출토되었으며, 거의 완형으로 심발형토기이다. 최대직경은 동체부 중앙에 있으며, 구연부가 조금 외반된 형태로 구연부 직경과 저부의 직경이 비슷하다. 저부는 약간 들려있는 형태다. 표면처리는 끝이 날카로운 예새같은 도구로 구연부분에 횡으로 그어져 있다. 이는 물레를 이용해 전면처리를 하였음을 알수 있다. 동체부 표면처리는 빗질과 목리흔이 종으로 남아 있으며, 저부의 표면처리 빗질흔과 손누름 흔적이 남아 있다. 기표면은 매끈하며, 물손질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높이 26.8cm, 직경 16.6cm, 저경 17cm, 최대직경 20.8cm, 두께 0.8cm

⑫ 적갈색토기(도면86, 사진127)

황갈색토층에서 출토되었으며, 도면복원이 가능한 완형으로 발형토기이다. 최대직경은 동체부 중앙에 있으며, 구연부는 직립형태로 구연부 직경이 저부 직경보다 넓다. 표면처리는 끝이 날카로운 예새같은 도구로 구연부분에 횡으로 그어져 있다. 이는 물레를 이용해 전면처리를 하였음을 알수 있다. 동체부 표면처리는 빗질과 목리흔이 종으로 남아 있으며, 저부의 표면처리 빗질흔과 손누름 흔적이 남아 있다. 기표면은 매끈하며, 물손질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높이 19.2cm, 직경 17.8cm, 저경 15.4cm, 최대직경 19.5cm, 두께 0.8cm

⑬ 적갈색토기(도면87, 사진128)

황갈색토층에서 출토되었으며, 완형으로 심발형토기이다. 최대직경은 동체부 중앙에 있으며, 구연부는 안쪽으로 내만된 형태로 구연부 직경이 저부 직경보다 좁다. 표면처리는 끝이 날카로운 예새같은 도구로 구연부분에 횡으로 그어져 있다. 이는 물레를 이용해 전면처리를 하였음을 알수 있다. 동체부 표면처리는 빗질과 목리흔이 종으로 남아 있으며, 저부의 표면처리 빗질흔과 손누름 흔적이 남아 있다. 기표면은 매끈하며, 물손질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높이 23.7cm, 직경 11.5cm, 저경 13.9cm, 최대직경 17.8cm, 두께 1cm

⑭ 적갈색토기(도면88, 사진129)

황갈색토층에서 출토되었으며, 완형으로 심발형토기이다. 최대직경은 동체부 중앙에 있으며, 구연부는 직립 형태로 구연부 직경과 저부 직경이 거의 비슷하다. 저부는 가장자리에 약간의 턱이 형성되어 있어 들려 있는 형태다. 표면처리는 끝이 날카로운 예새같은 도구로 구연부분에 횡으로 그어져 있다. 이는 물레를 이용해 전면처리를 하였음을 알수 있다. 동체부 표면처리는 빗질흔이 종으로 남아 있으며, 저부의 표면처리는 빗질흔과 손누름 흔적이 남아 있다. 기표면은 매끈하며, 물손질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높이 22.5cm, 직경 12.3cm, 저경 13.6cm, 최대직경 15.8cm, 두께 0.7cm

⑮ 적갈색토기(도면89, 사진130)

황갈색토층에서 출토되었으며, 완형으로 심발형토기이다. 최대직경은 동체부 중앙에 있으며, 구연부는 살짝 외반되어 있으며, 구연부 직경보다 저부 직경이 넓은 배부른 형태다. 표면처리는 끝이 날카로운 예새같은 도구로 구연부분에 횡으로 그어져 있다. 이는 물레를 이용해 전면처리를 하였음을 알수 있다. 동체부 표면처리는 목리흔과 빗질흔이 종으로 남아 있으며, 손누름흔적이 남아 있다. 저부의 표면처리는 빗질흔과 손누름 흔적이 남아 있다. 기표면은 매끈하며, 물손질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높이 22.6cm, 직경 13.8cm, 저경 16.5cm, 최대직경 18.8cm, 두께 0.7cm

## ⑯ 적갈색토기(도면90, 사진131)

황갈색토층에서 출토되었으며, 완형으로 심발형토기이다. 최대직경은 동체부 중앙에 있으며, 구연부는 아가리가 살짝 외반되어 있으며, 구연부 직경보다 저부 직경이 넓은 배부른 형태다. 표면처리는 끝이 날카로운 예새같은 도구로 구연부분에 종과 횡으로 그어져 있다. 이는 물레를 이용해 전면처리를 하였음을 알수 있다. 동체부 표면처리는 목리흔과 빗질흔이 종으로 남아 있으며, 손누름흔적이 남아 있다. 저부의 표면처리는 빗질흔과 손누름 흔적이 남아 있다. 기표면은 매끈하며, 물손질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높이 17.4cm, 직경 11.3cm, 저경 13.7cm, 최대직경 14.9cm, 두께 0.8cm

## ⑰ 적갈색토기(도면91, 사진132)

황갈색토층에서 출토되었으며, 도면복원이 가능한 완형으로 심발형토기이다. 최대직경은 동체부 중앙에 있으며, 구연부는 아가리가 살짝 외반되어 있으며, 구연부 직경보다 저부 직경이 조금 넓은 형태다. 표면처리는 끝이 날카로운 예새같은 도구로 구연부분에 횡으로 그어져 있다. 이는 물레를 이용해 전면처리를 하였음을 알수 있다. 동체부 표면처리는 빗질흔이 종으로 남아 있으며, 손누름흔적이 남아 있다. 저부의 표면처리는 빗질흔과 손누름 흔적이 남아 있다. 기표면은 매끈하며, 물손질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높이 27.4cm, 직경 12.6cm, 저경 14cm, 최대직경 17.6cm, 두께 0.8cm

## ⑱ 적갈색토기(도면92, 사진133)

황갈색토층에서 출토되었으며, 완형으로 심발형토기이다. 최대직경은 동체부 중앙에 있으며, 동체상단에서 구연부쪽으로 완만하게 내만된 구연부형태다. 구연부 직경보다 저부 직경이 넓다. 표면처리는 끝이 날카로운 예새같은 도구로 구연부분에 횡으로 그어져 있다. 이는 물레를 이용해 전면처리를 하였음을 알수 있다. 동체부 표면처리는 목리흔과 빗질흔이 종으로 남아 있으며, 손누름흔적이 남아 있다. 저부의 표면처리는 빗질흔이 남아 있다. 기표면은 매끈하며, 물손질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높이 22.3cm, 직경 12cm, 저경 14.8cm, 최대직경 17.7cm, 두께 0.8cm

## ⑲ 적갈색토기(도면93, 사진134)

황갈색토층에서 출토되었으며, 저부가 일부 파손된 완형으로 심발형토기이다. 최대직경은 동체부 중앙에 있으며, 구연부는 동체상단에 아가리쪽으로 내만된 형태다. 구연부 직경보다 저부 직경이 넓은 형태다. 표면처리는 끝이 날카로운 예새같은 도구로 구연부분에 종과 횡으로 그어져 있다. 이는 물레를 이용해 전면처리를 하였음을 알수 있다. 동체부 표면처리는 빗질흔과 손누름흔적이 종으로 남아 있다. 저부의 표면처리는 빗질흔과 손누름 흔적이 횡으로 남아 있다. 기표면은 매끈하며, 물손질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높이 20.4cm, 직경 9.9cm, 저경 12.6cm, 최대직경 14.5cm, 두께 0.8cm

㉔ 적갈색토기(도면94, 사진135)

황갈색토층에서 출토되었으며, 저부가 파손된 것으로 심발형토기로 추정된다. 최대직경은 동체부 중앙에 있으며, 구연부는 아가리가 살짝 외반되어 있다. 표면처리는 끝이 날카로운 예새같은 도구로 구연부분에 횡으로 그어져 있으며 일부 목리흔도 남아 있다. 이는 물레를 이용해 전면처리를 하였음을 알수 있다. 동체부 표면처리는 목리흔, 빗질흔, 손누름흔적이 종으로 남아 있다. 기표면은 매끈하며, 물손질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높이 17cm, 직경 10.6cm, 최대직경 15.3cm, 두께 0.7cm

㉕ 적갈색토기(도면95, 사진136)

황갈색토층에서 출토되었으며, 저부가 파손된 것으로 심발형토기로 추정된다. 최대직경은 동체부 중앙에 있으며, 동체상단에서 구연부쪽으로 꺾이다가 아리부분에서 살짝 외반되어 있다. 표면처리는 끝이 날카로운 예새같은 도구로 구연부분에 횡으로 그어져 있다. 이는 물레를 이용해 전면처리를 하였음을 알수 있다. 동체부 표면처리는 목리흔, 빗질흔, 횡과 종으로 남아 있다. 기표면은 매끈하며, 물손질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높이 17cm, 직경 10.6cm, 최대직경 15.3cm, 두께 0.7cm

㉖ 적갈색토기(도면96, 사진137)

황갈색토층에서 출토되었으며, 저부가 파손된 것으로 심발형토기로 추정된다. 최대직경은 동체부 중앙에 있으며, 구연부는 살짝 외반되어 있다. 표면처리는 끝이 날카로운 예새같은 도구로 구연부분에 횡으로 그어져 있다. 이는 물레를 이용해 전면처리를 하였음을 알수 있다. 동체부 표면처리는 목리흔, 빗질흔, 손누름흔적이 종으로 남아 있다. 기표면은 매끈하며, 물손질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높이 18.9cm, 직경 12.8cm, 최대직경 18.2cm, 두께 0.75cm

㉗ 적갈색토기(도면97, 사진138)

황갈색토층에서 출토되었으며, 저부의 바닥이 파손된 심발형토기이다. 최대직경은 동체부 중앙에 있으며, 구연부는 아가리가 살짝 외반되어 있으며, 구연부 직경과 저부 직경이 거의 비슷하다. 표면처리는 끝이 날카로운 예새같은 도구로 구연부분에 횡으로 그어져 있다. 이는 물레를 이용해 전면처리를 하였음을 알수 있다. 동체부 표면처리는 목리흔과 빗질흔이 종으로 남아 있다. 저부의 표면처리는 빗질흔적이 남아 있다. 파손된 저부는 토기 성형과정을 살펴 볼수 있는데 바닥부분과 동체부분은 따로 만들어 접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표면은 매끈하며, 물손질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높이 26.2cm, 직경 12cm, 저경 12.6cm, 최대직경 17.8cm, 두께 0.9cm

## ㉔ 적갈색토기(도면98, 사진139)

황갈색토층에서 출토되었으며, 아가리가 한쪽으로 기울진 형태의 심발형토기이다. 최대 직경은 동체부 중앙에 있으며, 구연부는 아가리가 살짝 외반되어 있으며, 구연부 직경이 저부 직경보다 넓다. 표면처리는 끝이 날카로운 예새같은 도구로 구연부분에 횡으로 그어져 있다. 이는 물레를 이용해 전면처리를 하였음을 알수 있다. 동체부 표면처리는 손누름과 빗질흔이 중으로 남아 있으며, 저부의 표면처리는 빗질흔과 손누름 흔적이 횡으로 남아 있다. 기표면은 매끈하며, 물손질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높이 22.5cm, 직경 13.2cm, 저경 11.6cm, 최대 직경 16.6cm, 두께 0.8cm

## ㉕ 적갈색토기저부 (도면99, 사진140)

심발형토기의 저부편으로 추정되며, 패각층 I에서 출토되었다. 기표면은 물손질 한 것으로 매끈하다. 태토에 모래가 많이 섞여있다.

현재 높이 4.8cm, 저경 8.7cm, 두께 1cm

## ㉖ 적갈색토기저부 (도면100, 사진141)

심발형토기의 바닥이 넓은 저부편으로 추정되며, 패각층 I에서 출토되었다. 바닥은 조금 들려있다. 기표면은 물손질 한 것으로 매끈하다.

현재 높이 3.4cm, 저경 19.6cm, 두께 1.4cm

## 나) 회색도기

## ① 구연부(도면101, 사진142)

패층의 교란층에서 출토되었으며, 병의 구연부로 아가리부분이 심하게 외반되어 있으며, 구단부가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구형 형태로 파악된다.

현재 높이 4.4cm, 직경 6.3cm, 두께 6.0cm

## ② 저부(도면102, 사진143)

대호의 저부편으로 편평한 저부이다. 외면은 회청색, 내면은 암회색, 속심은 암갈색조를 띠고 있다. 기벽에 크고 작은 기포들이 다량 형성되어 있다. 외면의 격자문이 밀집되어 타날되어 있고, 동체부에도 부분적으로 격자문이 타날되어 있다. 내·외면 전체적으로 물손질흔이 남아 있다.

현재 높이 22.8cm, 저경 28.6cm, 두께 1.0cm

## 다) 토제품

## ① 토기뚜껑(도면103, 사진144)

원형으로 뚜껑의 손잡이가 파손되어 있다. 가장자리는 드림턱과 같은 턱이 형성되어 있다.



직경 14.4cm, 높이 2.4cm, 두께 1.3cm

② 손잡이토기(도면104, 사진145)

토기 두껍의 손잡이만 남아있다. 횡단면은 사각형이며, 손잡이 윗부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 올수록 크기가 작아진다.

잔존길이 7.6cm, 폭 4.6cm, 두께 2cm

③ 손잡이토기(도면105, 사진146)

토기 두껍의 손잡이만 남아있다. 횡단면은 사각형이다.

잔존길이 7.6cm, 폭 4.6cm, 두께 2cm

④ 이형토기(도면106, 사진147)

한쪽부분이 파손된 상태다. 횡단면이 원형이다. 태토에는 굵은 현무암 알갱이가 혼입되어 있다.

잔존길이 7cm, 폭 8.9cm, 두께 5cm

라) 도자기

① 저부(도면107, 사진148)

낮은 굽에 속이 깊은 백자접시편이다. 내면에 태토비짐을 놓고 포개어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바닥 안쪽은 내저원각으로 바깥면은 굽이 형성되어 있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녹색이 도는 백자이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비교적 양질이다.

현재 높이 4cm, 저경 6.8cm, 두께 0.5cm

② 저부(도면108, 사진149)

낮은 굽에 속이 깊은 백자접시편이다. 내면에 태토비짐을 놓고 포개어 번조한 흔적이 남아 있다. 굽을 제외한 전면에 녹색이 도는 유를 사용하였다. 태토는 회백색으로 비교적 양질이다.

현재 높이, 3.1cm 저경 7.8cm, 두께 0.5cm

마) 석 기

① 홈돌(도면109, 사진150)

패총의 교란층에서 출토된 것으로 비교적 가벼운 석재로 다공질현무암으로 만들었다. 전체형태는 원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반쪽만 남아있다. 양쪽으로 홈이 형성되어 있어 양쪽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석기는 곡물등을 뺀 도구로 파악된다.

현재 길이 11.5cm, 폭 7.5cm, 두께 6.2cm

## ② 이형석기(도면110, 사진151)

패총의 교란층에서 출토되었으며, 파손품으로 전체형태는 장방형이다. 숫돌로도 추정되나 마모된 면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손잡이 부분 아닌가 추정되는데, 어떤용도의 석기인지는 알수 없다. 다만 한쪽면 상단에 「文」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현재 길이, 7cm 폭 3.3cm, 두께 2.6cm

## ③ 갈돌(도면111, 사진152)

다공질 현무암제 갈돌이다. 등면은 장타원형으로 잘 다듬었고, 단축의 단면은 반원형이다. 한쪽면만 사용되어 졌다.

길이 18.3cm, 폭 10.2cm, 두께 5.1cm

## ④갈돌(도면112, 사진153)

다공질 현무암제 갈돌이다. 등면은 장타원형으로 잘 다듬었고, 단축의 단면은 반원형이다. 한쪽면만 사용되어 졌다.

길이 17.5cm, 폭 12cm, 두께 6cm

## 바) 청동 발(도면114, 사진155)

패총 하부에서 출토 하였으며, 출토당시 구연부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파손된 상태였다. 현재 높이 4.1cm, 구경 21.0cm, 두께 - 구순부 0.15cm, 동체 0.02cm

## 사) 철도자편(도면113, 사진154)

철도자편으로 경부와 두부가 손실되었다. 전체적으로 부식이 심하나 한면에 날이 형성되어 있고, 단면은 삼각형을 하고 있다.

현재 길이 7.2cm, 폭 1.1cm, 두께 0.4cm

## (5) 道路施設

## 1) 遺構

이 유구는 동서로 연결되며, 앞에서 설명한 유구와는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동편은 폭 2m가량으로 양쪽 가장자리는 비교적 큰 현무암 할석으로 막음질하고 가운데는 잔자갈로 적석되어 다져있다. 서편은 막음질 없이 유구의 범위가 넓어 지는데, 이는 고려 혹은 조선 시대 도로시설로 파악된다.

## 2) 出土遺物

기와, 도자기 등이 출토된다. 도자기는 청자편과 백자편으로 구분되는데, 백자편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기와는 대부분 파편들로 적갈색과 회색으로 구분되며, 가지무늬가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 (6) 기타 출토유물

### 1) 「가」피트 출토유물

가) 점토대토기 구연부(도면115, 사진156)

모래층에서 출토된 것으로 가장자리다 마모된 흔적이 많아 쓸려온 것으로 파악된다. 점토띠 단면은 원형이며, 구연부가 살짝 외반된 형태를 하고 있다. 내외면에 빗질흔적이 일부 확인되며, 점토띠를 부착시키는 과정에서 손으로 누른 흔적이 안쪽에 남아 있다.

현재 높이 4.2cm 구연부직경 24.4cm 두께 0.8cm

나) 파수부토기 구연부(도면116, 사진157)

모래층에서 출토된 것으로 가장자리다 마모된 흔적이 많아 쓸려온 것으로 파악된다. 구연부가 살짝 외반된 형태를 하고 있다. 내외면에 빗질흔적이 일부 확인된다. 파수는 단면이 원형이며, 지름이 0.7mm가량되는 원형의 구멍이 뚫려져 있다.

현재 높이 8.8cm 구연부직경 13.6cm 두께 0.8cm

다) 적갈색토기 구연부(도면117, 118, 사진158, 159)

모래층에서 출토된 것으로 가장자리다 마모된 흔적이 많아 쓸려온 것으로 파악된다. 한 점은 직립구연의 형태이며, 나머지 한 점은 항아리형의 구연부 편이다. 구연부지름은 확인 불가능하다.

### 2) 「마」피트 출토유물

가) 적갈색토기저부(도면119, 사진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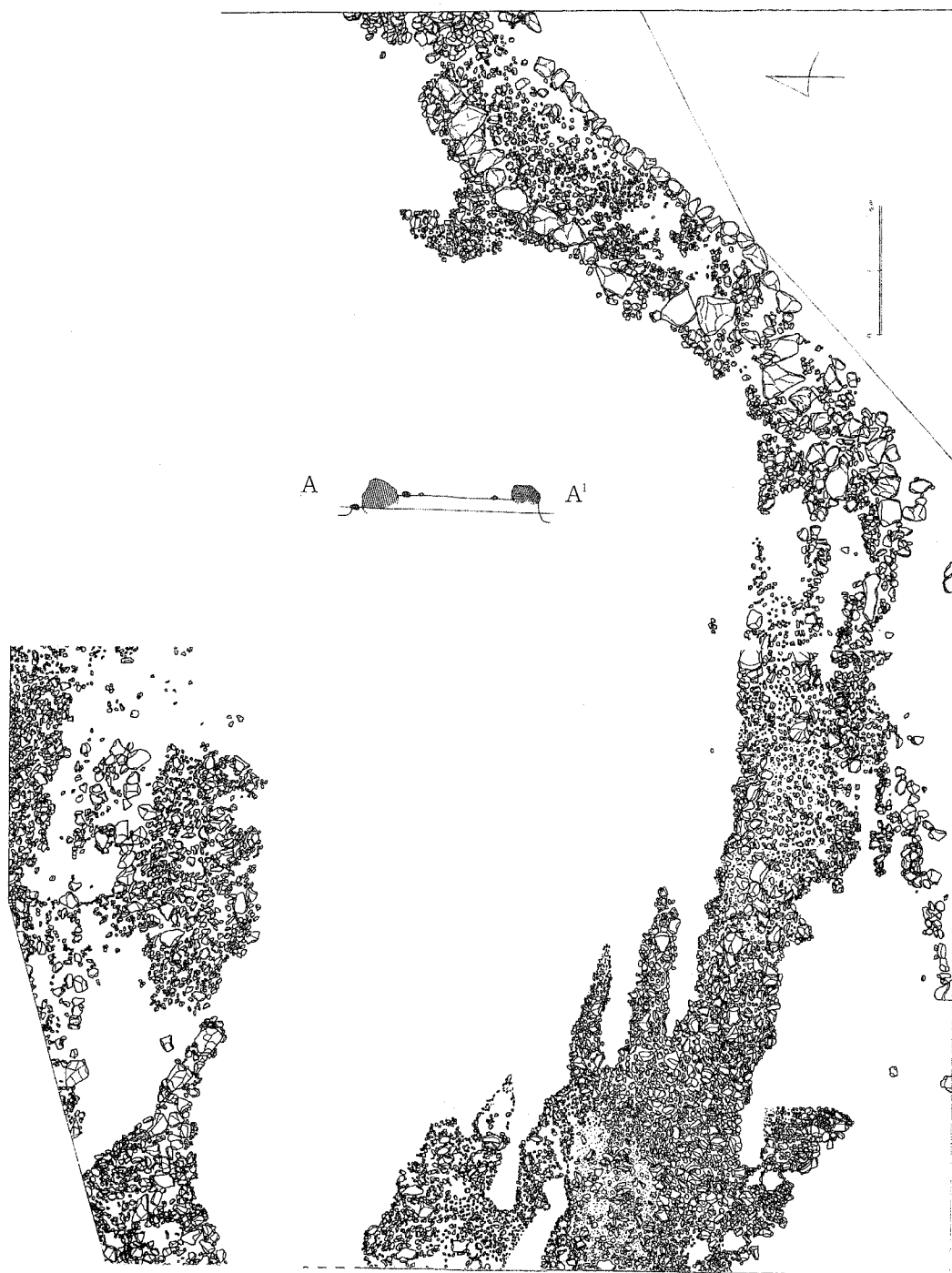
저부편으로 심발형토기 저부편으로 흑갈색조를 띠고 있다. 바닥에는 흑색으로 탄화된 흔적이 남아 있다. 바닥과 동체부를 따로 성형해 만든 것으로 접합되어 있다. 토기 내외면에는 손누름과, 대칼흔, 빗질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높이 2.7cm 저경 11.4cm 동체두께 0.6cm

나) 솥돌(도면120, 사진161)

응회암으로 만들어진 솥돌로 삼각형태이다. 폭이 넓은 쪽이 결손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면이 사용된 흔적이 남아 있다.

길이 7.6cm 폭 3.9cm 두께 1.2cm



도면7. 부석유구(도로유구)

### 3) 「자」피트 출토유물

가) 적갈색토기저부(도면121, 사진162)

바닥가운데가 홈이 형성되어 있는 평저토기이다. 토기내외면에 빗질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높이 6cm 저경 9cm 두께 1.4cm

나) 적갈색토기저부(도면122, 사진163)

바닥가운데가 홈이 형성되어 있는 평저토기이다. 토기내외면에 빗질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 높이 7.8cm 저경 9.2cm 두께 1cm

### 4) 표토층

가) 갈돌(도면123, 사진164)

다공질 현무암제 갈돌이다. 단축의 단면 형태는 반원형이고 사용되었던 한쪽 면은 마모된 상태이다.

장축 10.5cm 단축 8.1cm 두께 4.4cm

나) 갈돌(도면124, 사진165)

다공질 현무암제 갈돌이다. 단축 단면의 형태는 반원형이다. 사용되었던 한쪽 면은 마모된 상태이다.

장축 6.9cm 단축 10.4cm 두께 4.0cm

다) 유구석부(도면125 사진166)

전체형태로 보아 유구석부로 파악되며, 단면은 방형에 가깝다.

길이 11.5cm 폭 3.7cm 두께 3cm



사진1) 조사지역 전경



사진2) 조사지역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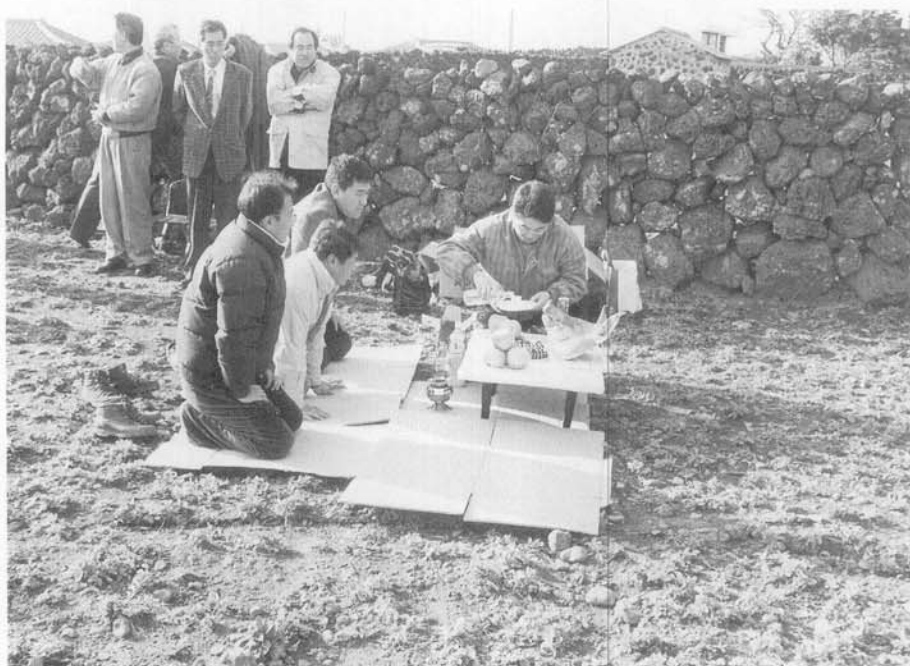


사진3) 개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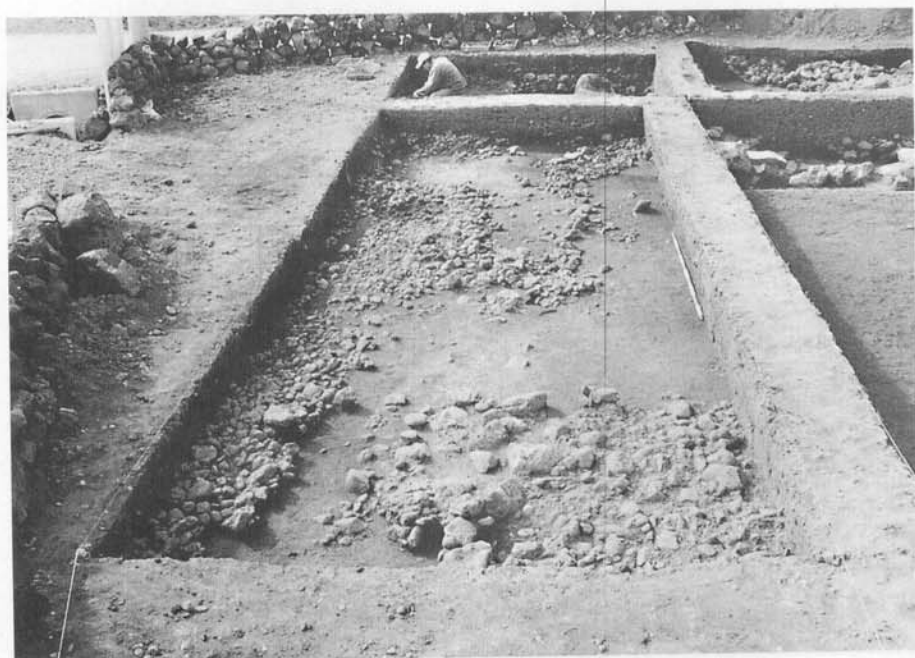


사진4) 피트발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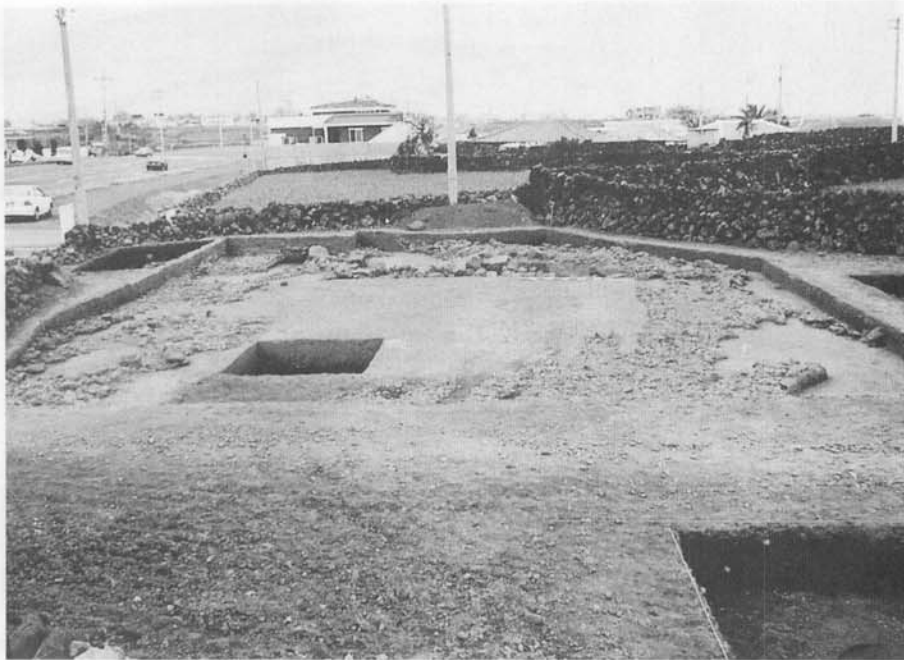


사진5) 피트제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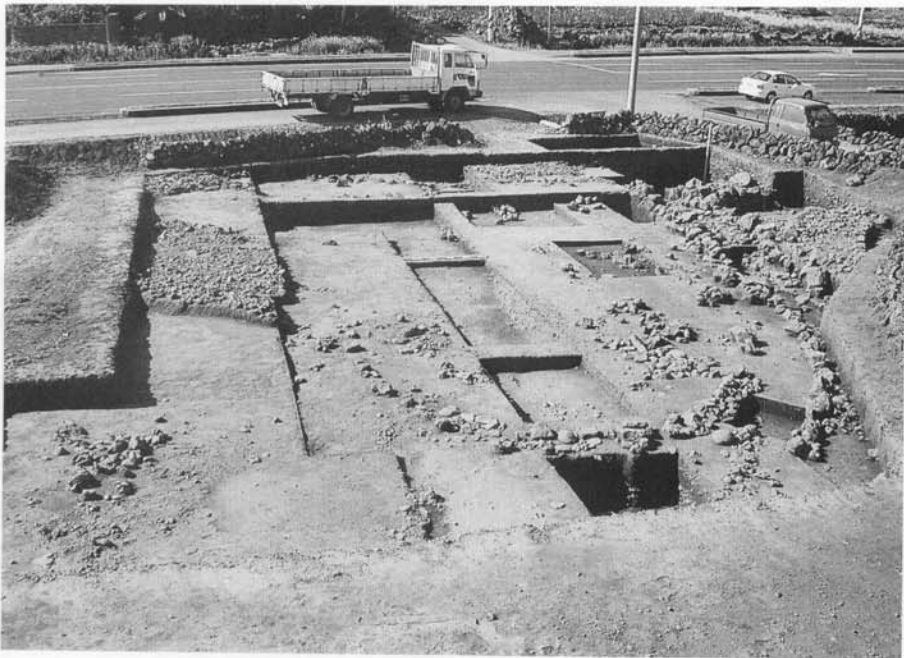


사진6) 발굴완료 전경(북쪽)



사진7) 발굴완료 전경(남쪽)



사진9) 조사지역복개



사진9) 조사지역복개



사진10) 층위(남쪽)



사진11) 층위(서쪽 동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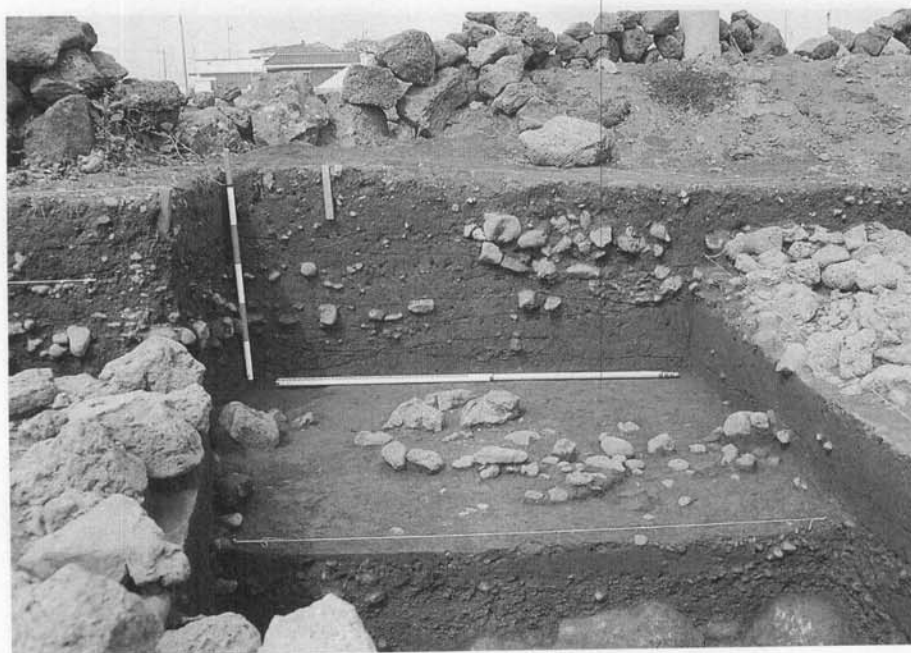


사진12) 층위(서쪽 서벽)





사진13) 층위(북쪽)



사진14) 원형석렬주거지 노출전(북쪽)





사진15) 원형석렬주거지와 야외 노지(동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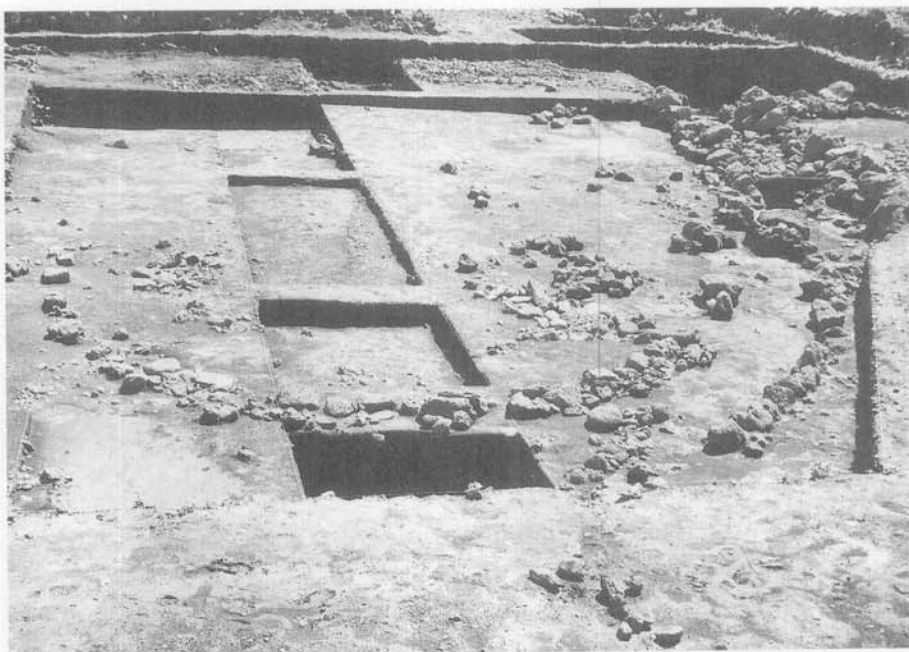


사진16) 원형석렬주거지 노출후 전경



사진17) 아외 노지



사진18) 주거지내 유물출토 근경



사진19) 석축유구 조사 전경



사진20) 석축유구와 적석유구



사진21) 석축유구와 패층



사진22) 석축유구 노출



사진23) 석축유구 북쪽 근경



사진24) 석축유구 북쪽 계단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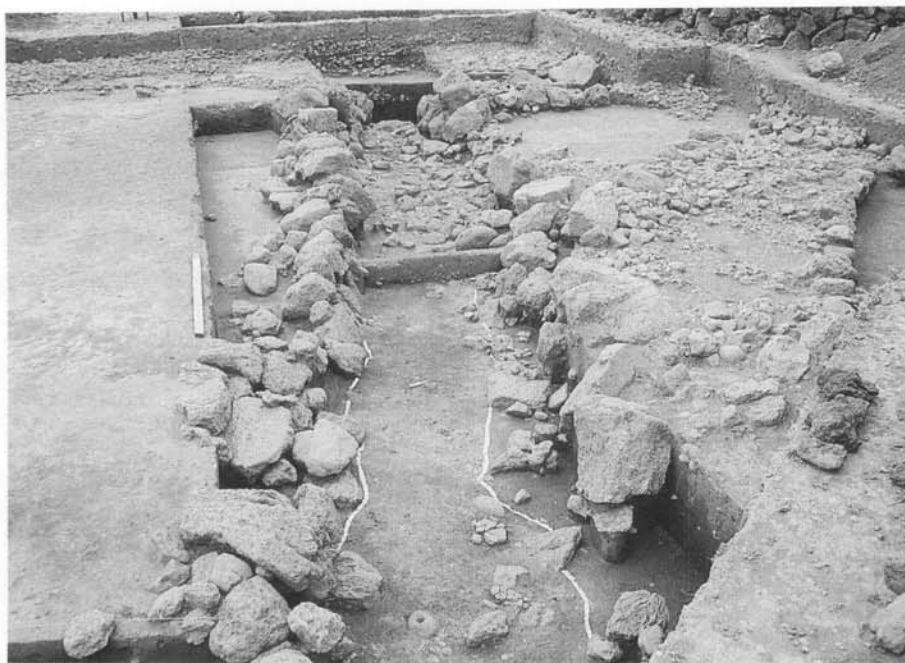


사진25) 석축유구와 도로 유구(상부)



사진26) 석축유구 조사완료 후 근경





사진27) 석축유구내 화전 출토 근경(북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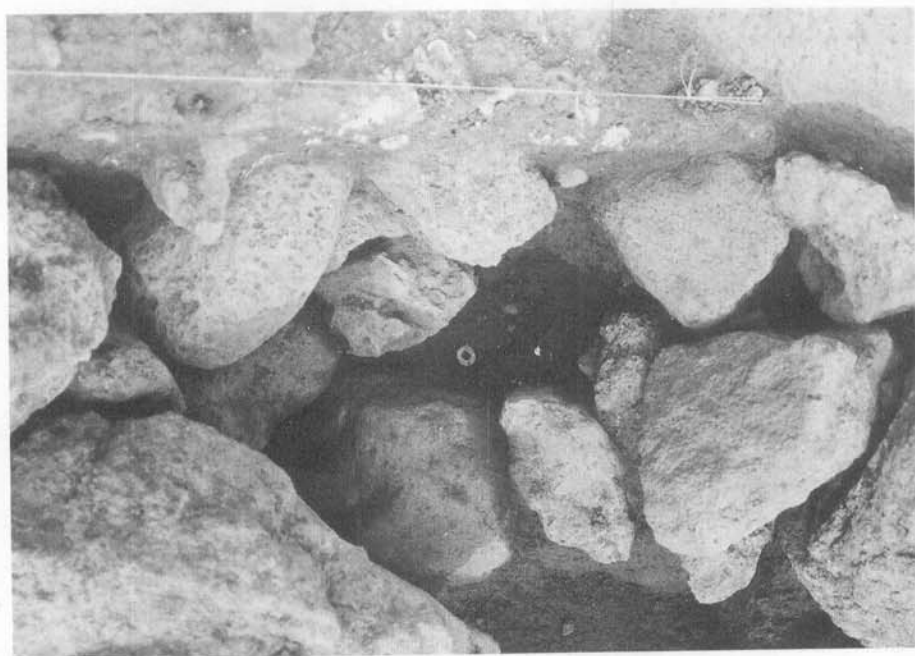


사진28) 석축유구내 화전 출토 근경(남쪽)



사진29) 적석유구



사진30) 적석유구내 유물출토 근경



사진31) 적석유구내 유물출토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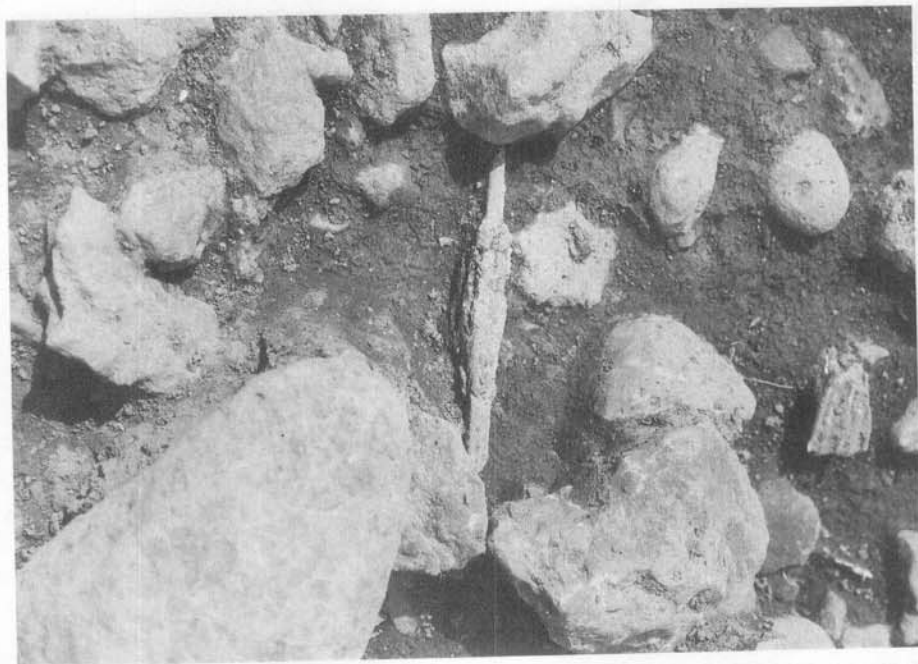


사진32) 적석유구내 유물출토 근경



사진33) 적석유구와 석축유구(하부)



사진34) 패충 상부 전경



사진35) 패총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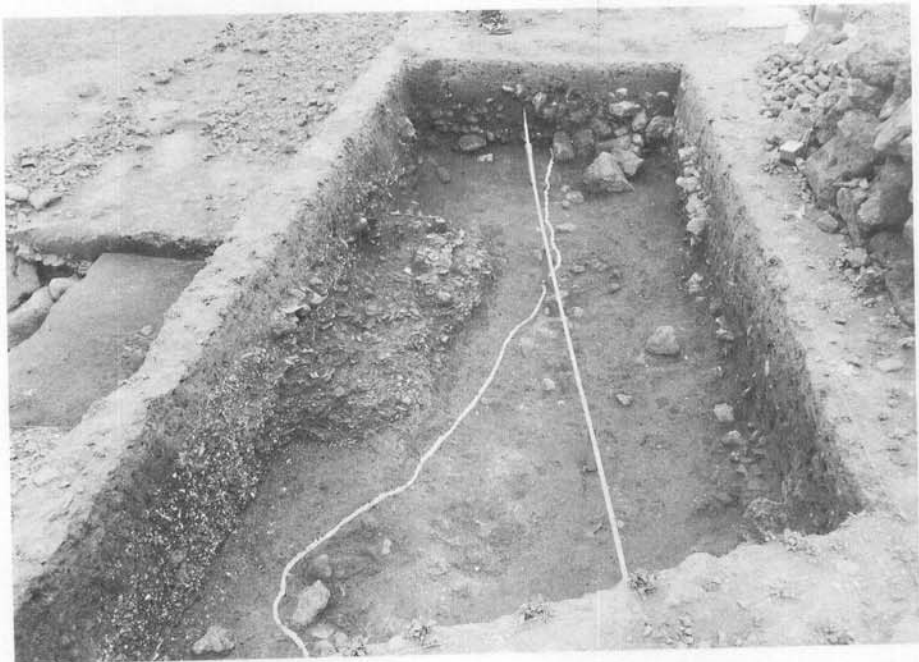


사진36) 패총 북편 피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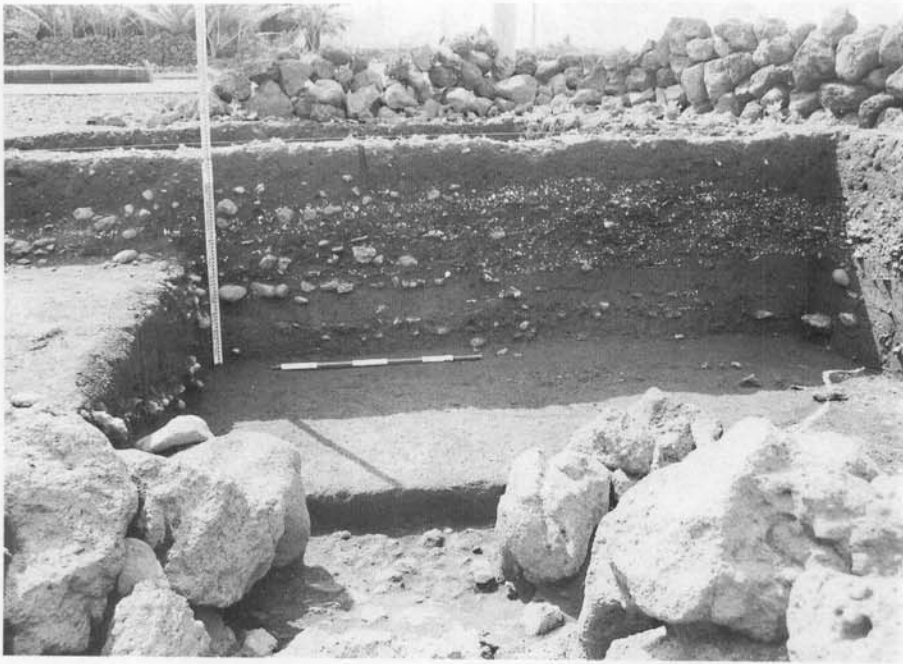


사진37) 패총과 석축유구(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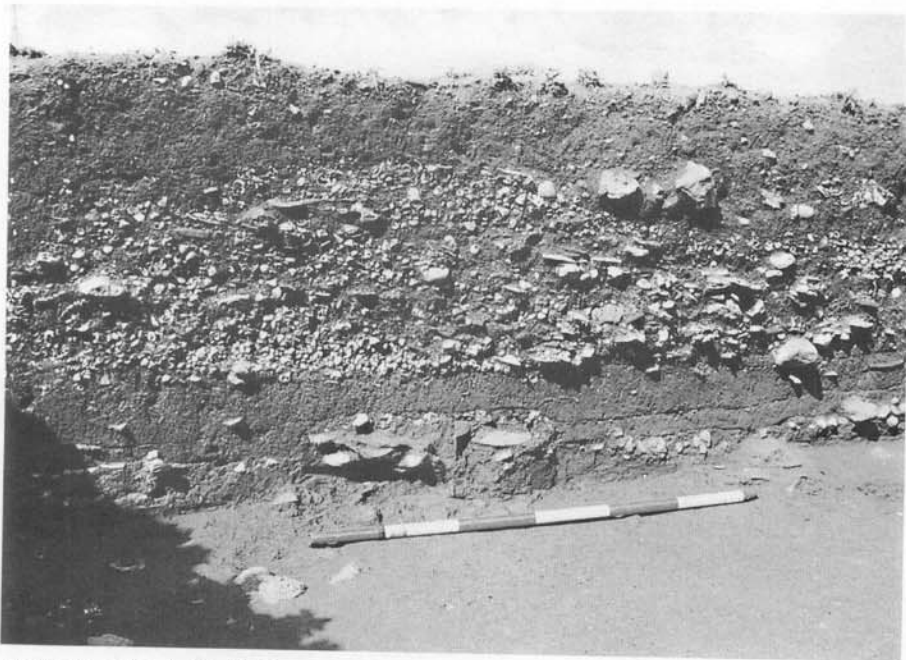


사진38) 패총 토층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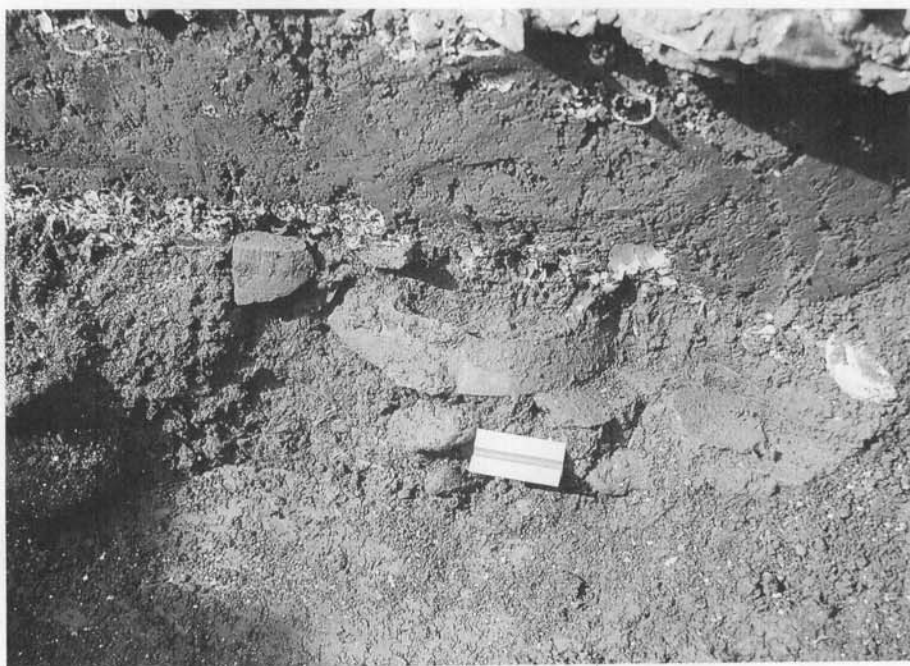


사진39) 패총 하부 청동유물 출토 근경(남쪽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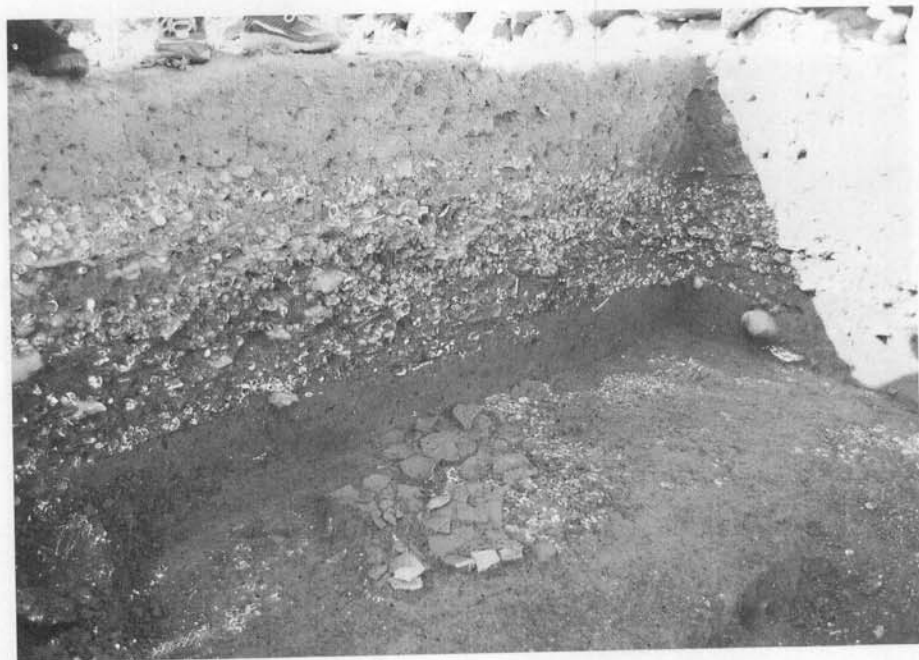


사진40) 패총 하부 적갈색토기 출토 전경(북쪽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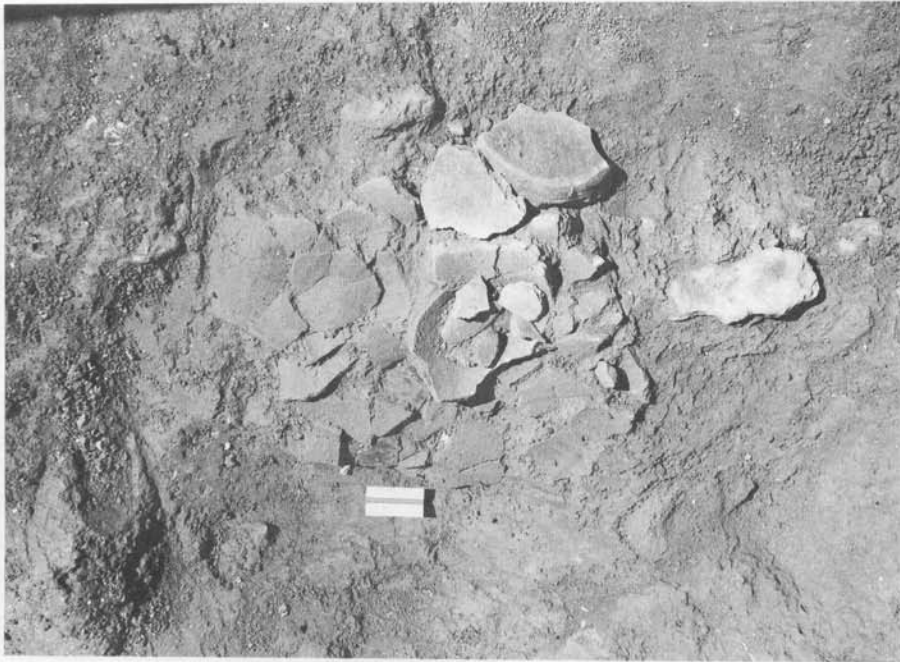


사진41) 패총 하부 적갈색토기 출토 근경(북쪽벽)



사진42) 도로유구



사진43) 도로유구(상부)와 석축유구(하부)



사진44) 도로유구(동쪽)전경



사진45) 도로유구(상부)와 원형석렬주거지(하부)



사진46) 유구내부 파트조사



사진47) 유구내부 피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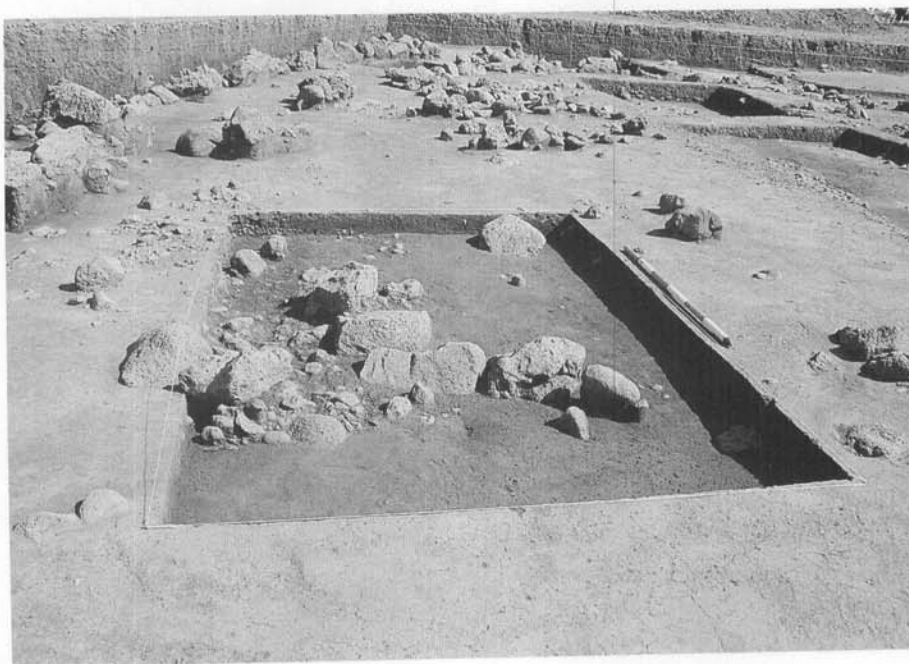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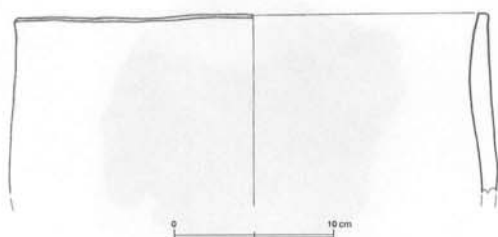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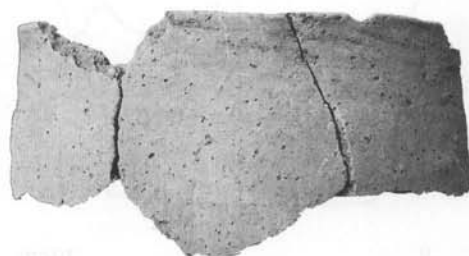


사진48) 「자」 피트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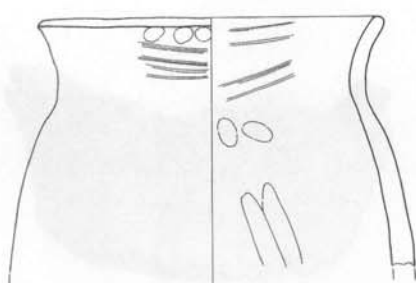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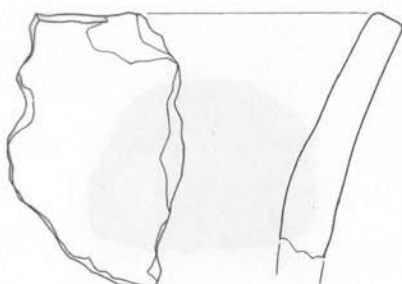
49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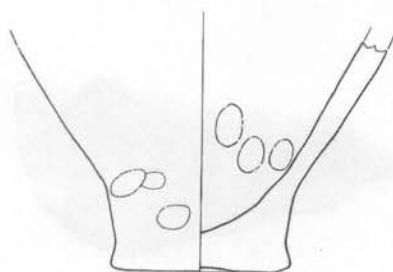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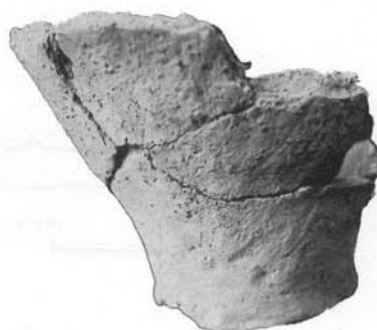
10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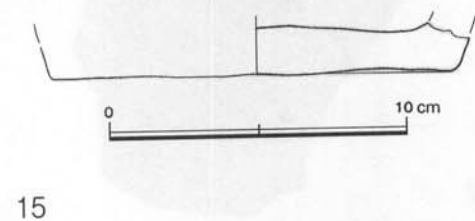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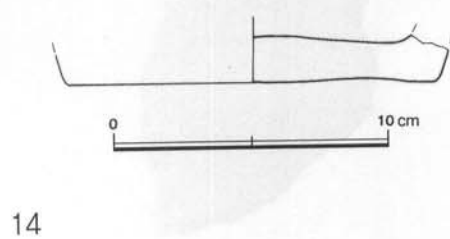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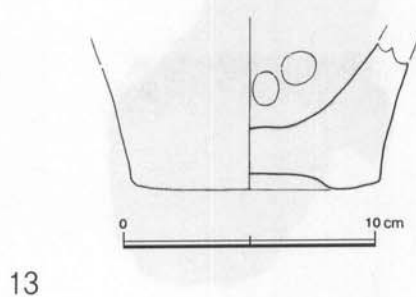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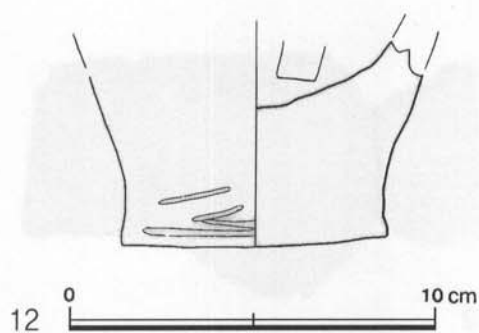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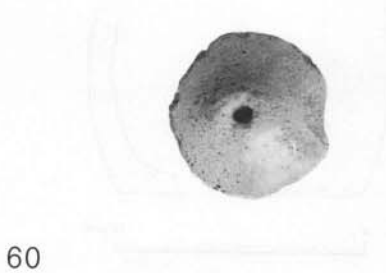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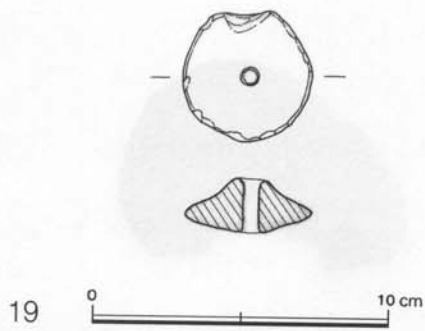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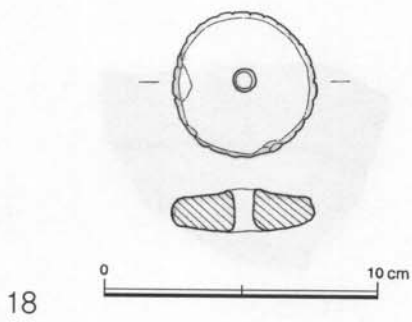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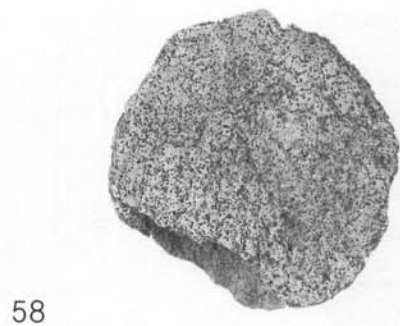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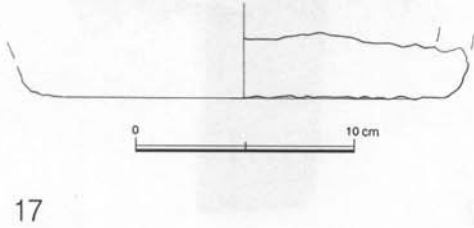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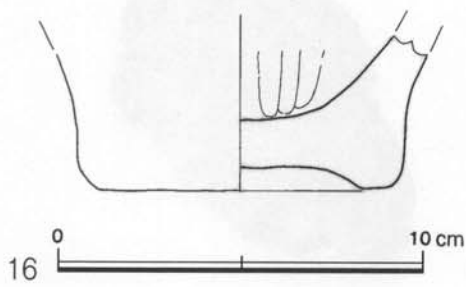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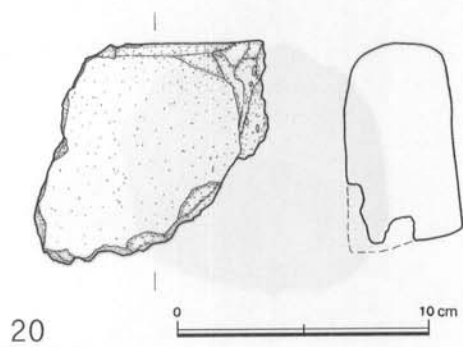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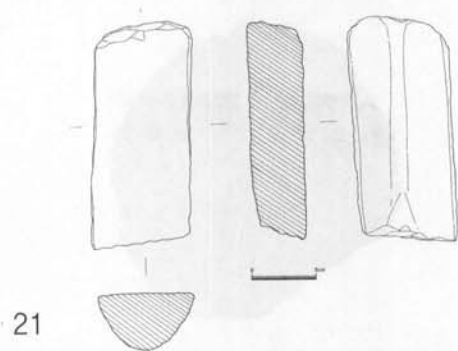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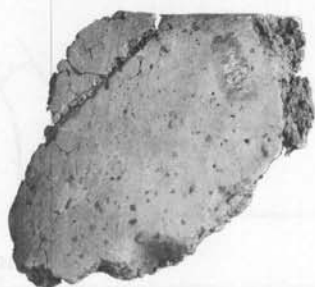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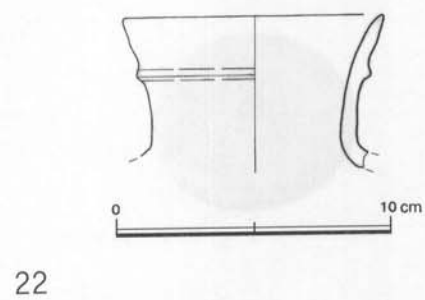
20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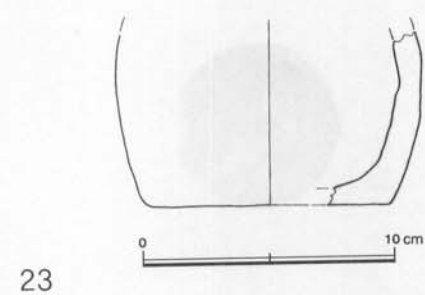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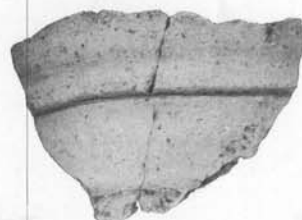
21

6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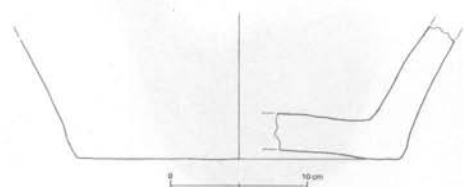
63



23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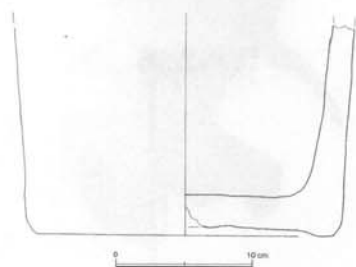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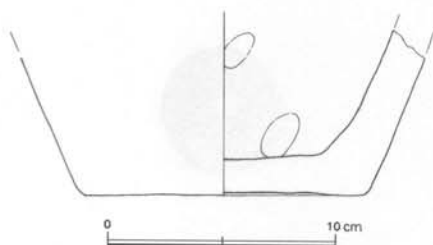
65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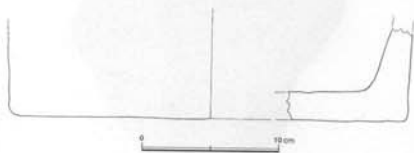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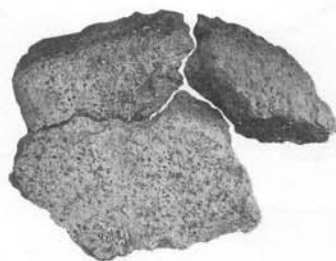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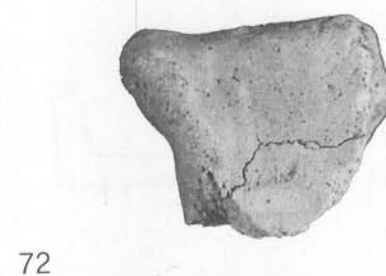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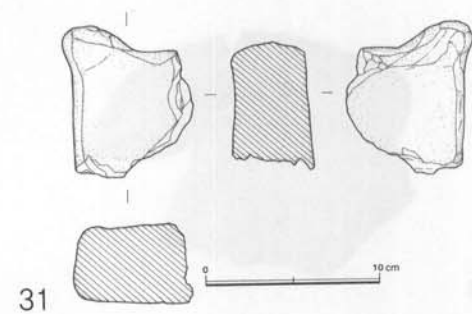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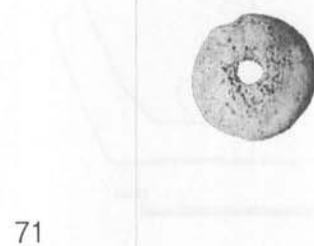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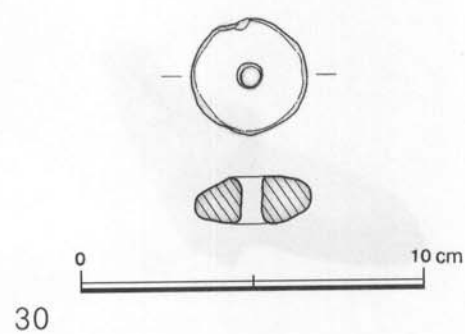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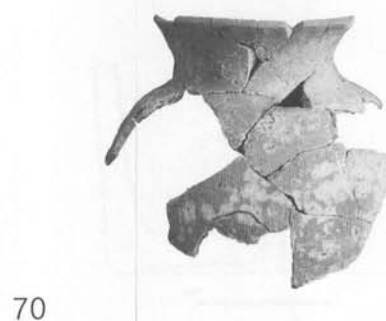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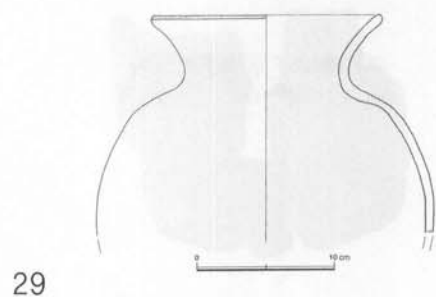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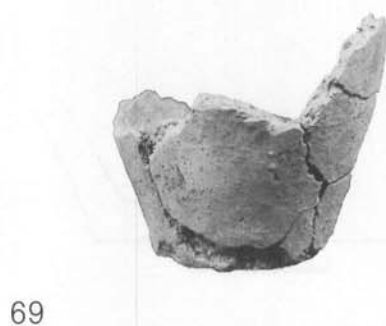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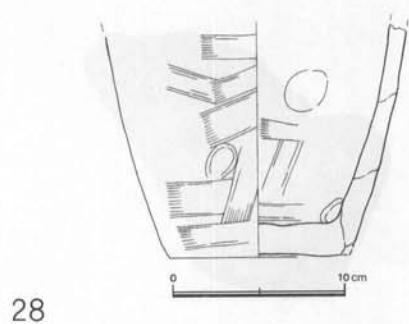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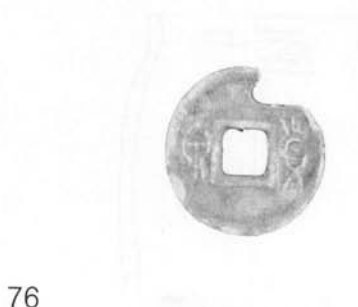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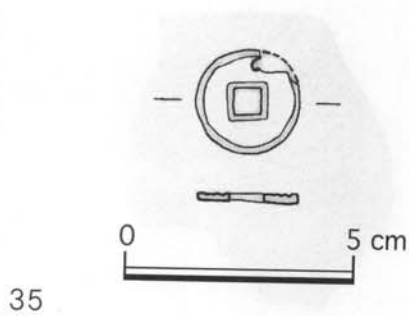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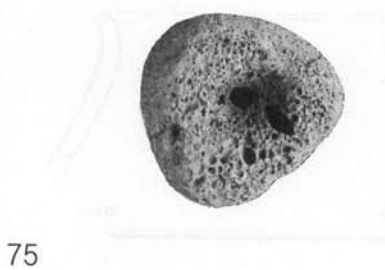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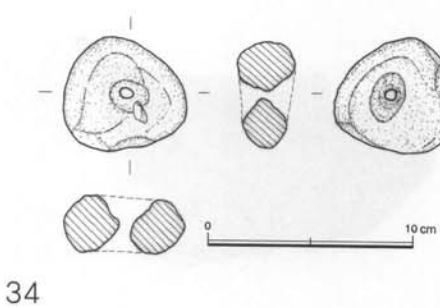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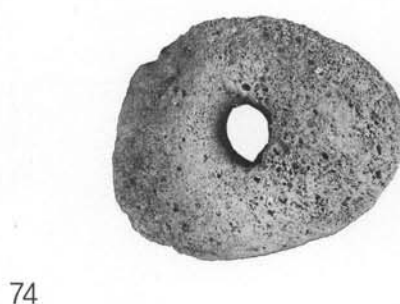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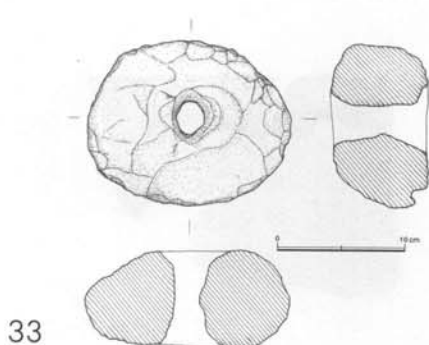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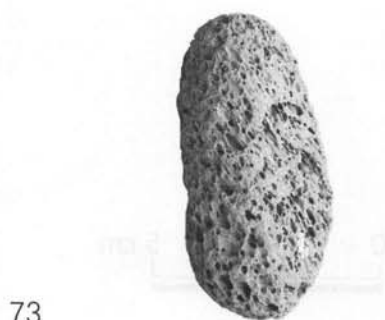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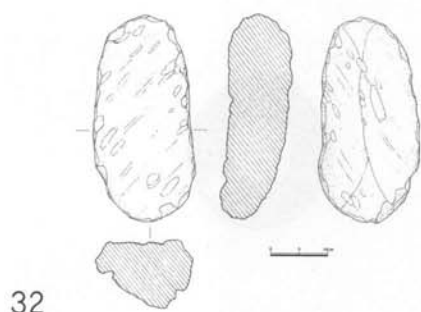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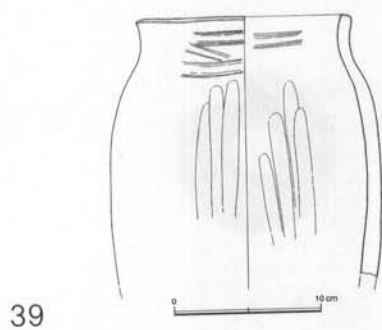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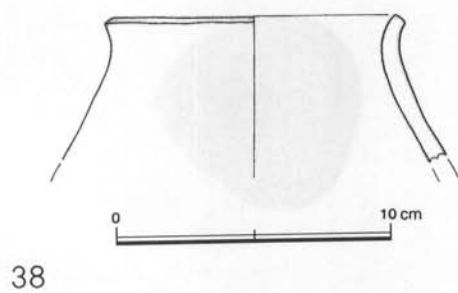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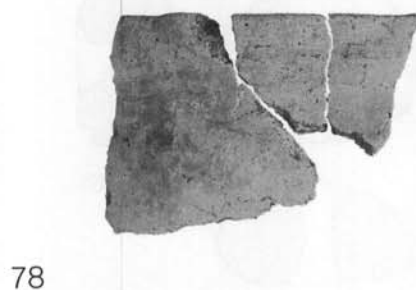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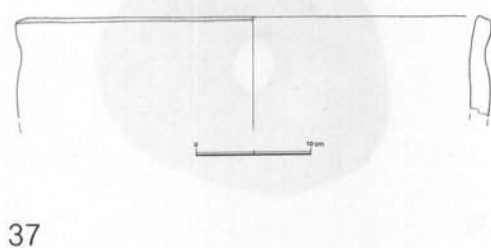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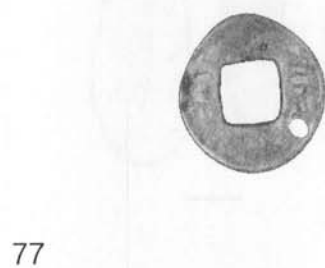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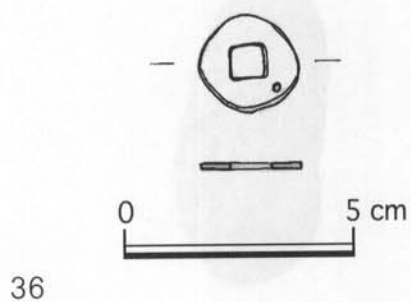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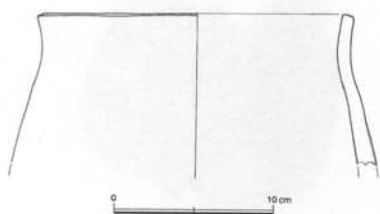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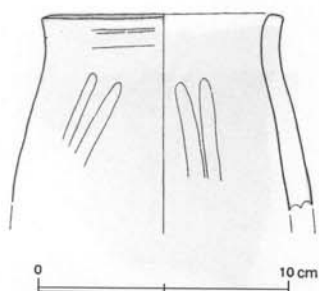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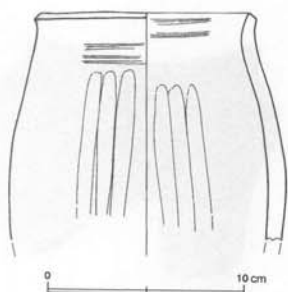
81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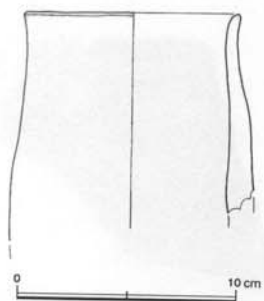
82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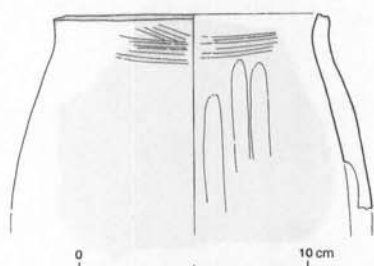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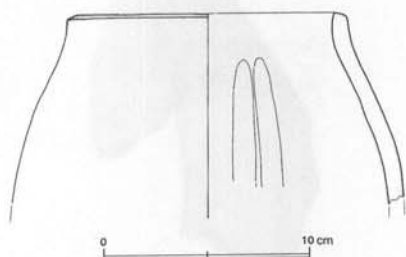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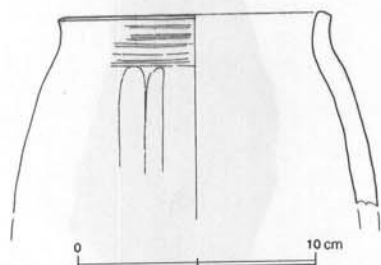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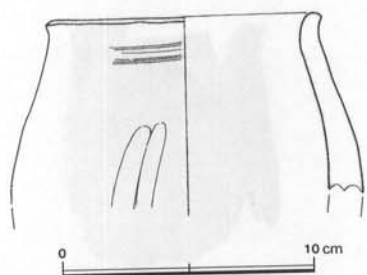
44



45



46



47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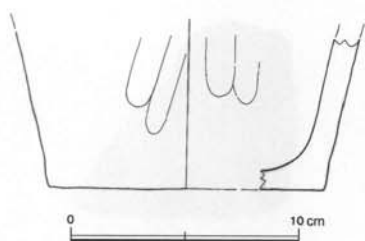
86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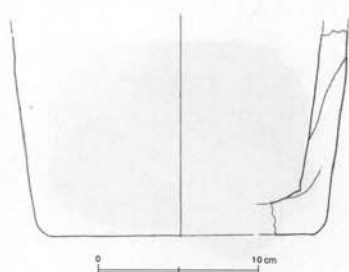
88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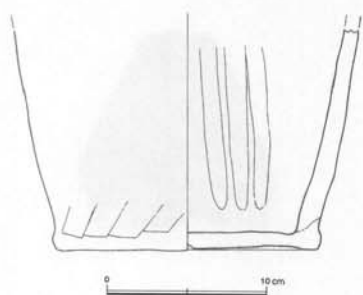
89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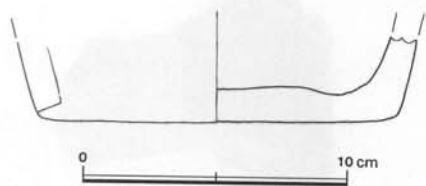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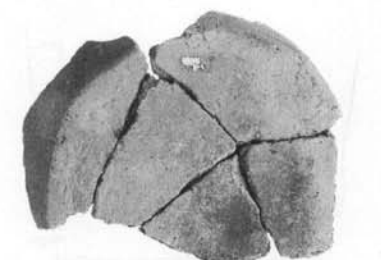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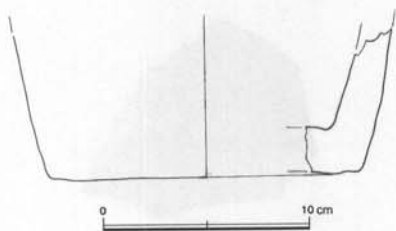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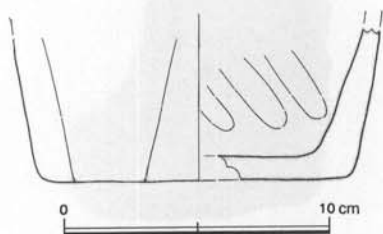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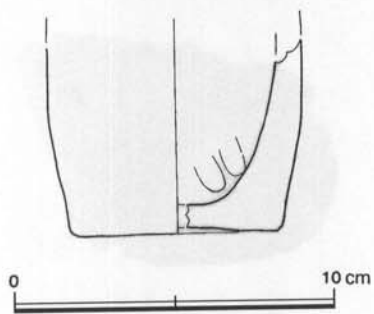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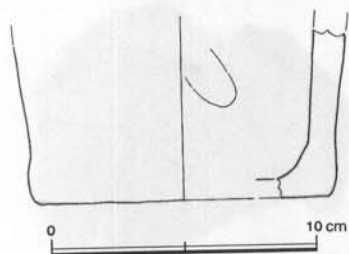
52



53



54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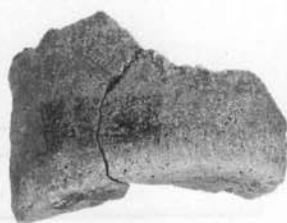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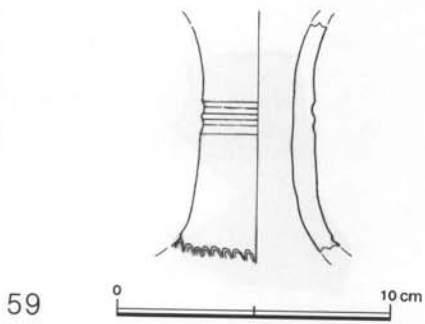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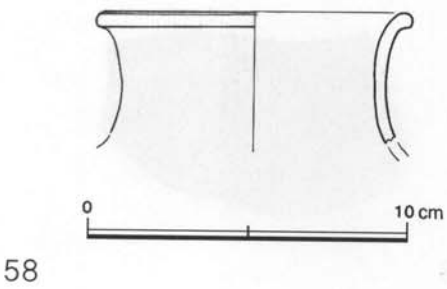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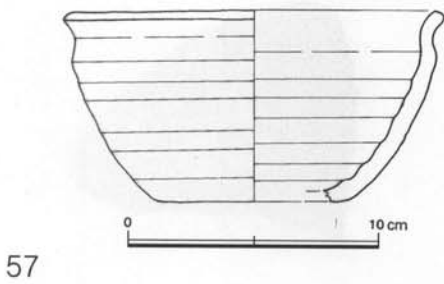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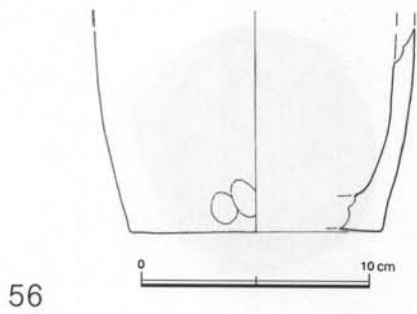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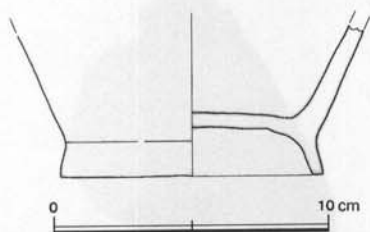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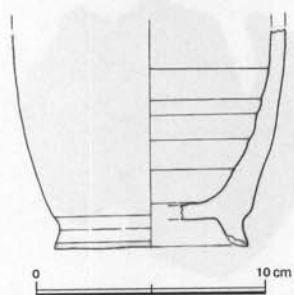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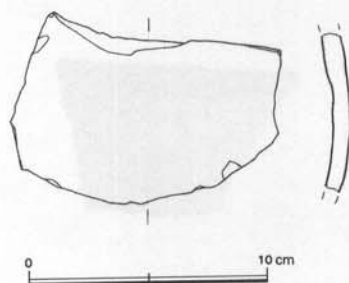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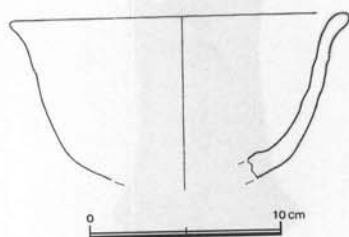
60



61



62



63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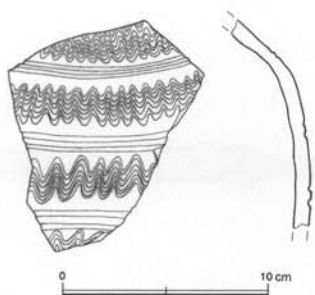
102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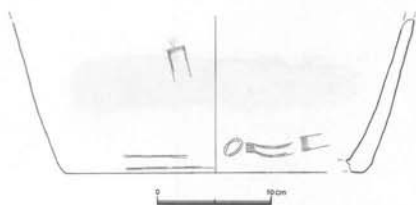
104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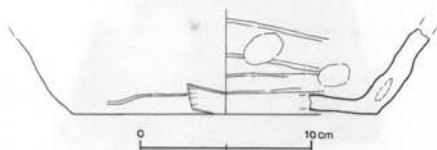
105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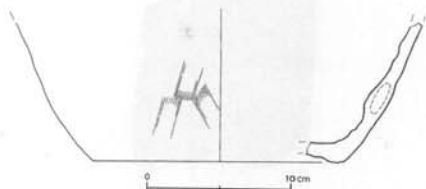
106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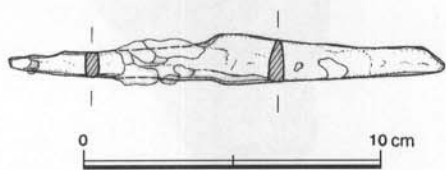
107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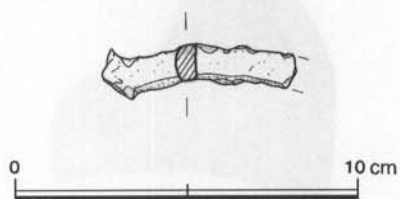
108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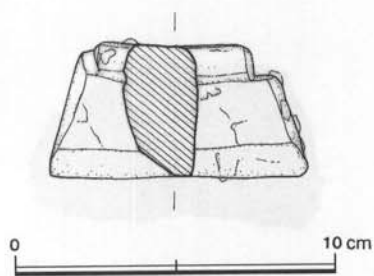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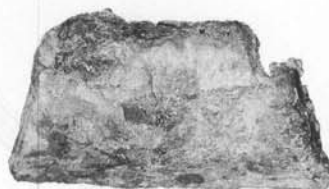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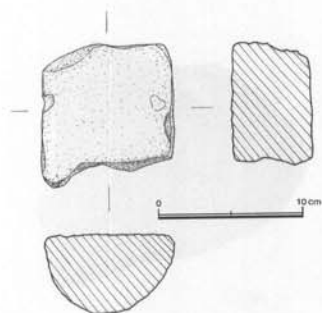
11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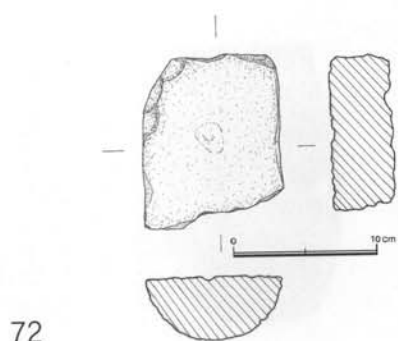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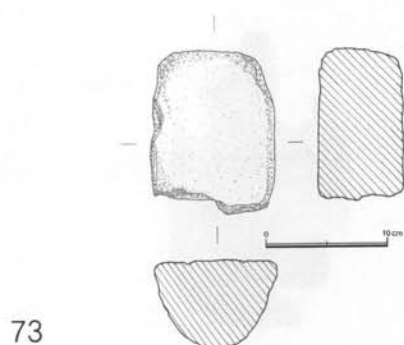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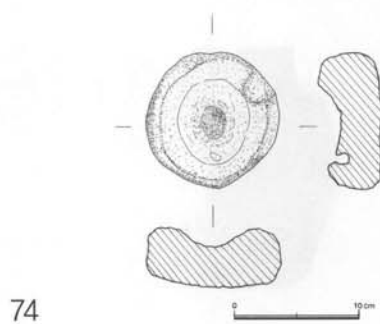
112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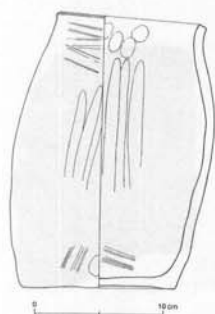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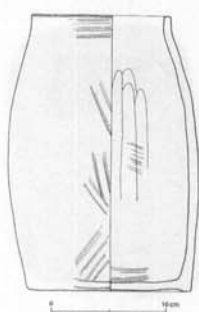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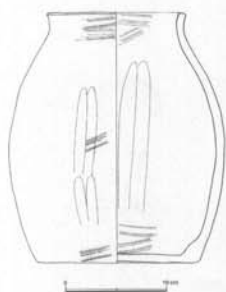
75



76



77



78



116



117



118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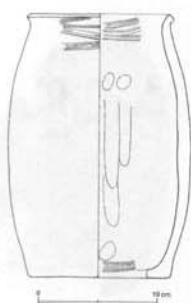
79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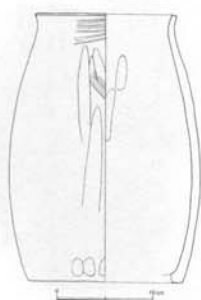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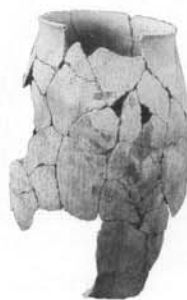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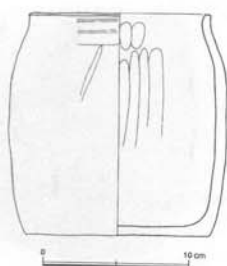
81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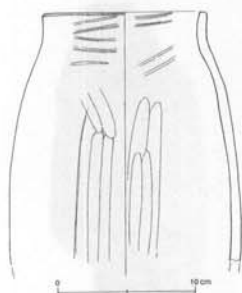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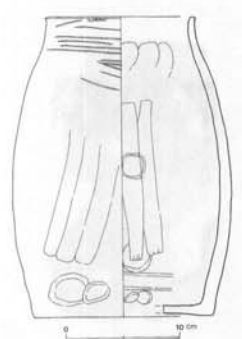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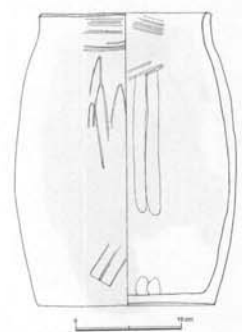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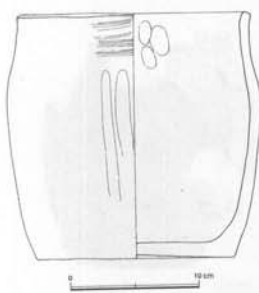
83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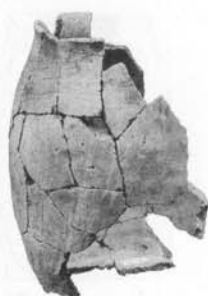
85



86



124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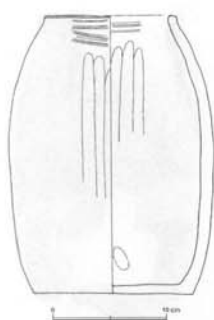


126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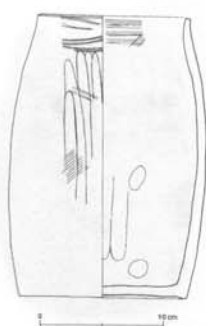
87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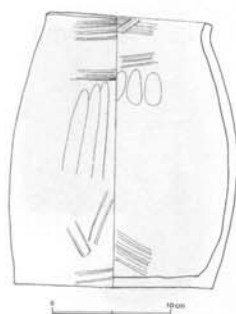
88



129



89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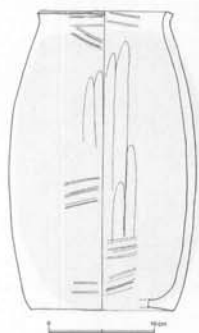
90



131



91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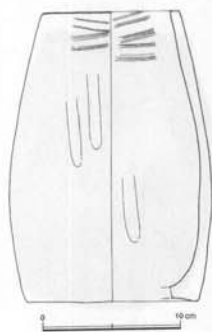
92



133



93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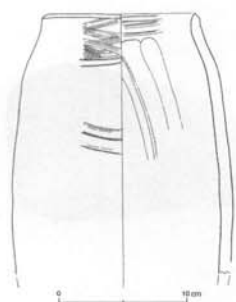
94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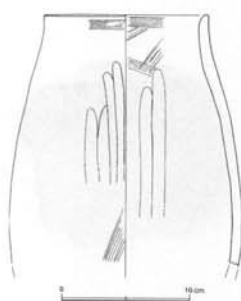
95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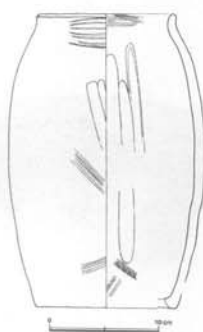
96



137



97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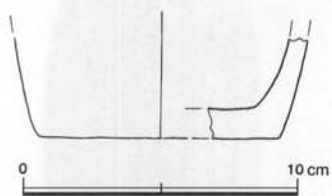


98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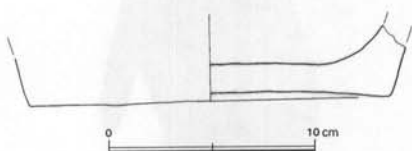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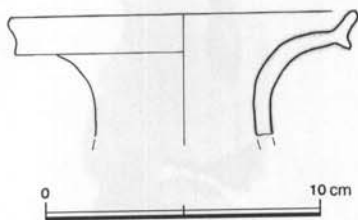
1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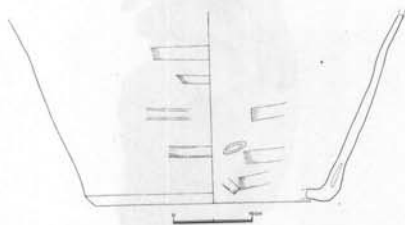
141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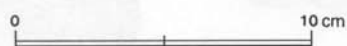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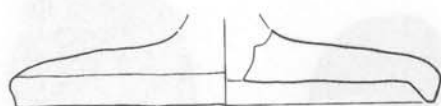
142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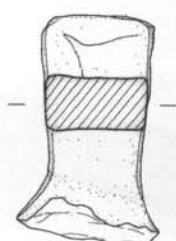
143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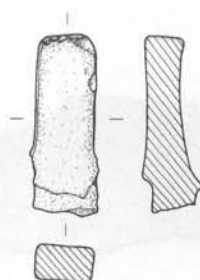
144



104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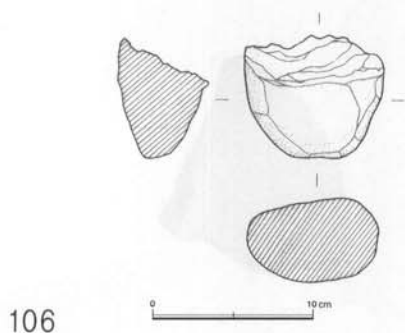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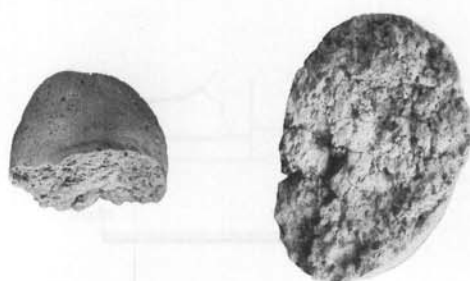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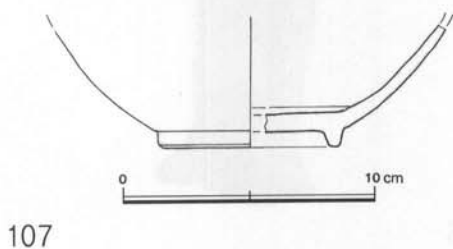


106



14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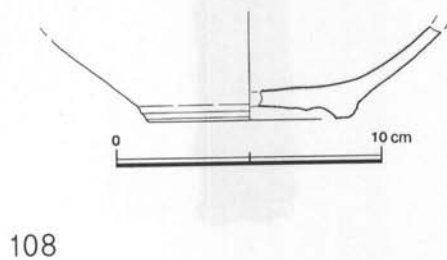
147-2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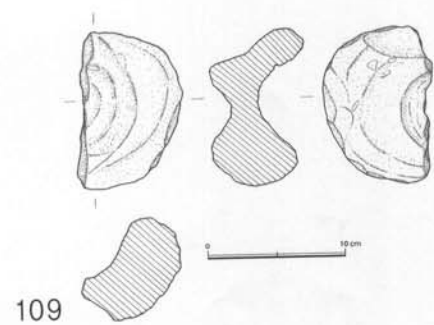
148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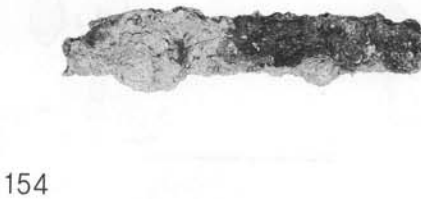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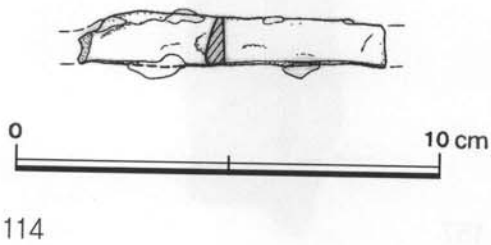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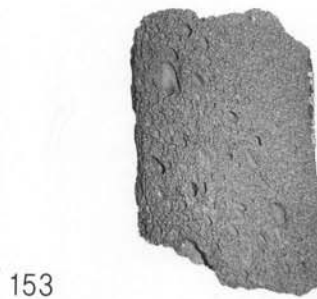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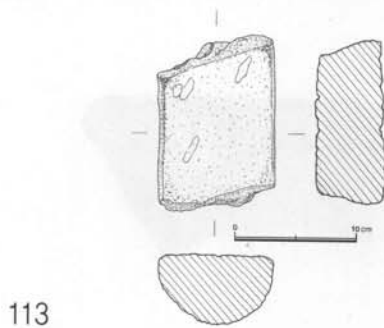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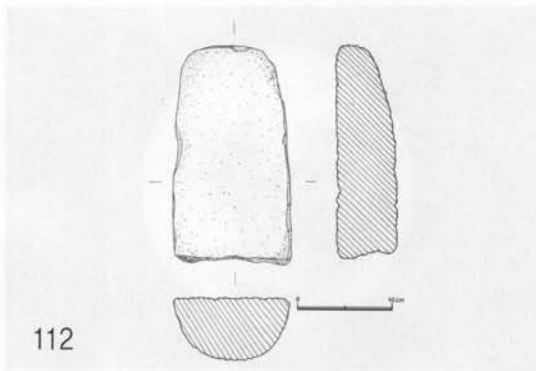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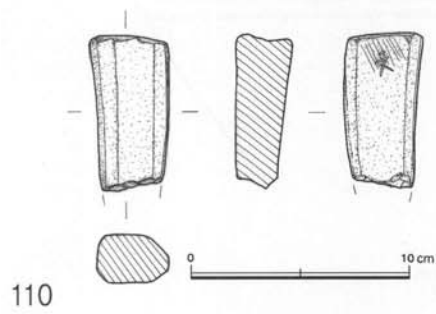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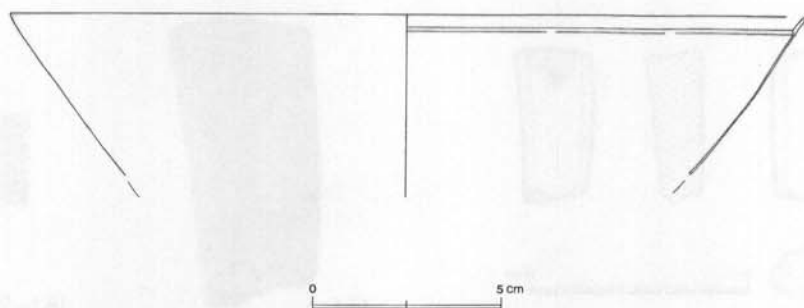
109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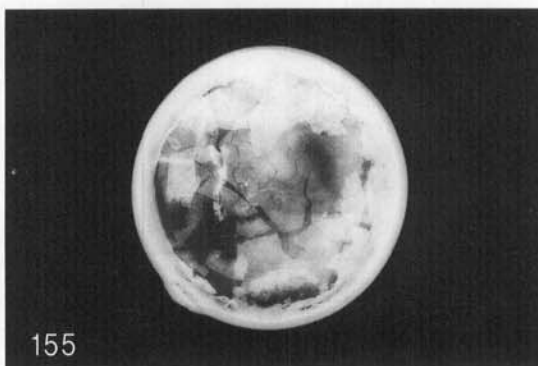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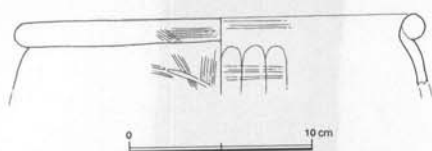
116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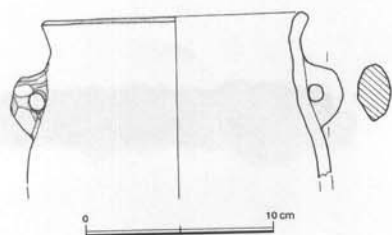
117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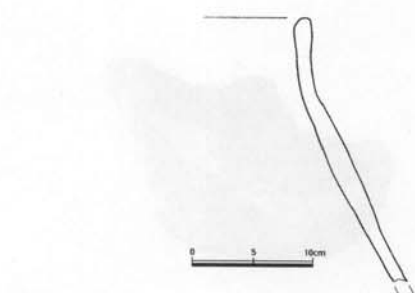


118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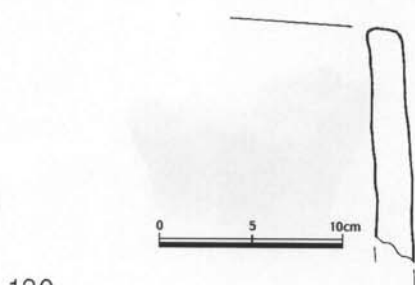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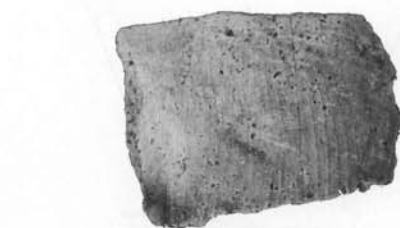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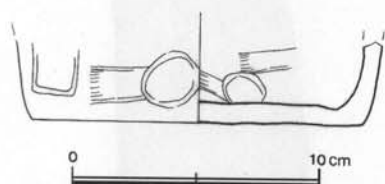
158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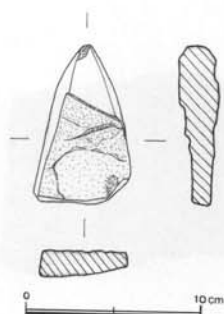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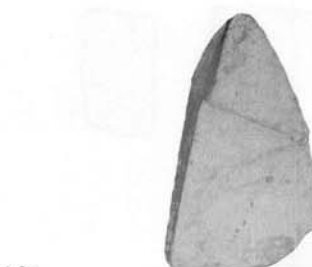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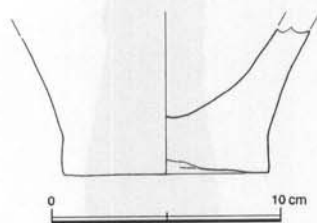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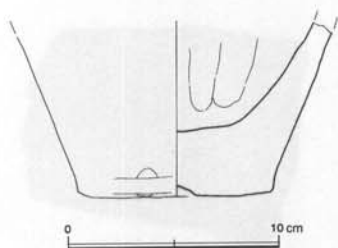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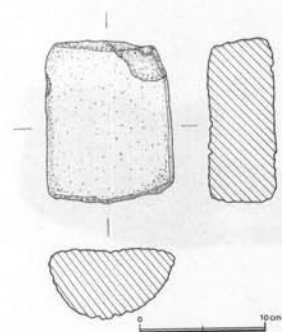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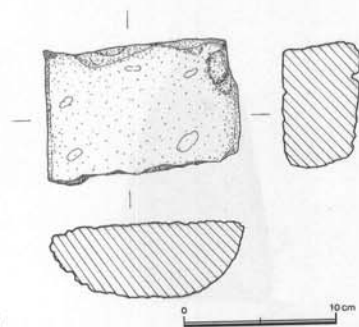
123



124



125



126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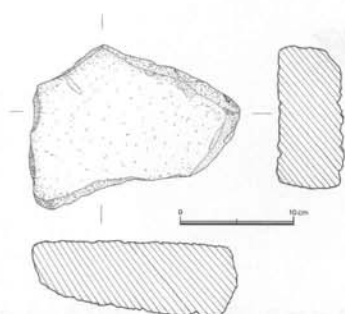
163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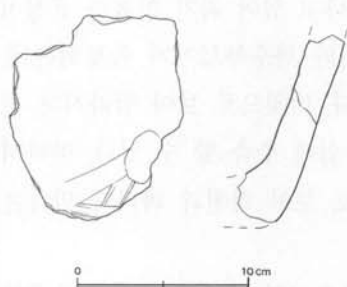
165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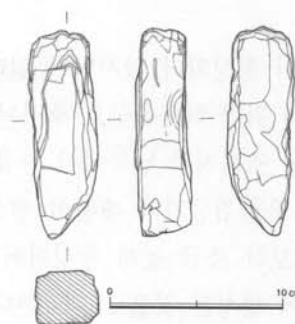
166



128



167



129



168



## VI. 考 察

### 1. 유적의 형성과정

전체 층위를 살펴보면 바닥으로부터, 암반층-모래층-사질토층-표토층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모래층의 범위는 조사지역 서편과 북편에서 확인되고 있다. 암반표면이 마모되어 있고, 모래층은 하천의 모래와 같은 원마도가 좋은 자갈과 함께 나타나고 있어 과거 인접한 금성천의 유로면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모래층내에서는 원형점토띠토기와 파수부토기가 출토되는데, 유물의 상태로 보아 하천의 범람과 함께 쓸려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으로 보아 탐라시대 전기에 형성된 유구는 하천과 혹은 바다와 밀접한 거리에 있음을 쉽게 추측 할 수 있다. 따라서 유구는 모래층 위의 사질토층에 형성되어 있는데, 앞의 상황으로 보아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인식한다면, 1996년 발견된 석축유구와 이번에 조사된 유구들은 이러한 지형, 지리적상황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우연하게도 석축유구의 방향과 등고선이 표시된 선의 방향이 일치하고 있음을 지형도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패총 북서편의 일부 석축유구(B-1유구) 하면에는 모래층이 형성되어 있지만 동일레벨의 패총 하면에는 황갈색점토층이 확인되고 있어 유구를 보호하기 위한 석축유구로 추정된다.

탐라시대 후기유구는 탐라시대 전기 유구위를 덮고 있음을 조사지역 남쪽에서 관찰 할 수가 있다. 탐라시대전기의 석축유구 위로 폐기장으로 여겨지는 유물집중지와 패총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패총 상면은 1996년 조사된 석축유구의 상면 레벨보다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다. 패총의 범위는 소규모로, 출토유물의 양상으로 보아 동일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탐라시대유구가 폐기된 후 도로시설물과 같은 부석유구가 석축유구와 원형 석렬유구 위에 형성되어 있다. 이 유구는 동서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동편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양상을 하고 있다.

### 2. 遺構와 出土遺物

1996년 조사된 석축시설물의 연장선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한정된 조사지역과, 조사지내 시기를 달리하는 유구들이 중복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연장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 석축유구는 남동방향인데, 이 유구의 연장선을 찾는다면 패총지역과 연결되거나 현재 개설된 일주도로와 연결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금번 조사에서 조사지역 서편에서 일부 확인

될 뿐이며, 새로운 유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 1) 탐라전기

이 단계(A. D. 0~500년, 삼국시대)의 유구는 원형석렬유구와 석축유구가 있다. 반원형 석렬 유구는 남쪽이 파손되어 있으나, 원래 원형의 지상 집자리로 여겨진다. 문헌자료<sup>18)</sup>에 의하면 “耽羅는 新羅의 武州 해상에 있다 … 그들의 집은 둥글게 돌담을 둘러서 풀로 덮었다 … 龍朔元年(661년) 朝貢 사신이 이르렀다.”<sup>19)</sup>에서 보이는 내용이 있다. 이 기록으로 보아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가옥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며, 원형의 돌담집자리로 여겨진다. 이 시기에 이러한 돌담집자리는 제주도내에서는 알려진 바 없는 것이다.

석축유구는 주거지를 보호하는 담장시설 혹은 호안석축시설물로 여겨지는 것으로 그 방향은 남북방향이다. 석축은 3~4단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으며, 주거지쪽으로 약간 경사져 있다. 원래는 더 높이 쌓여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지 북쪽에는 원형 석렬유구가 나타나는데, 앞의 석축유구는 주거지 방향으로 둘러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주거지 남서편의 석축유구에 계단과 같은 시설물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주거지의 출입구는 서편일 가능성이 많다. 석축유구의 출토유물과 주거지 내부의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적갈색 항아리형토기가 같이 출토되고 있어 상호보완적인 유구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유물은 적갈색항아리형토기, 회색연질토기, 화폐, 방추차, 갈돌 등이 있다.

적갈색항아리형토기<sup>20)</sup>는 탐라시대전기의 표식적인 유물로 최근 팍지리식토기로 불리워지고 있다. 석축유구의 토기들을 보면 두께가 2cm 가량되는 토기들이 많이 보이는데, 대형토기편으로 추정된다. 원형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팍지리패총 V지구에서 출토되는 적갈색 항아리형토기와 유사한 기형을 보인다.

회색연질토기는 기형이 아가리가 넓은 항아리로 와실에 가까운 소성을 보이고 있다. 팍지리패총 V지구 상면에서 출토된 연질토기와 유사하고 전남 해남군 군곡리패총에서 발견되는 회색연질토기와도 비교되는 자료라 하겠다<sup>21)</sup>. 이러한 회색연질토기는 삼국시대전기의 유물로 알려져 있다.

貨泉(A. D. 14년 주조)은 유구의 시기를 판단하는데 결정적 자료를 제공한다. 이 화폐는 제

18) 『唐會要』耽羅國條.

19) 高昌錫 編著, 1995, 『耽羅國史料集』.

20) 이 토기는 토기성형시 회전판을 이용하지 않고, 쌓아올린 점토대의 이음새가 매끄럽지 않은 예가 많으며, 입술면이 정연하게 마무리진 것이 드물다. 이토기의 특징은 그릇 두께가 두터운데, 1.2~1.5cm가 보통이며, 더 이상되는 것도 있다. 바닥 두께도 3~4cm가 보통이다. 태토는 정선되지 않은 편이며, 보강제로 비교적 굵은 현무암알갱이와 모래가 섞여 있다. 토기의 기종은 다음 단계의 고내리식 심발형토기가 단순한데 비해, 항아리, 바리, 원뿔형, 컵형, 손잡이토기 등 다양한 편으로 항아리형토기가 많은 점유율을 보인다.

21) 북쪽대학교박물관, 1988, 『군곡리패총』 I, II, III.

주도내에서 제주시 산지향포구에서 발견된 바 있고<sup>22)</sup>, 제주도출토품으로 여겨지는 제주도민속 자연사박물관 개인 기증 소장품<sup>23)</sup>이 있다. 이러한 화폐는 남해안지역에서 경남 김해패총, 성산 패총 등이 알려져 있다<sup>24)</sup>. 유물은 당시 중국과의 대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음을 추측 할 수 있으며, 당시 대외무역의 기착지 혹은 중개지의 포구와 관련된 집자리유구일 가능성이 있음을 방증해 주는 자료라 하겠다. 그러나 2점의 화폐중 1점은 주연부와 면이 갈려져 있고, 원형의 조그만 구멍이 뚫여있어 위세품 혹은 전세품으로 여겨지는바 소속시기는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석기는 갈돌과 어망추가 있는데, 현무암 석재들이다.

## 2) 탐라후기

이 단계(A. D. 500~900년)의 유구는 적석유구와 패총이 있다. 적석유구 중 유물집중지는 동물뼈와 적갈색토기, 도기, 철기유물이 자갈과 섞여 있어 폐기장과 같은 시설물로 여겨진다. 유물집중지의 유물은 대부분 통일신라시대 유물로 회청색도질토기인 반구병, 파상문호와 적갈색 심발형토기, 철도자 등이 있다. 패총의 패각층내에는 회청색도기, 적갈색 심발형토기, 석기, 철기 등이 확인되며, 패각층의 아래층인 황갈색 색점토층에서 복원 가능한 적갈색 심발형토기들이 다수 출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동제품도 확인 되었다. 이 시기의 유물은 적갈색 심발형토기, 회색도기, 도자기, 철기, 동제품, 석기 등이 있다.

적갈색 심발형토기<sup>25)</sup>는 탐라시대후기의 표식적인 유물로 고내리식토기로 알려져 있다. 패총 구역에서는 원형의 토기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러한 토기는 팍지패총 IV,VI지구, 고내리유적의 토기 같은 형태이다.

회색도기는 인화문계열의 도기는 확인되지 않지만, 병류, 호류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계토기가 유행한 파상문 등이 시문되어 있어 적어도 통일신라계토기가 유입되기 이전의 유물로 판단된다. 아울러 도자기도 중국계 청자 2점이 내저원각의 저부편이긴 하지만 통일신라 중반기 유물로 파악된다. 청동제품은 아가리가 넓은 완류로 파악된다.

## 3) 역사시대유구

석축 및 원형석렬유구 상부에는 도로시설물로 여겨지는 敷石시설이 확인되는데, 상면은 잔

22) 제주대학교박물관, 1986, 『濟州島遺蹟』

23)李清圭·康昌和, 1994, 「제주도출토 漢代 화폐유물의 한 예」, 『韓國上古史學報』17.

24) 지건길, 1990, 「南海岸地方 漢代貨幣」, 『昌山金正基博士 華甲記念論叢』

25) 이 토기는 토기성형시 회전판을 이용하여 동체와 저부를 따로 제작한 다음 접합시켜 만들었고, 동체 부는 아래위로 대갈로 깎아내린 흔적이 남아 있으며, 입술면 마무리처리도 매끈하다. 태토에는 1차가 공한 세립질 모래와 현무암인 휘석, 사장석, 감섬석 알갱이를 보강제로 이용하였다. 앞단계의 적갈색 항아리형토기와는 다르게 기종이 크기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심발형이 대부분으로 단순한 편이다. 기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동체부가 조금 배부르고 구연지름과 바닥지름이 거의 비슷하다. 팍지리식 토기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제주도산 토기이다.

자갈과 흙이 다져 있으며, 가장자리는 비교적 큰 할석으로 막음시설을 하였다. 유구 내부에서는 기와, 청자, 그리고 백자편 등의 유물이 확인된다.

### 3. 유적의 성격

조사결과 이러한 유구들이 일부는 기존의 석축유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된 유구는 다음 표와 같이 탐라 전기 및 후기, 그리고 고려·조선시대유구로 대별된다.

시 기	소 속 유 구	출 토 유 물	유 구 성 격
耽羅前期 (A.D.0~500)	圓形石列遺構(A유구) 石築遺構(B유구)	적갈색항아리형토기, 연질토기, 화폐, 방추차, 석기 등	원형돌담집자리 護岸石築(防築)
耽羅後期 (A.D.500-900)	積石遺構(C유구) 貝塚	적갈색심발형토기, 회색도기, 철제품, 동제품, 석기 등	廢棄場 貝塚
高麗~朝鮮	敷石施設(D유구)	기와, 도자기류 등	道路施設

위의 표에서 살펴 보듯이 탐라시대 전기의 유구는 잡자리와 같은 생활유구이고, 탐라시대 후기의 유구는 패총과같은 폐기장 시설물이며, 고려시대이후에는 도로와 같은 시설물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화폐와 회색연질토기의 존재로 보아 기원후 2~3세기가 중심연대로 파악된다.

따라서 1996년 조사된 석축유구는 당시 포구와 관련된 석축이거나, 호안석축(堤防)과 같은 기능의 것으로 일단 추정해 볼 수있다. 아울러 당시 조사에서 석축안쪽에 일부 조사를 통해 생활유구들이 일부 확인 된 것으로도 확인되며, 탐라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 맺 음 말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모두 옛 광지리와 금성리의 주민들이 남긴 생활 유구임이 분명하다. 먼저 1996년에 조사된 제주대학교박물관의 석축 유구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해안과 가까이 위치하여 밀물시 바닷물을 막기 위한 제방 혹은 포구일 가능성이다. 둘째는 생활지 테두리를 보호하기 위해 돌렸던 석축담(城壁)일 가능성이다.

첫 번째일 가능성은 석축 하단에서 확인되는 암반층이 바닷물을 먹은 흔적이 있는 바닷가 현무암반이고 주변 토층에서 유로 흔적이 확연히 보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일 가능성은 석축이 6단이 쌓여 있고 길이 60m이상, 폭 4.5m 높이 2m이상 되어 단순한 성격의 석축 석렬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그리고 석축 안쪽으로 생활 유구가 확인되고 있어 생활지를 보호하는 시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육지지방의 성곽은 구릉상에 토성으로 축조되며 확연히 마을을 보호하는 성곽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 석축은 석축 상면이 舊地表面과 같은 레벨에 놓여 있어 첫번째 가능성에 가까운 유적이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더불어 1998년에 발굴한 유구들은 생활과 관련된 수로형 석축시설로 판단되며 이 장소는 후대에 계속해서 생활지로 활용되어 졌다. 조사된 석축시설물은 기원후 500~600경에 그 기능이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바닷물이 밖으로 나가면서 육지화(陸地化)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이유로 제방 기능이 상실되면서 석축 앞쪽으로 쓰레기를 벌린 것으로 판단된다. 그 시기는 대략 600년 이후이다. 이 석축 주변의 굴곡 면에 형성된 패총이 끝나는 시기는 패총 위로 만들어진 석축 틈새에서 治平元寶(宋英宗, 1064~1067年)가 출토되어 적어도 이 시기경에 패총이 끝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부터 기원후 200경에 축조된 석축과 기원후 600년경에 형성된 패총이 같은 높이로 지표면이 형성되어 고려시대 생활유구가 자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이 유적은 해수면이 변화과정과 유적의 폐기와 형성과정, 층위의 서열화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연구는 본 보고서에 다루지 못한 부분으로, 추후 더욱 자료를 분석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

